성북구 역사문화산책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강성봉 · 박수진 · 백외준(성북문화원)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문일웅(성균관대 박사수료)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박현주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3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자는 2013 서울시 자치구 동네관광상품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성북문화원
깊은멋 · 나눔 · 즐김



차 례

— 1부 — 동소문 밖 자연 그리고 마을

자연환경과 능말
서울의 동북 관문, 동소문 / 12
성북구의 산과 하천 / 16
두 왕릉과 능말 / 20
성북의 지명 유래_ 성북둔

동소문 밖 마을들의 동신제
마을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 동소문 밖 동신제 / 26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 탐방기 / 29
2013년 성북구의 동신제 풍경

— 2부 — 정릉 일대

신덕왕후, 정릉 그리고 흥천사
조선 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 / 52
정릉의 변천사 / 58
조선 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67
영화『건축학개론』과 정릉

동소문 밖 길손들의 발자취
길손과 주인 / 80
"한 구역 천석泉石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82
'실력 양성'의 공간 -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사찰들 / 97
"지긋지긋한 경성을 떠나고 싶다"
-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사찰들 / 112

정릉동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이 전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모두 손가들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입니다"
- 조선 후기 손가정의 토지 분쟁 / 121
'돌일' - 손가정 사람들의 또 다른 생업 / 129
내쫓긴 사람들 -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토막민들의 정릉리 이주 / 134
'울타리 없는 집'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 142
1950년 정릉의 여름 - 김성칠의 일기로 본 북한군 점령 기간 정릉동 / 154
축대의 세월 - 1950~1960년대 정릉동의 인구증가 / 160



차 례

교수단지와 북악스카이웨이, 그리고 스카이아파트 / 167
정릉동을 걷는 재미 / 182
수난의 미아리-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191

— 3부 — 의릉 일대

의릉의 희로애락
슬픈 경종 / 208
의릉 수난사 / 221
의릉 복원과 시민개방 / 231

석관동 · 장위동의 현대사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 245
쇠고랑 찬 '꿈속의 학사님' / 258

— 4부 — 동소문 밖 사람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의 아내 - 이은숙 / 272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길 - 이규창 / 296
남겨진 자의 이야기 - 백노 유우석 / 309

4.19혁명의 얼굴들
어느 성북구 학생의 4월 혁명
- 한성여자중학교 진영숙 학생의 이야기 / 317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 시인 신동엽申東曄과 돈암동 · 동선동 / 328

발 간 사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북쪽에 있어 이름지어진 성북구는 북한산 자락의 빼어난 경관으로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의 유람지였습니다. 근대에 서울이 팽창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도 이곳 성북구입니다. 이런 오랜 역사와 자연·지리적 조건 덕분에 성북구에는 많은 문화유산과 이야기들이 남았습니다.

1996년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사의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관한 성북문화원은 『성북의 문화재』(1998),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1998), 『선잠제先蠶祭의 역사歷史와 의례儀禮』(2002), 『선잠단과 길쌈 이야기』(2010) 등의 책을 발간하여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널리 알리는 것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야기책은 이런 사라진 성북구의 이야기를 찾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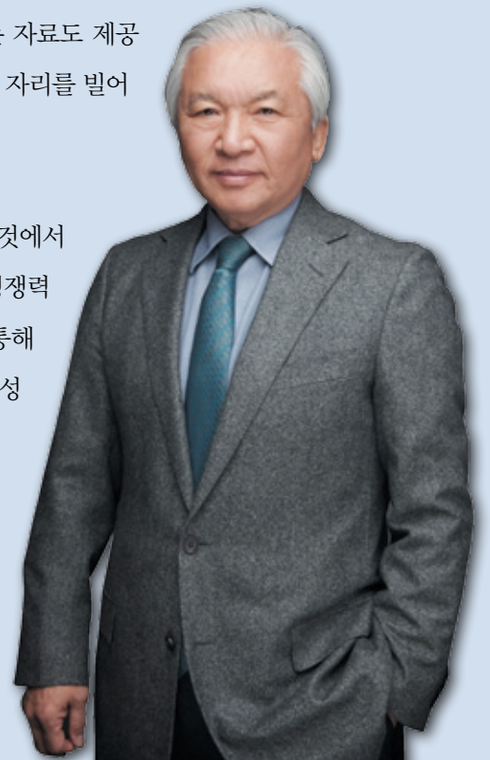
이 책은 동소문(혜화문) 밖 성북구에 있는 두 개의 왕릉인 정릉과 의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왕릉 주변에 마을을 '능말(능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의 제목을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로 정하였습니다.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를 제작하며 많은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조선시대 정릉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유람을 온 사람들의 이야기,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4.19 혁명에 얽힌 한 소녀의 죽음과 시인의 이야기, 그리고 산업화 시기 동네 이야기 등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발굴한 것입니다. 정릉과 의릉에 얽힌 희로애락의 역사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발굴은 많은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인터뷰에 선뜻 응해주셨고, 때로는 자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협조해주신 모든 주민과 기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 정체성의 회복은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회복은 지역 경쟁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를 통해 발표되는 성북구의 역사 이야기가 성북구의 정체성 확립에 새로운 기초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1부

동소문 밖 자연 그리고 마을

자연환경과 능말

서울의 동북 관문, 동소문

조선왕조는 왕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 궁궐을 짓고 종묘와 사직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성곽을 둘러 도성으로 삼고 사대문과 사소문 여덟 개의 성문을 설치하였다. 한양도성의 동북쪽 관문인 혜화문은 처음에는 홍화문弘化門이란 현판을 달았지만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과 이름이 같다고 하여 이름을 혜화문惠化門으로 고쳤다. 혜화惠化란 '은혜를 베풀어 교화한다'는 뜻인데 여진족의 사신이 출입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여진족 사신의 숙소인 북평관北平館도 바로 이 근처에 있었다. 동소문東小門이란 명칭은 위치 때문에 생긴 별칭이다.

사대문의 중간에 사소문을 만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동소문이 지금 이곳에 세워진 것 역시 교통상의 이유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사대문 가운데 북문인 숙정문肅靖門은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사실상 성문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북쪽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에 소문小門을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동소문이다. 동소문을 나서 미아리고개와 수유현을 넘는 길은 당시 철령鐵嶺,



서울의 4대문 4소문



혜화문의 옛모습. 1684년(숙종 10) 문루(門樓)를 새로 지은 후 한말까지 보존되어 오다가 1928년 문루가 훼손되어 이를 헐어버리고 홍예문만 남겨 두었다. 1939년 일제는 혜화동과 돈암동 사이의 전찻길을 내면서 이마저 헐어버려 그 형태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현재의 혜화문.
1994년 현재의 위치(종로구 창경궁로 307)로 옮겨 복원했다.



혜화문 홍예 천정에 그려진 봉황.
예전에는 이 근처에 새떼가 많았으므로 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중의 왕인 봉황을 그려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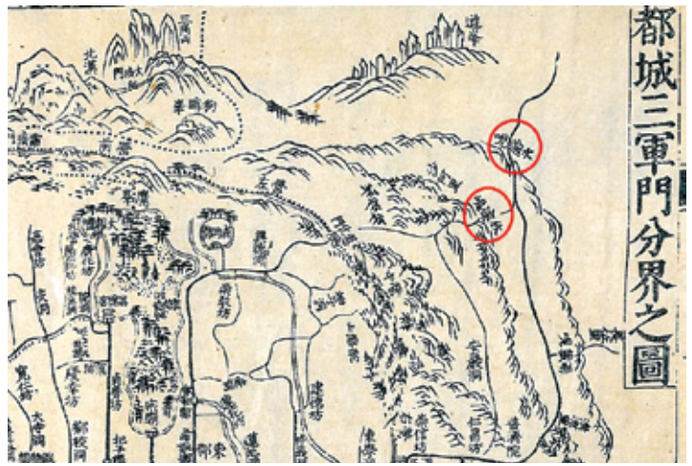
영흥永興, 함흥咸興, 북청北靑, 경흥慶興을 거쳐 서수라西水羅까지 가는 동북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길을 통해 함경도 · 강원도 지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로는 군사로이기도 했다. 무수한 병마가 이 길을 통해 국경을 지키기 위해 변경으로 향했으며, 북방 민족들은 이 길을 통해 한양으로 쳐들어왔다. 특히 미아리고개는 청나라 사람들이 쳐들어 온 고개라고 해서 적유현狄逾峴, 혹은 되넘이고개로도 불렸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용한 길도 바로 이 길이었다.



조선시대 9대로와 역참
(육군본부, 『한국군사사13』, 2012)

성북구의 산과 하천

교통의 요지는 흔히 상업이 발달해 사람이 북적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소문 밖, 지금의 성북구는 그렇지 못했다. 조선 중기까지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해 상업이 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이 '마사'라고 하는 모래흙이어서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산 자락과 바로 맞닿아 있어 산지도 많았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지금의 성북구 지역에는 두 개의 능선이 북에서 동남으로 뻗어오고 있다. 동소문은 응봉자락을 타고 내려온 능선 끝에 위치하는데, 이 동소문을 나와 조금 길을 가게 되면 구준봉 자락을 만나게 된다. 이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성북천이고, 성북동도 이 두 산자락 사이에 위치한다. 구준봉 자락과 개운산을 잇는 능선을 넘는 고개가 바로 미아리고개이다. 미아리고개를 넘어 다음의 언덕은 북한산 자락의 끄트머리에 위치하는 수유현이다. 이 사이에 정릉천이 흘렀다. 성북천과 정릉천은 모두 동쪽으로 흘러 청계천과 만나고 청계천은 다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중랑천과 합류하는 것이다. 지금의 성북구는 대략 이 두 하천을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와 접해 있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1751년, 영조27년 제작) 동소문 밖으로 이어진 길에 적유현과 수유현이 있다.



1861년(철종12) 김정호가 목판으로 발간한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중 동소문 밖 지역을 표시한 부분. 산줄기, 물줄기,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성북구의 행정동과 정릉과 의릉의 위치.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성북구의 모양은 날아오르는 비둘기의 형상을 닮았다.

1983년에 간행된『한국의 발견 : 서울』이란 책에서는 지도에서 본 성북구의 땅 모양을 날아오르는 비둘기의 형상에 비유하였다. 비둘기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암동과 종암동 · 안암동 · 동선동 · 보문동 · 길음동이고, 높게 쳐든 오른쪽 날개는 그 끝을 북한산 봉우리에 두고 흘러내린 듯한 정릉동과 성북동이며, 낮게 드리운 왼쪽 날개는 그 끝이 중랑천에 닿은 석관동 · 장위동 · 월곡동이라고 하였다.

주로 사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성북 지역의 땅은 예로부터 논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 과일나 채소를 재배하는 밭농사를 짓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과수원이나 채소밭이 많았다. 성북동에 복숭아밭, 정릉동의 배밭과 호박밭이 그 예로서 이는 척박한 토양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환경이 모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도성 밖을 나가자마자 펼쳐지는 산과 하천, 그리고 주변의 과수원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성 안 사대부들에는 가장 좋은 유람처가 되었다.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유람하러 와서 남긴 시와 기행문들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흥천사 · 봉국사 · 경국사 · 보문사 · 개운사 같은 큰 사찰들이 동소문 밖에 자리 잡은 것도 도성과 가까우며 산지가 많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두 왕릉과 능말

현재 성북구에는 두 기의 조선왕릉이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릉貞陵과 조선의 20대 임금 경종과 선의왕후 어씨가 묻힌 의릉懿陵이 그것이다. 하늘에서 본 성북구의 땅 모양을 비둘기에 비유할 수 있다면 두 왕릉은 비둘기의 양날개에 매달린 형상이다. 사실 왕릉은 오래 전에 죽은 왕과 왕비의 무덤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들이 성북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영향력은 상당하다.

동소문과 동대문 밖에 제법 인구가 모이기 시작한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였다. 한양도성 밖에는 도성 안에 공급할 식량과 물자를 생산, 운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669년 정릉이 재조성되고 뒤이어 1724년 천장산 자락에 의릉이 조성되면서 그 주변의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당시 어떤 지역에 왕릉이 조성된다는 것은 왕릉과 함께 그 둘레의 광대한 지역을 국가가 소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왕릉 주변의 숲에서는 벌채와 수렵이 금지되었고 마을과 경작지 옆으로는 어가의 화려한 행렬이 지나기 위한 길이 반듯하게 닦였다.

왕릉이 들어서고 능의 보호, 관리 임무를 맡은 능참봉 이하 관리와 수호군守護軍이 배치되자 능 아래에는 이들과 그 식구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생겨났다. 흔히 이 마을들을 '능말' 또는 '능동'이라 불렀는데 정릉 주변에 대정릉동, 소정릉동 같은 마을들과 의릉 주변의 돌곶이능말 같은 마을이 그것이었다. 능말이 생기고 그 일대의 인구가 불어나자 도성 동쪽의 황무지들이 점차 개간되어 농토로 변했고 자연히 마을의 개수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만 해도 한성부漢城府 동부東部 숭신방崇信坊 및 인창방仁昌坊의 성외城外 지역으로 매우 소략하게 표기되었던 성북 지역은 왕릉이 들어서고 얼마 지난 18세기 후반 무렵 종암리계 · 안암동계 · 능동계 · 사아리계 · 장위리계와 같은 하위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는 더 잘게 나누어져 숭신방 동문외계 안에 대종암 · 소종암 · 돈암리 · 삼선평이, 동소문외계 안에 성북동 · 소정릉동 · 손가정 · 청수동이 포함되었고, 인창방의 동소문외계 안에 월곡상리 · 월곡하리 · 석관리 · 장위리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동리의 이름들이 오늘날까지 승계되어 종암동 · 안암동 · 돈암동 · 삼선동 · 성북동 · 정릉동 · 하월곡동 · 석관동 · 장위동과 같은 행정동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성북 지역의 인문지리적 얼개는 17~18세기 두 왕릉의 조성과 함께 갖추어져 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릉과 의릉이 그 일대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강력하다. 먼저 신덕왕후의 무덤 정릉의 아우라는 무엇보다도 '정릉'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비롯한다. 비록 다른 조선왕릉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정릉이지만 그 명칭이 포괄하는 영역은 다른 왕



정릉3동 솔샘로 굴다리에 걸린 문구.
정릉은 정릉동의 역사이자 자랑이다.

릉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단 동쪽 북악터널로부터 서쪽 길음교에 이르기까지, 북편의 북한산성에서부터 남으로 아리랑고개(정릉고개)까지를 포함하는 약 8㎢가 넘는 넓은 지대가 모두 정릉동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다. 여기에 사는 인구는 9만 명이 넘는다. 그런 점에서 정릉은 결코 작은 왕릉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정릉동 사람들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정릉에 산다'고 대답하는데 하나같이 '동'이라는 뒤에 붙는 딱딱한 수식어는 빼고 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답 속에는 '정릉'과 '정릉동'이 똑같은 의미로 통용된다는 사실 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막연한 긍지와 애정이 들어 있다. 또한 거기에는 600년이 넘도록 변치 않고 내려온 '정릉'이라는 고유명사의 질긴 생명력이 배어 있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정릉이 정릉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릉의 영향력은 수십 년 전까지만해도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유는 의릉 그 자체에 있기보다 능역 안에 들어선 중앙정보부(현 국



의릉 앞 주차장. 세계유산 의릉이 열어 준 공간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란다.

가정보원의 전신) 청사 때문이었다. 1962년 1월 중앙정보부의 입주와 함께 석관동 일대에는 새 도로가 놓이고 주택과 공장들이 들어섰다. 서울 근교의 한가한 농촌 지역이었던 석관동은 금세 도시의 외양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옆에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을 끼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도시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곧 청사 주변 석관동과 이문동의 건물 층수와 고도가 제한되었으며 외부인들에게 금단의 땅으로 알려진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음울하고 삼엄한 빛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995년 의릉 앞 정보기관이 내곡동으로 이전하고 1996년 그 자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석관동은 다시 도시

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성북구는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주민들은 골목에서 아파트에서 새로운 이웃공동체를 일구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정릉과 의릉이 다시 한 번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릉과 의릉이 간직한 역사 · 예술 · 학문적 가치가 새삼 조명 받아 국가 차원의 보존 및 복원 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와 함께 왕릉을 곁에 두고 사는 정릉 · 석관동을 비롯한 성북구 주민들의 자부심도 크게 고양되었다. 왕릉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 어느덧 정릉과 의릉은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능역의 보존 · 복원 정책과 그로 인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주거 환경의 불편과 변화라는 현실적인 대립 · 갈등의 요소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성북구를 사람과 문화재, 새것과 옛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실린 동소문 밖 능말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도시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성북城北의 지명 유래_성북둔城北屯

동소문을 나서면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넘으면 평지가 있었다. 그 평지의 넓이가 삼천평三千坪이었다고 하여 삼선평三仙坪이란 이름이 붙었고, 이곳은 병졸들의 연무장이기도 하였다. 종암동 북반부에도 삼선평과 동일한 연무장이 있었는데, 오늘날 성북구 관내가 되는 이 두 개의 장소에 조선왕조의 연병장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도성都城 동북東北의 제1관문關門이 되는 요해처要害處임을 반증한다. 따라서 영조 41년(1765) 이곳에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을 설치하여 소속된 군인과 백성들을 이주시켜 삶을 영위하게 하였다. 성북구의 지명 유래는 다름 아닌 도성의 북쪽에 위치하는 점과 아울러 어영청의 성북둔이 위치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우연일지 몰라도, 현재 삼선동 한성대학교 옆 삼선공원 안에는 조선시대 삼군부총무당三軍府總武堂이 자리잡고 있다. 조선의 군사업무를 관장하던 삼군부의 청사건물로, 1868년(고종 5)에 청헌당淸憲堂, 덕의당德義堂과 함께 지어졌다. 원래 광화문 남쪽 현재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었는데, 청사의 중심이 되는 총무당만을 1930년대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최근 서울의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경기도의 남한산성 및 화성행궁에서 펼쳐지는 조선무예 시연이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양도성을 수비했던 북둔과 군사연무장이 있었던 성북동과 삼선동 일대에서는 아무런 상설행사가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더군다나 삼군부총무당이라는 진귀한 국방 문화재를 바로 곁에 두고도 말이다.



삼군부총무당(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호)

동소문 밖 마을들의 동신제

마을공동체 회복의 가능성-동소문 밖 동신제

전체 면적의 70%가 산과 구릉지로 이루어진 성북구는 서울시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산과 연관된 동신신앙洞神信仰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성북구의 동신제洞神祭는 매년 음력 10월 초 각 동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치러진다. 2013년에는 11월 3일(음력 10월 1일) 정릉2 · 3동, 종암동, 석관동에서, 11월 7일(음력 10월 5일) 정릉4동과 보문동에서 마을제사를 지냈다.

동신제 혹은 그 하위 범주로서의 산신제山神祭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앙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신신앙은 농경문화적인 바탕에서 마을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동신신앙과 동신제는 구습과 미신으로 지탄받아 그 맥이 끊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변두리의 농토가 사라지고 지방 인구의 대거 유입으로 기존 마을 단위 생활권 자체가 없어져버려 많은 지역에서 동신제의 전통이 단절되었다.

다행히 성북구의 동신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잘 계승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 동신제가 치르지 않은 해도 있었지만 마을 토박이들의 주도로 꾸준히 제사가 치러졌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60~1970년대부터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마을 단위 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마을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함으로써 토박이 뿐 아니라 새롭게 서울에 터를 잡은 사람들도 동신제의 주체가 되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산지와 구릉지의 비율이 높다는 성북구의 지리적 특성도 이 지역의 동신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아무리 새 도로가 놓이고 번지수가 바뀌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마을 뒷편에서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은 그 자체로 마을 주민들 누구나가 정서적으로 기댈 만한 자연물이었다. 그리하여 정릉동의 북한산, 종암동의 개운산, 보문동의 동망봉에 모셔진 '산신(혹은 토지신이라고도 부른다)'과 석관동 천장산 기슭에 모셔진 '도당 할머니' 같은 신적 존재는 그저 농경사회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나가는 도시인들에게 미래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주는 신앙 대상으로 재해석되었다. 나아가 동신제는 이웃의 존재감이 엷어져 삭막해진 도시 속에서 공동체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들어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민 · 관 차원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이웃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동신제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구

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동신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정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장에서 은퇴한 연장자들이 대부분이고 참가자들도 대체로 50대를 넘어선다. 청 · 장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마을축제 또는 잔치로서의 동신제를 고민해볼만한 시점이다.

성북문화원의 직원들은 11월 3일과 7일에 열린 성북구의 동신제를 모두 취재했다. 그 중 11월 3일 아침, 정릉3동에서 치러진 '배밭골 산신치성제'의 탐방기를 소개한다.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 탐방기

정릉 입구 삼거리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국민대학교 조금 못미처 왼편으로 시선을 옮기면 널따란 소쿠리 같이 움푹 파인 지형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마을 하나가 보인다. 정릉3동 배밭골이다. 마을은 정릉로와 내부순환로가 지나는 북쪽을 제외하면 동서남쪽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가는 북악산 줄기와, 서쪽의 북한산 보현봉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배밭골을 둥지처럼 감싸고 있다.





배밭골 산제단 올라가는 길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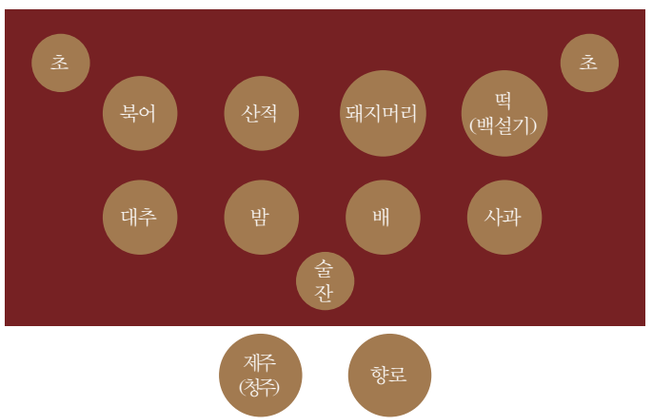

산신제를 봉행하는 모습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아침에 들른 배밭골은 10시가 넘었는데도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동네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은 이 날이 배밭골 산신제 날임을 알려 주었다. 현수막을 지나 몇 걸음 올라가니 길 옆으로 작은 개천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작은 다리를 건너자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는데 산 공기가 상쾌하다. 기슭까지 단풍이 물든 가을산은 간밤에 내린 비에 젖어 있었고 간간히 산새의 울음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다.

산제단은 북한산 숲체험장 안에 있었다. 성북구가 2009년 6월 정릉동 산 87-1번지 일대에 조성한 북한산 숲체험장은 야생화 단지와 작물 재배지 등이 있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산제단은 숲체험장의 가장 안쪽 둔덕 위 커다란 바위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바위에는 결가부좌한 불상 세 구가 고부조로 양각되어 있었고, 그 오른편에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단이 있었는데 이를 산제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필자가 도착한 때는 10시 30분으로 제단 위 상차림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막 제복을 차려 입은 제관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제복을 입지 않은 분들은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끈에 매달아 제단 옆에 걸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뒤쪽에서 제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어르신이 필자더러 어디서 왔냐고 하시기에 성북문화원에서 산신제 취재차 왔다고 하니 “사진 좀 잘 찍어줘” 당부하신다. 산신제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배밭골에 있는 시립북악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다.



원래 11시에 시작하기로 된 산신제는 조금 앞당겨진 10시 40분에 시작되었다. 산신제에 차려진 제물은 돼지머리와 떡, 산적, 북어, 사과, 배, 밤, 대추, 술이었다. 제물 차림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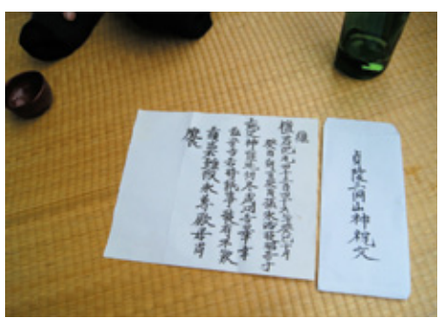


배밭골 산신제의 제물차림

산신제 절차는 간명했다. 진설이 끝난 뒤 초헌관이 분향을 하고 첫잔을 올린 다음 재배했다. 이어서 독축이 끝나면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나아가 잔을 올리고 재배했다. 마지막으로 음복례를 행한 뒤 제를 마쳤다. 소지는 특별한 의식 없이 제단 앞 공터에서 살랐다. 축문은 집례자이자 독축관을 맡은 이진용(78) 어르신이 직접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기 4346년 10월 1일 계유일에 손영호孫永浩가 감히 토지의 신에게 고합니다. 이 초겨울 한 해 수확이 끝났는데 다행히 편안하고 길하였음을 고합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감히 공경치도 못하고 제수도 비록 미약하지만 그 계신 곳에 영원히 바치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四十六年癸巳十月癸酉朔一日癸酉 孫永浩敢昭告于土地之神 惟此初冬 歲功告畢 幸玆安吉 若時報事 敢有不欽 蘋藻雖微 永尊厥居 尙饗)





독축하는 모습과 축문

제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이 둘러 모여 진설한 음식과 술을 드시고 계시는 사이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스님 한 분이 제단 쪽으로 올라 왔다. 산제단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이 앞 대덕사에 계시는 스님인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오늘처럼 부처님(바위에 부조한 세 불상을 가리킨다) 앞에다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보기에 안 좋으니 다음번에는 이 위에 또 단이 하나 잘 꾸며져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제사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이었다. 북악노인정 어르신들은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음식과 제수 용품을 챙겨 하산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산신제가 끝난 뒤 북악경로당에는 큰 상이 차려져 산신제에 오신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접했다. 제사가 남자들이 주도해서 치러지는 것과 달리 경로당에서의 음식 대접은 모두 여자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마다 육개장, 동태전, 도라지무침, 김치, 황태찜, 떡 등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주도 내주었다.

이번 산신제를 주관하신 정릉3동 북악경로당 회장 조화연님은 산신제가 제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배밭골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주로 노인들만 참여하는데 남녀노소와 종교를 불문하고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네 한마당 잔치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저기서 온 손님들 대접하느라 부산스러운 와중에도 직접 성북문화원 직원들이 앉아 있는 밥상 옆으로 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해주시는 조화연 어르신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이날은 배밭골 8개통 주민의 날이야. 옛날부터 무사안일, 무사태평을 기원하려고 산신제를 지내 왔던 거지. 선배들이. 요걸 배밭골 남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그럴라면은 장수상長壽賞, 모범통장상 수여식이나 민속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꽹과리도 치고, 젊은 사람도 참여하고, 착한 어린이상도 주고 그러는 행사를 만들어야지. 의논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옛날식대로 산신제 지내고 먹고 떡 나누고 소지 올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신제 끝나고 난 뒤에 그런 행사도 해서 주민 한마당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구청의 지원도 좀 많이 받아야 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지. 예산이 천만원 정도는 들 거야. 주민들 협조 받고 구청 지원 받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산신제는 배밭골 주민의 무사안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민속문화지. 북한산 산신에게 고하는 거지.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옛날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배밭골에) 교회가 둘이나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해. 그니까 고것을 바꾸어 나가야 해. 산신제 지내는 날에 산제 지내는 사람은 지내고 그 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노는 배밭골 주민 한마당으로 바꿔나가야지.

- 정릉3동 북악경로당 회장 조화연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 그 장면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배밭골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얼굴은 좀처럼 보

이지 않았다. 마을이 삶의 단위이자 범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그나마 가족만이 유일한 생활공동체로 남은 오늘날 도시인들의 상황은 이곳 정릉3동 배밭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듯했다. 그렇지만 정릉3동 배밭골 어르신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벌이는 축제로서의 산신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랜 시간 마을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의 따뜻한 품에서 알토란 같은 삶들이 지속되는 한 이웃들 간의 순수한 유대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2013년 성북구의 동신제 풍경

| 정릉2동 산신제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2시 (음력 10월 1일)
장소 : 정릉2동 정릉 안 약수터 옆 산제단
주관 : 정릉2동 공청회



정릉2동 산신제 현수막.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릉2동 아리랑시장에 걸렸다. 산신제가 열리기 약 열흘 전부터 아리랑 시장의 상점들에는 산신제를 알리는 청사초롱이 걸렸다. 정릉2동 산신제는 올해로 98회를 맞았다고 한다.



제물차림.
돼지머리가 가운데에 놓인다.



초헌례. 정릉2동 산신제는 '옥황상제'와 '산신'에게 각각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헌작 후 재배. 산신제를 참관하는 사람들도 집례자의 권유에 따라 고개를 숙였다.

| 석관동 도당제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5시 (음력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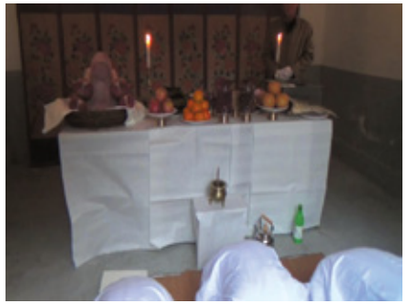
장소 : 석관동 도당 (화랑로32길 146-20 / 석관동 산1-5)



석관동 도당. 돌곶이역 근처 석관지구대 앞 삼거리에 있다. 평소에는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신체(神體). 당내에 신주(神主) 대신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은 주저리로 덮어 놓았다. 주신(主神)이 여신이었음과, 이 마을의 주업이 농업으로서 풍농을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도당신(都堂神) 양주 분이 있는데 중화동 봉화산신은 '도당 할아버지'이고, 천장산신은 '도당 할머니'라고 한다.



아헌례 후 재배. 제상에 올리는 황소 머리는 수놈이어야 한다. 이렇게 소를 수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신(洞神)이 여신임을 알 수 있다.

| 종암동 북바위 산제사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6시 (음력 10월 1일)
장소 : 종암동 극동아파트 뒤편 개운산의 산제단 (북바위)
주관 : 종암동 향사회享祀會





종암동 극동아파트 앞 산제사를 알리는 현수막(좌)과 극동아파트 뒷편 개운산 산제단(우)

維
歲次壬辰十月己卯朔初一日己卯
幼學 金沃洋 敢昭告于
鍾岩山神 神其保佑 順風好雨
民生 安寧 事業 繁昌
萬事 亨通 俾無 後艱
謹以 淸酌 脯醢 祗薦
于神 尙
饗

〈종암동 산제사 축문 (2013)〉
"임진년 10월 초하루 기묘일 유학(幼學) 김옥양(金沃洋)은 감히 종암산신령께 밝히 아룁니다. 신령께서는 우리를 보우하사 순풍과 단비를 보내주소서. '민생안녕', '사업번창', '만사형통'하여 훗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정결한 음식을 공손히 신령께 올립니다. 흠향하소서."









산제사가 끝난 뒤 소지(燒紙) 의식.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에 태우며 큰 소리로 "○○○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 아들 내년에 꼭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등의 덕담을 했다.



독축과 제상차림. 가운데 놓인 것은 소머리이다.



종암동 극동아파트 앞 한 창고를 빌려 산제사 뒷풀이 잔칫상를 준비하시는 아주머니들

| 정릉4동 한산대동산신제

일시 : 2013년 11월 7일 오전 11시 (음력 10월 初丁日 巳時)

장소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앞 한산신 제단 (정릉동 산1-1)

주관 : 전승문화번영회





정릉입구 삼거리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좌)과 청사초롱(우)



북한산 제단의 비석. "신단(神壇) 앞에 서서 인지(仁智)를 배웁니다/신단 앞에 꿇어 엄손(儼遜)을 배웁니다/신단 앞에 엎디어 신기(神氣)를 받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1992년 10월 전승문화번영회에서 제단을 만들면서 함께 세운 것이다.



오신(娛神)을 위한 의식. 제사 드리기 전 풍물마당. 단순히 흥만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악을 울려서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초헌례. '한산신(漢山神)'과 '한성신(漢城神)' 두 신위를 모셨다. 제상에는 염소가 오른다.

維 歲次 ○○十月 ○○朔 ○○○日 ○○ 侍生 ○○ 后人 ○○○은 감히 밝혀 고하나이다.

顯漢山神 (현한산신) 한산신은 나투소서
顯漢城神 (현한성신) 한성신은 나투소서
今爲十月 (금위시월) 지금 시월이옵니다.
白頭大幹 (백두대간) 백두의 큰 줄기가
悠悠南馳 (유유남치) 유유히 남으로 달리어
弋削千丈 (익삭천장) 천 길이나 깎아
雪嶽峻峰 (설악준봉) 설악의 큰 봉우리 되더니
自起西馳 (자기서치) 다시 일어 서쪽으로 내달아
頭流道峰 (두류도봉) 도봉으로 흐르면서
若驚若怒 (약경약노) 혹은 놀라고 혹은 성난 듯이
餘勢蜿蜒 (여세원연) 남은 기운을 꿈틀어서
爲名漢山 (위명한산) 이름 하여 한산이 되었도다.
石築城砦 (석축성채) 돌로 쌓은 성채
北漢山城 (북한산성) 북한산성이라
漢水相沖 (한수상충) 한강물과 서로 맞아
山澤通氣 (산택통기) 산기운 물 기운이 상통하여
實賴神休 (실뢰신휴) 신의 은혜를 받아
吾居漢陽 (오거한양) 우리가 한양에 살고 있음에
每歲十月 (매세시월) 매년 상달에
涓吉禱誠 (연길도성) 좋은 날을 잡아 정성을 모으고 기도함은
三國角逐 (삼국각축) 삼국의 각축에도
期於統一 (기어통일) 통일이 되었듯이
如前願成 (여전원성) 원컨대 그때처럼
國土統一 (국토통일) 나라를 통일되게 하시기를.
啓我明靈 (계아명령) 나의 밝은 영혼으로
玆以齊浴 (자이제욕) 이제 목욕제계하고
百拜獻敬 (백번헌경) 백번 절하며 공경하여
伏願尊靈 (복원존령) 신령에게 엎드려 원하나이다.
精奉犧牲 (정봉희생) 정성으로 희생을 올리오니
伏願尊神 (복원존신) 엎드려 신령께 원하옵니다.
仰止敬止 (앙지경지) 우러름과 공경함이 끝이 없겠사오니
尙 (상) 바라옵건대
饗 (향) 흠향하소서

한산대동산신제 축문

| 보문동 동망봉산신제

일시 : 2013년 11월 7일 낮 12시

장소 : 보문동 산신각 (보문동6가 209)

주관 : 보문동 동망봉산신제례보존위원회, 보문동 주민자치위원회, 보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산신제 전날(11월 6일) 오후 보문동 지신밟기(걸립) 풍경. 상쇠를 맡은 분은 보문동 주민자치위원회장 박동운 씨이고 다른 풍물들은 보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맡았다.



동망봉 산신제 전날 지신밟기 경로. 보문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제를 드린 후 보문시장과 보문동의 상점들을 돌면서 각 기업들의 번창을 빌어주고 소정의 찬조금을 받는다. 이날 지신밟기는 저녁 6시경 보문동 치안센터 앞에서 끝났다.



제상차림. 제상에는 소머리와 우족, 소내장이 오른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날 지신밟기할 때 제물에 쓰일 소를 끌고 다녔으나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이 심해 올해에는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소 인형탈을 쓰고 다녔다.



산신각 안에 모셔진 신위. '동망산신령신위(東望山神靈神位)'(좌), '정순왕후여산송씨신위(定順王后礪山宋氏神位)'(우)라고 적혀 있다.



동망봉 산신각. 예전에는 산신각 옆 은행나무에 소를 매어두었다가 주민들이 손수 잡아서 제물로 썼다고 한다. 보문동은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산신각 옆 주택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산신각 역시 다른 곳을 옮겨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제사가 끝난 뒤 기념촬영. 이날 초헌관은 보문동 새마을지도자협회장 김동기 씨, 아헌관은 보문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천종수 씨, 보문동 현 주민자치위원장 박동운 씨가 맡았으며 동망봉산신제례보존위원회장 이용태 씨가 집례를 담당했다.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2부

정릉 일대

신덕왕후, 정릉 그리고 흥천사

성북구 아리랑로19-116(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08)에는 한 기의 조선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정릉貞陵이다. 그리고 그 일대의 행정구역 이름 정릉동은 바로 이 정릉에서 유래했다. 서울 한 지역의 이름이 된 정릉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주인공은 왜 이곳에 묻히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조선 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

이성계를 만나다

정릉의 주인공은 바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이다. 그녀의 집안은 고려 태조 왕건의 외가라는 좋은 집안이었다. 아버지 강윤성康允成도 고려에서 문하찬성사(종1품)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으며, 황해도 곡산 지역의 실력자이기도 했다.

고려 말은 혼란의 시기였다. 오랜 원元의 지배로 국력은 허약해져 있었고, 왜구의 침입은 날로 극성을 부렸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공민왕의 개혁도 실패로 돌아갔다. 고려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이런 시기에는 문인보다 무인이 주목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을 세워 부각된 인물이 바로 이성계이다. 이성계는 공민왕 시절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아버지 이자춘李子春과 함께 공을 세우면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왜구 격퇴를 통해 최영과 함께 정계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만남은 이 사이 언제가 아니었을까? 공을 세우고 두각을 나타내도 이성계는 여전히 변방의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고려 최고 명문가이면서, 개경 근처에 세력을 두었으며, 중앙에서도 높은 벼슬을 지내던 강윤성 집안과의 혼인은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와, 실질적인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와의 만남이 단순한 '정략결혼'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무언가 시시하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만남에는 저 버들잎 설화가 전해진다.

이야기는 이렇다.

"옛날 우리 태조太祖께서 여름철에 말을 달려 계곡을 지나다가 매우 갈증이 나므로 개울에서 빨래하는 한



태조 어진(御眞)(국보 제317호)

여자를 보고 물을 떠오게 하였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즉시 물을 떠오는 데 버들잎 한 움큼을 물에 띄워가지고 바쳤다. 태조가 노하여 '왜 버들잎을 섞었는가?' 하니, 그 여자가 '더울 적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몸에 해로우므로, 그것을 불면서 천천히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 그러자 태조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말에 태워가지고 함께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신덕왕후였다

(『다산시문집』 14, 跋, 神德紀蹟碑帖에서 발췌)."

무엇인가 로맨틱하면서도 익숙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이 설화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다. 버들잎 이야기에는 물과 여성이 등장한다. 개울이 아니라 우물로 전해지기도 한다. 아마 물과 여성이 갖는 모티브 때문일 것이다. 신라 혁거세赫居世와 결혼한 알영부인閼英夫人은 알영정閼英井에서 태어났다.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은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유화柳花, 즉 버드나무꽃이라는 이름이었다. 생명의 상징인 물과 생명의 기운이 샘솟는 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이런 모티브들이 남아 왕건과 장화왕후, 이성계와 신덕왕후에게 이어졌으리라.

왕건과 이성계 모두 이 버들잎 이야기 주인공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다. 혜종惠宗과 방석芳碩 모두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다. 이들의 세자 책봉은 이런 경쟁을 이겨낸 것이었고, 여기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은 작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왕과 왕비와의 관계가 부각되었고, 이것이 유독 이들에게 이런 로맨틱한 버들잎 설화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장화왕후의 아들은 혜종으로 즉위를 했고, 신덕왕후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차이가 있다.

비록 정략결혼이라 할지라도 이성계와 강씨의 금슬은 매우 좋았다. 특히 이성계는 강씨를 많이 아꼈다.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왕이 된 이후에 강씨(이때는 현비)가 병이 들자 죄수를 석방하였으며, 병이 나으면 승려들을 불러 법회를 열었다. 또한 어디를 가도 되도록 함께 가려 하였다. 왕이 되기 전 공민왕이 부른 자리에도 이성계는 강씨와 함께 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행차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강씨가 죽자 이성계는 통곡을 했다고 전해진다.

강씨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외모가 어땠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과단성 있고, 당당한 성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어찌할지 모를 때,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라고 힐책한 것이 바로 강씨였다.

이성계 역시 권근에게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당시 중외에서 근로할 때나 화가위국化家爲國하는 날에 있어서도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정무를 임할 때에도 충고하고 돕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동문선』 78, 貞陵願堂曹溪宗本社興天寺造成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과단성 있고 당당한 모습이 호방한 무인이었던 이성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조선 최초의 국모가 되다

그리고 이성계가 즉위했다.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는 이미 죽은 후였다. 강씨는 현비顯妃로 책봉되었다. 실질적인 조선왕실의 첫 왕비가 된 것이다.

이성계의 사랑, 과단성 있고 당당한 성격, 왕비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정치적 야망을 갖게 하기 충분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성계에게는 한씨 부인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다. 특히 다섯번째 아들 방원은 조선의 실질적인 개국 공신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 자신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일은 도박에 가까웠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공이 있는 자를 세자로 세워야한다'는 신하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른 개국공신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방석을 왕위에 세우는 것에 성공한다.

차후의 일이야 어찌되었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에게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방원보단 어린 방석이 대하기 수월한 상대였다. 강씨는 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정도전을 선택한 것 역시 그녀의 정치 감각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된 것은 1392년 음력 8월 20일이었다. 조선이 같은 해 7월 17일에 건국 되었으니, 이를 통해 강씨가 얼마나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는지, 또한 이성계가 얼마나 강씨를 아꼈는지를 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라 했다. 모든 것을 가진듯한 그녀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바로 약한 몸이었다. 조선이 개국한 다음 해(1393)부터 그녀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2년(1393) 이후 그녀에 대한 기록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병을 앓는 이야기와 이성계가 그녀를 아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성계는 그녀가 생일이거나, 아프면 죄수를 풀어주었다. 덕을 쌓아 그녀의 병을 낫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병이 나으면 법회를 베풀고, 거동이 가능해지면 같이 근처의 사찰과 암자를 다녔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은 효험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태조 5년(1396) 8월 13일 이득분이란 자의 집에서 목숨을 다한다.

강씨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어린 아들을 세자라는 위험한 자리에 두고 떠나지만, 자신을 사랑하던 이성계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도전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편히 눈을 감았을까? 아니면 어린 아들이 범 같은 이복형들인 방간, 방원 등과 함께 세상에 남아 있음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까?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녀의 자식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는다. 그녀가 죽고 만 2년도 되지 않아 방간과 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강씨의 아들들인 방석과 방번을 모두 살해한다.

그녀의 사후 역시 풍파를 겪는다. 그녀의 무덤은 도성 내에,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마련된다. 도성 안에는 능을 쓸 수 없었지만 그녀를 극진히 아낀 이성계는 자신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능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성계가 물러나자 그녀의 무덤 역시 옮겨 가게 된다. 그녀는 후궁으로 격하되었고, 무덤 역시 교통도 불편하고 궁벽진 사을한리(현 정릉터)로 옮겨가게 된다. 이어지는 정릉 이야기는 그녀의 사후가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정동 일대

정릉의 변천사

법도를 어기고 도성 안에 능을 만들다

정릉은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다. 강씨에 대한 이성계의 사랑은 그녀의 사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본래 사대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의 무덤은 물론 왕릉도 쓸 수 없다. 그게 법도였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다름 아닌 이성계다. 그는 무덤이나마 강씨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 처음 생각한 곳은 안암동이었다. 하지만 땅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황화방皇華坊(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강씨의 무덤(능)을 만들고 이름을 정릉貞陵이라 했다.



현재 광통교에 남아 있는 당시의 호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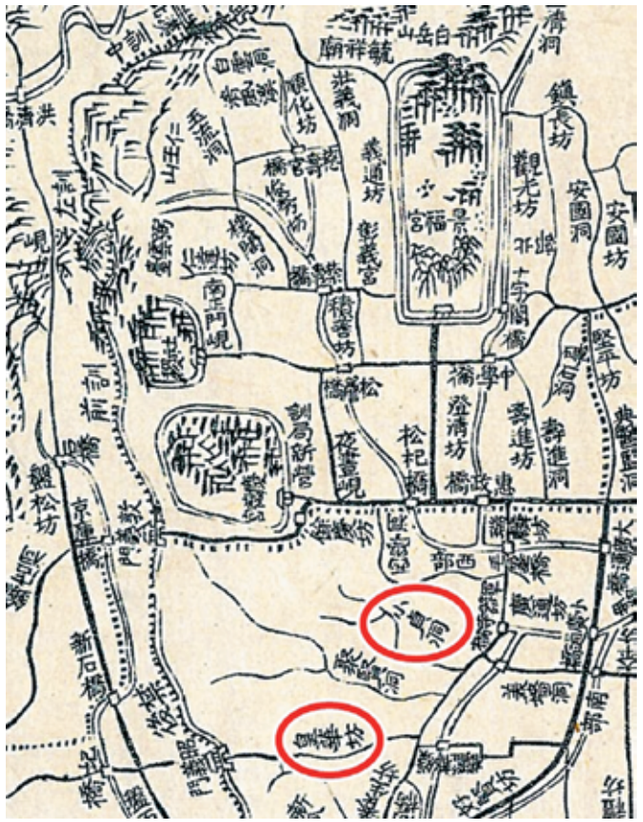


현재 광통교에 남아 있는 당시의 호석(2)



고려 공민왕릉의 호석.
현재 광통교에 남아 있는 호석과 비교해보면 정릉이 공민왕릉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능은 크고 화려했다. 현재의 덕수궁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정릉의 권역은 적게는 1만평, 넓게는 지금의 정동 1번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이인 4만평까지 추정한다. 능 자체의 규모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공민왕릉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하는 원래의 정릉은, 현재 광통교에 남아있는 병풍석의 크기를 보면, 지름은 10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751년에 만들어진 도성삼군부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둥그라미 친 황화방에서 소정동까지가 모두 옛 정릉의 권역으로 추정되는 자리이다.

이는 현재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보다 큰 규모였다(현재 정릉의 지름은 약 7.28m).

그 옆에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70여 칸 규모의 큰 사찰, 흥천사興天寺를 세우기도 했다. 정릉의 석물은 물론 흥천사도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조선 최초의 국모에서 후궁으로

하지만 정릉의 화려한 운명은 이성계의 생시까지였다. 이성계가 죽자(1408) 신덕왕후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방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능을 도성 밖 사을한리(지금의 성북구 정릉동)로 옮겼다(1409). 남은 석물들은 땅에 묻혀 있다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재건하는 것에 사용됐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릉의 석물을 밟고 다니게 됐다. 그리고 그녀의 지위를 왕후에서 후궁으로 격하시켰다. 이성계의 사랑도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금 덕수궁 근처 정릉의 흔적은 정동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18세기 중만에 만들어진 도성도(여지도)에 보이는 사하리

정릉은 세종 대에 더욱 소외되었다. 정릉의 제사는 국가제사에서 친족들이 하는 제사로 격하된다. 반영半影 역시 고려 왕실의 그것들과 함께 불태워진다.

정릉이 옮겨간 사을한리, 지금의 정릉동은 서울 근교이긴 하지만 외진 곳이었다. 다른 왕릉을 갈 때는 사대문을 통해 나가지만, 정릉동 가는 길은 혜화문(동소문)을 거쳤다. 왕릉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지금의 정릉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일제 강점기에 이주 정책이 시행되며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기에 개발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런 궁벽한 곳으로 옮겨진 후 정릉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송시열, 정릉을 복권하다

이후 정릉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70여년이 지난 선조 14년(1581)부터였다. 신덕왕후의 아버지인 강윤성의 후손이 선조의 행차에 나타나서 "저는 판삼사사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입니다. 지금 군역軍役에 배정되어 있으니, 국묘國墓를 봉사奉祀하는 사람들은 군역을 면하는 전례에 의하여 개정해 주소서"라는 청을 한 것이다. 율곡 이이와 같은 사람들도 정릉을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정릉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황이었다. 조정에서는 정릉의 위치도 알지 못했다. 논의가 시작되자 처음 정릉을 찾으러 보낸 곳이 아차산일 정도였다. 찾으려는 큰 노력도 없었던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릉을 사을한리로 옮겼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 실록을 봤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릉을 찾게 된 것은 변계량의 『춘정집春亭集』 가운데 정릉을 이장한 축문에 '국도 동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본 이후였다. 선조 역시 '오늘날의 신하는 이 시대의 일만 논할 뿐이다'라며 윤허하지 않는다.

정릉이 다시 복권의 기미를 보인 것은 인조 6년(1628)의 일이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릉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관리하는 사람(능참봉)이 없어 마구 벌목이 되어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었고,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丁字閣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조는 다시 경기감사였던 최명길의 보고를 받고 정릉에 능참봉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복권은 물론 정자각의 건설도 허락되지 않았다.



우암 송시열

정릉의 복권은 송시열宋時烈(1607 ~1689)에 의해 추진되었다. 17세기 중반을 지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예학이 발달했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 되게 된다. 단종(당시 노산군)에 대한 복권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도 이때였다. 그리고 이 예학의 거두가 바로 송시열이다. 송시열에게 조선의 첫 왕비

인 신덕왕후 강씨의 종묘 배향은 마땅한 일이었다. 그는 현종에게 여러 차례 신덕왕후의 복권을 주청한다. 송시열은 모든 잘못을 정도전과 태종을 보필한 신하들에게 돌림으로서 강씨를 복권시킬 명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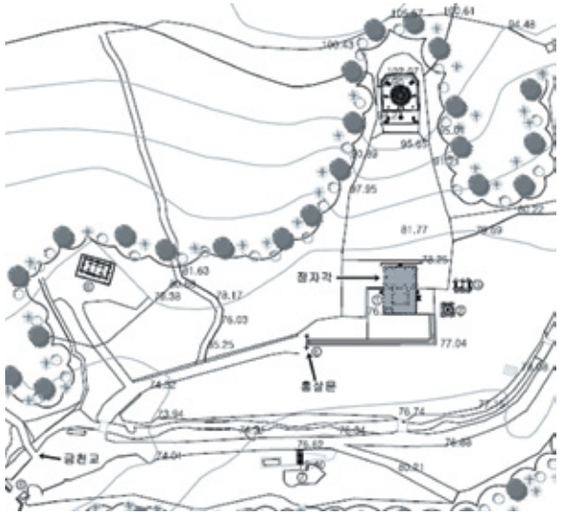
이 논의는 현종10년(1669) 1월에 시작되어, 8월 5일 신덕왕후가 종묘에 부묘祔廟가 허락되었고, 10월 1일에 부묘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후궁으로 격하되어 옮겨진 지 260년 만이고, 선조 때 처음 복권이 처음 논의된 지 88년 만의 일이었다. 복권되던 날은 비가 많이 왔다. 사람들은 이 비를 '원한을 씻어주는 비', 즉 세원지우洗怨之雨라고 불렀다. 이후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 후 신덕왕후는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로 최종적으로 추존된다(1899년(광무 3년) 12월 19일).

세계문화유산 정릉

그러나 이렇게 복권이 되었어도 정릉은 다른 왕릉보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 먼저 출입구로 들어가면 나쁜 기운이 건너오지 못하게 한다는 금천禁川이 나온다. 이 금천은 능상의 진입축과 일치하게 동향東向을 하고 있다. 금천을 지나면 신성한 영역으로의 입구인 홍살문이 나온다. 홍살문은 능상 진입축과 직각에 가까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가는 참도參道라는 길이 다른 능과 달리 90° 가량 꺾여 있다(<정릉 배치도> 참조).

왕릉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무석인武石人도 없고, 석호와 석양의 수도 적다. 병풍석과 난간석도 모두 없다. 본래 옮겨진 곳이 워낙 궁벽하고 협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몇몇 곳에는 초기의 화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명등이다. 정릉의 장명등은 다른 석물에 비하면 규모가 크다. 다른 왕릉의 장명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이다. 처음 정릉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정릉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혼유석의 밑에 있는 고석鼓石과, 소전대도 같이 옮겨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릉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광통교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 태종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재건하는데 정릉의 석물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석물은 지금도 광통교에 남아 정릉의 옛 영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정릉 배치도

하지만 그 때문일까? 정릉은 서울에 보기 드문 넓은 녹지를 가진 공간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살아서는 조선 최초의 왕비였고, 죽어서는 온갖 풍파를 겪은 신덕왕후 강씨. 그의 마지막 휴식처인 정릉은 이제 다른 조선 왕릉들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지난 풍파를 뒤로하고 더욱 잘 정비·복원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정릉–능침



현재의 정릉–정자각

조선 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이성계의 정성이 담긴 사찰

흥천사는 정릉에 묻힌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절이다. 이런 절을 원찰願刹이라고 한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었지만 신덕왕후에 대한 이성계의 사랑이 깊었던 만큼 흥천사는 정릉의 바로 옆, 도성의 중심에 전체 170여 칸이라는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 더욱이 김사행金師幸이라는 환관이 태조의 마음을 사기 위해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니, 처음의 흥천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크고 화려한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성계는 단순히 도성 한복판에 흥천사 건설을 지시만 한 것이 아니었다. 흥천사를 건설하는 장인들에게 음식을 내려 주기도 하고, 전각의 건설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날은 백관이 모두 기다리는데도 이성계는 흥천사 공사현장에 가서 건설을 직접 살펴본 일도 있었다. 공사가 늦어지면 독촉하기도 했다. 이런 지경이니 법회가 자주 열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성계가 흥천사에 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만든 흥천사여서였을까? 이성계는 흥천사의 종소리와 염불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수저를 들었다고 한다.

왕실사찰로 거듭나다.

정릉이 옮겨 가면 원찰인 흥천사의 운명도 같이해야 했다. 더욱이 태종에게 흥천사는 맘에 들지 않는 사찰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정성이 담긴 사찰을 함부로 폐할 수는 없었다. 태종은 흥천사의 스님들을 불경하다고 꾸짖으면서도 사리전의 중수를 허락한 것은 흥천사에 대한 태종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본래 역할, 즉 정릉에 대한 원찰의 역할은 사라졌으며 흥천사는 왕실 사찰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흥천사의 운명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는다. 세종 대에 들어서자 흥천사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성 안에 사찰이 있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나중에는 정릉이 폐하여졌으니 흥천사 역시 폐해야 한다는 이유도 추가되었다. 비록 세종은 조종祖宗을 위한 사찰이란 명분으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지만, 흥천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흥천사에 대한 기록은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대부분이다. 세종 31년(1449) 6월에는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자 왕이 승려 140여 명에게 포물布物을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보아 흥천사는 이때까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대에는 흥천사의 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신하들이 흥천사의 수리가 불가함을 왕에게 간한다. 그러나 일본 사신들이 보기 원하였기 때문에 수리는 간신히 진행된다. 흥천사는 기우제를 지내고 외국 사신이 예불하는 사찰이 되었던 것이다.

불에 타 사라지다

연산군 10년(1504) 흥천사에 불이 났다. 이로 인해 흥천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듯한데, 복구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흥천사는 왕실 사찰로서의 기능도 잃은 것이다. 흥천사의 마지막은 중종 5년(1510)의 사리각 화재였다. 이때의 화재는 유생들에 의한 것이었다. 유생들은 흥천사(정릉사)의 보물들을 도둑질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흥천사를 불질렀다. 중종 7년(1512)에 성 안의 폐사지를 민간에게 주어 살도록 하자는 건의가, 중종 10년에는 흥천사 터에 압사당한 사람을 장사지내라는 전교가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흥천사는 앞의 두 번의 화재로 모두 불에 타 사라졌던 것 같다. 결정적으로 중종 32년 기록에는 '한성부에서 흥천사 옛 터에 대해서 아뢴 기록이 있다. 이렇게 흥천사는 중종 대에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흥천사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하는 것은 세조 7년(1461)에 만들어졌다는 종이다. 화재가 났어도 흥천사종은 불에 타지 않았다. 아마도 화재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다. 영조 23년(1747)에 와서야 비로소 광화문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흥천사명 동종(보물 제1460호)

나오기 때문이다. 이 종은 일제강점기에 덕수궁으로 옮겨졌으며, 지금도 덕수궁에 있다. 흥천사종에는 참여한 장인匠人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신각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을 제작하는데도 참여했다. 흥천사종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종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흥천사

지금 정동에 있는 흥천사는 불에 타 없어진 후 재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흥천사의 명맥은 이전한 정릉 곁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1840년대에 만들어진 수선전도에 보이는 정릉과 신흥사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흥천사는 세 번의 이전 끝에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고, 신흥사新興寺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흥천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기록에는 정릉을 사하리로 천장하였을 때 흥천사도 같이 옮겼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흥천사는 이후에도 계속 원래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 정릉이 옮겨 올 당시에 흥천사에 있던 스님의 일부도 능을 따라 왔고, 이것이 '절이 옮겨왔다'고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자리한 곳은 함취정含翠亭이 있던 곳으로 능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절이 다시 옮긴 것은 현종 대의 일이었다. 현종은 신덕왕후를 복권하면서 정자각을 다시 짓는 등 정릉 정비 작업을 한다. 신흥사는 이때 능에서 매우 가깝다는 이유로 석문石門 밖으로 옮겨 간다. 능역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신흥사의 소식은 다시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소식이 없다고 절이 쇠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40년에 만들어진 수선전도에는 정릉과 함께 신흥사가 표기되어 있다. 쇠락한 사찰이었다면 이렇게 표기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흥천사는 성민性敏, 치감致鑑, 경신敬信 등의 스님에 의해 수즙修楫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흥, 그리고 이름을 되찾다.

신흥사의 구체적인 재건의 기록은 헌종12년(1846)부터 나타난다. 계장사啓壯師가 칠성각을 만들었고, 헌종 15년(1849)에는 성혜사性慧師가 홀로 적조암寂照庵을 만들었다. 철종 4년(1853)에는 계장사가 대웅전을, 같은 왕 6년(1855)에는 순기사舜祺師가 명부전을 만드는 등의 중창이 행하여졌다. 흥천사가 원래의 이름을 되찾고 지금의 모습을



대원군이 직접 써 내려준 현판



극락보전에 있는 영친왕의 낙서

갖춘 것은 고종 2년(1865)의 일이다. 흥선대원군은 각도에서 돈을 걷어 요사寮舍를 증축하고, 낙성을 하면서 직접 흥천사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준다.

대원군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한 때 왕실 사찰이었던 흥천사의 복원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대원군 이후 대한제국 황실은 흥천사와 인연을 이어간다. 극락보전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태자였던 영친왕이 다섯 살 때 쓴 글이 남아있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흥천사에 머물기도 했다.

왕실사찰에서 연회장으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한국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당시까지 한국 불교계에는 생소한, 스님도 결혼할 수 있는 대처승제도의 도입이었다. 전통적인 불교의 스님들은 출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스님들을 비구승이라 했다. 저 유명한 원효대사도 요석공주와 정을 통한 후에 스스로를 더 이상 스님이라 하지 않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서산대사, 사명대사도 모두 비구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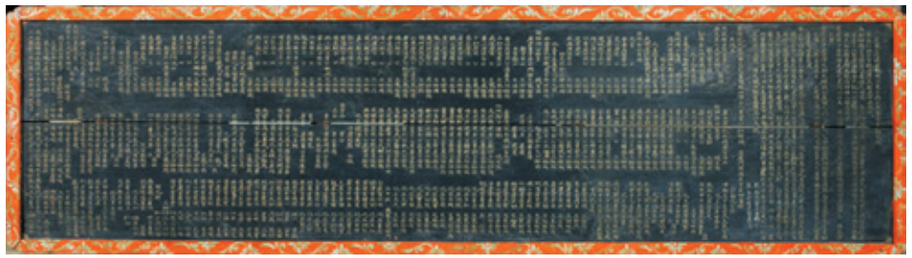
생소한 대처승 제도가 들어오고 일제가 이를 장려하자 대처승의 수가 많아졌고, 이들이 많은 사찰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다. 스님들이 결혼을 하자 가족이 생겼고,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찰 주변에 음식점이 생겼고 나아가 술과 고기를 팔기도 했다.

지금의 흥천사가 있는 지역은 예부터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거기에 도심과도 가까웠으며, 돈암동까지 전차도 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이후 흥천사는 생일 및 환갑잔치의 장소로 널리





(좌)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흥천사 천수관음 유리원판사진
(우) 흥천사 극락보전 천수관음상



〈경기우도양주목지삼각산흥천사요사중창기문현판(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記文懸板)〉



흥천사 감로도(1940년, 면, 147×207.8, 1폭, 연화대)

알려진다. 유명한 시인 이상李箱도 이곳에서 결혼을 했다.

거기에 최근까지 대처승 제도를 인정하는 소속 스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흥천사는 조선 초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 불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흥천사

강북지역 중심 도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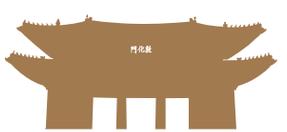
흥천사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천수관음이다. 처음 이 불상은 북한 광법사에 있는 고려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로 광법사가 아닌 흥천사의 불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우도양주목지삼각산흥천사요사중창기문현판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記文懸板>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흥선대원군과 군부인郡夫人 민씨閔氏가 시주한 기록이 남아 있다.

흥천사에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흥미를 끄는 또 하나는 감로도甘露圖이다. 이 감로도는 조선시대 마지막 불화佛畵로 불린다. 하지만 감로도가 흥미를 끄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흥천사 감로도는 일제강

점기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모습, 전당포의 모습, 태평양전쟁의 모습 등 불화가 그려지던 1940년대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유물을 담고 있는 흥천사는 2011년 조계종 사찰이 되었다. 그 전에도 명목상으로 흥천사는 조계종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태고종 스님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처승과 비구승의 갈등이 생겼고, 흥천사는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이다. 2011년 당시 흥천사 경내에는 22가구가 입주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이주하였으며, 강북 지역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건축학개론』과 정릉

김다은(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는 흔히 마음을 집에 비유하고는 한다. 짝사랑은 자신의 마음 속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는 행위이다. 또한 양자 간의 사랑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은 서로의 마음속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집을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살려 남녀노소의 공감대를 형성한 영화『건축학개론』은 정릉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 서연과 승민의 첫사랑을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영화의 OST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전람회의「기억의 습작」이란 곡은 영화 속에 담긴 90년대 초의 사랑 감성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

영화 도입부에서 대학의 건축학 개론을 담당하는 교수는 건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축학의 시작이라는 강의 내용은 바로 사랑의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건축학개론 첫 수업을 함께한 후 두 남녀는 정릉행 버스를 타게 된다. 건축학개론의 시작, 사랑의 시작을 향하여. 승민의 고향인 정릉이라는 배경에 서연이 들어오게 되고, 동시에 승민의 마음속까지 그녀가 차지해버린다.



정릉은 영화 속에서 단순히 장소의 의미 뿐 아니라 역사적인 상징 의미까지 연결 지을 수 있다. 정릉은 다름 아닌 조선 초대 임금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다.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물을 청한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주는 지혜를 보였고, 그 때의 인연으로 둘은 사랑에 빠졌다. '건축학개론' 속 승민과 서연의 나이와 비슷했을 두 남녀가 첫눈에 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순수한 첫사랑의 감정은 결국 세상의 홍진에 더럽혀지기 마련이다. 세상은 언제나 사랑보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민과 서연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는 하나일 수 없게 했던 장애물들은 사실 모든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월한 선배 재욱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서연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승민. 사랑하는 마음을 에둘러 서툴게 말하여 재욱에게 더욱 상처만 주었던 서연. '건축학개론'의 첫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릉에 엮인 사랑 이야기와 비슷하다.

방원에 의해 자신의 능역이 훼손되어야 했던 신덕왕후. 그런 왕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애달프기만 했던 태조. 주변 환경을 눈치 보느라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머물러야했던, 서투른 '건축학개론'이 조선시대 왕실의 사랑에서도 존재한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본질적인 원형은 바뀌지 않는다.

영화의 주된 배경인 정릉이란 공간이 암시해주듯이 영화 속 두 인물의 사랑도 해피엔딩이 아니다. 두 인물의 풋사과 같이 설익은 첫사랑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으며 끝나고 만다. 서연과 승민은 십년간 외롭게 추억 속에 살아야했다. 다시 재회를 하고서도 결국 각자의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둘은 너무 멀어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건축학개론'의 사랑은 채 완성되지 못한 건축물로 각자의 마음 한 편에 방치된다. 잡초가 너무나 우거져 찾기조차 어려웠다는 신덕왕후의 묘처럼 외로이. 오래도록.



영화『건축학개론』(2012)의 장면들

동소문 밖 길손들의 발자취



길손과 주인

조선시대 성저오리城底五里 안에 있었던 정릉동은 행정구역상 한성부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적하고 궁색한 농촌의 풍경을 면치 못했다. 동소문 밖 북한산 아래 사을한리(살한이 또는 사아리로도 불렀다), 손가정, 청수동, 능동, 문바위골 등의 마을들은 널따란 정릉천 양옆으로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이곳에 살던 농민들은 척박한 토양 조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량과 평평한 지형의 이점을 살려 대대손손 땅이 내주는 소산을 먹고 살았다. 비록 적은 인구가 모여 살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마을의 오랜 관습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정릉천 양편으로 조각보처럼 펼쳐진 농토와 북한산의 장대하고 눈부신 봉우리들은 사시사철 이곳 농민들의 일터이자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렇지만 땅은 공평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풍광을 사랑해서 들른 나그네에게도 자신의 품을 기꺼이 열어주었다. 멀리서도 시야에 가득히 들어오는 북한산의 푸른 능선과 하얀 암봉들, 골짜기의 밝고 환한 바위며 옛 소나무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은 누구에게나 신선한 기운과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점에서 정릉동은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나 가벼운 차림으로 놀러 온 사람에게 공히 '재생'의 장소였다.

이처럼 도읍과 가까운 교외 농촌 지역이라는 정릉동의 공간적 성격은 이중적이었다. 정릉 골짜기의 척박한 농토에 기대어 일생을 살아가는 주민, 다시 말해 그 땅의 한시적 '주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릉동을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 즉 '길손'들이 있었다. 유람객, 나그네, 별장소유자, 임시거주자 등이 그들이다. '길손'과 '주인'. 언뜻 생각하기에 꽤 평화로워 보이는 구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양자 간에는 긴장,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길손'이 그저 표표히 스쳐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돈과 지위와 권력을 업고 들어오는 점령군처럼 행동할 때 더욱 그러했다. 그럴 때 정릉동의 아름다운 경치는 대번에 살풍경으로 변했고 땅의 질서는 흔들리고 무너졌다. 따라서 이들 '주인'과 '길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동소문 밖 정릉동의 역사를 서술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한 구역 천석泉石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조선 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예나 지금이나 정릉동은 북한산으로 가는 주요 길목 중 하나이지만 조선시대 성외의 농촌지대였던 이곳은 그 풍광 자체만으로도 썩 좋은 유람처였다. 특히 한나절만 걸으면 수려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리적 이점으로 인해 서울의 사대부들은 조금 한가해진 틈을 얻으면 단출한 행장을 꾸려 동소문 밖을 나섰다.

이들 유람객들의 행장 속에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 뿐 아니라 반드시 붓, 먹, 벼루, 종이 등 글을 쓰기 위한 도구들도 들어 있어서 시를 지을 때나 채록해둘 만한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이를 꺼내 사용했다.[1] 오늘날 관광객들이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역할을 이들 문방사우가 담당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동소문 밖 유람객들이 남긴 한시나 여행기와 같은 한문학 작품은 오늘 우리가 이들의 행로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소문을 나와 북한산으로 향했을 테지만 그 행로는 대개 엇비슷했다. 동소문 밖을 나온 유람객들은 곧바로 성북동의 맑은 시내와 빛나는 모래를 만났다. 이어서 언덕길을 올라 한나절 쯤 걷다보면 신흥사(현 흥천사), 약사사(현 봉국사) 등 북악산 자락의 고찰들을 만났다. 이들 사찰에서 한숨 돌린 유람객들은 북한산 아래 정릉 계곡 안 손가정 마을을 찾아 수석을 한참 구경하고는 마지막으로 청암사靑巖寺(현 경국사)에 들러 노곤한 다리를 쉬고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북한산 등반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여정이 조선 후기의 문인 담정薄庭 김려金鑢(1766~1822)의 한시 「만춘유람절구晩春遊覽絕句」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1819년, 그의 나이 54세 때 지은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성 안 삼청동 집에서 조용히 옛 생각에 잠겨있던 김려에게 젊은 두 겸인 복경福慶과 순흠舜欽이 와서 교외로 놀러갈 것을 청했다. 이를 흔쾌히 승낙한 김려는 곧바로 간소한 행장을 차린 다음 나귀를 타고 도성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성균관 앞 반촌泮村과 우암 송시열의 옛집이 있는 송동宋洞을 지나 혜화문을 빠져나온 김려는 북저동北渚洞(지금의 성북동)에 이르러 천변에 만개한 흐드러진 복사꽃을 구경한다. 여기서 다시 정릉 입구의 신흥사로 향하는데 이 때 북저동에서 신흥사까지 나지막한 산등성이로 이어진 길은 모두 복사꽃 천지다. 이를 두고 김려는 동문 밖은 온 종일 퍼지는 꽃냄새가 바다와 같고 십리 중에 붉은 가랑비가 내리는 것 같다며 감탄해 마지않는다. 다음은 총 12수로 이루어진 「만춘유람절구」중 네 수를 뽑아 옮긴 것이다.

이 한봄 좋은 꽃철에 문 닫고 지내려니　　一春花事閉門過
떠서 사는 이 인생 업장 많아 부끄럽네.　　慙愧浮生業障多
이웃집 젊은이들 권유에 못 이기어　　強被南隣少年輩
밀치고 당겨서 산언덕에 올랐노라.　　並來牽挽涉山坡
— 복경과 순흠 두 겸인이 찾아와서 봄놀이를 가자고 청하기에 나귀를 타고 잠깐 나갔다(福慶舜欽二傔。來請游春。遂跨驢暫出。).

진달래꽃 져버리고 살구꽃도 스러졌네　　鵑花淨盡杏花消
못 믿을손 봄바람이 너무도 덧없어라.　　無懶東風太寂寥
다행히도 북저동에 천만 그루 울긋불긋　　北渚緋紅千萬樹
철 늦게 피어 있어 봄 경치 단정했어라.　　晩春猶保淡粧嬌
— 북저동의 복숭아꽃도 이미 철이 늦었다(北渚洞桃花已晩。).

어젯밤 모진 바람 한바탕 휩쓸더니　　昨夜封姨一陣風,
봄 동산 온갖 꽃이 가뭇없이 사라졌네.　　芳園春色片時空
북저동 골짜기에 꽃향기 그윽하더니　　靑門盡日香如海
동소문 밖 십리 길에 붉은 꽃잎 깔렸구나　　紅雨濛濛十里中
— 북저동에서 동소문에 이르기까지, 동소문에서 신흥사 동구까지 온통 복사꽃이었다(自北渚洞。至東小門。自門至新興寺洞口。摠是桃花。).

시냇가에 솟아 있는 귀록정 좋은 쉼터　　歸鹿亭荒澗水濱
호기 있던 정자 임자 구름처럼 가 버렸나.　　相公豪貴似浮雲
비단 빨던 빨랫돌 지금은 주인 없어　　浣紗古石無人管
촌 할머니 베치마 그 위에 말리누나.　　只敎村婆曬布裙
— 정자는 옛날 손씨 집안 별장이었는데 뒤에 정승 조현명이 소유했다가 지금은 감사 김계온이 소유하게 되었으나 온통 황폐해졌다(亭。今賣爲金監司啓溫家物而盡荒癈。故孫家莊。後爲趙相國顯命郊莊).[2]

신흥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김려 일행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릉천 우안에 자리한 유서 깊은 마을 손가정孫哥亭으로 간다. 손가정은 조선시대 밀양 손씨 의창군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성촌으로 정릉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마을 옆을 흐르는 정릉천은 북한산 계곡물이 흘러 내리는 개천으로 그 풍광이 운치 있어 정릉천 옆의 정자에는 도성 안 사대부들이 자주 찾아와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김려가 찾아왔을 때 정자는 퇴락한지 오래였고 그 앞 시냇가 바위에는 한 노파가 빨래를 널어 말릴 뿐이었다.

날이 저물자 김려 일행은 청암사로 향했다. 청암사에 들른 김려는 감회가 새로웠다. 18세 되던 해에 김려는 지우들과 함께 이곳에 책을 싸들고 와서 독서와 토론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젊은 시절 꿈꾸던 그 모습이 아님을 느끼고 엷게 웃을 뿐이었다. 이후 김려 일행은 청암사의 경판각과 철조문수보살상을 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아마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떠났으리라.

김려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그는 32세 때부터 41세 때까지 꼬박 유배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인 47세에야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다. 김려가 동소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선 때는 54

세 때이다. 그해 봄 김려는 연산현감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삼청동 자택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려가 동소문을 나와 북저동과 신흥사를 거쳐 손가장과 청암사까지 나귀를 타고 북한산의 연봉들을 바라보며 느리게 옛 생각을 더듬듯이 갔던 행로는 그의 삶의 굴곡마저 보여주는 듯하다.

김려의 한시에 잘 보이듯이 혜화문을 나와 흥천사, 봉국사, 손가정, 경국사를 경유해 북한산으로 가는 길은 성 안 사대부들이 즐겨 찾는 유람길이었다. 이 중에서도 경국사 남쪽 손가정 마을은 바로 옆 계곡의 물과 바위가 '밝고 환하다'[3]는 평이 있을 정도로 풍광이 수려해 많은 사대부들이 여기에 머물러 시를 읊었다. 그 중에서도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1629~1711)이 그의 동갑내기 친구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1629~1703)과 함께 놀러와 지은 시가 가장 유명했다.

서계와 함께 손가장에 놀며 돌 위에 쓰다(與西溪游孫家莊 題石上)

손씨 집안의 부자 영웅으로 알려지니	孫家父子號英雄
천하를 삼분하여 할거해서 패업이 융성하였네	割據三分霸業隆
지금 서인이 됨 어찌 한탄할 것이 있는가	爲庶於今何足恨
한 구역 천석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一區泉石勝江東[4]

손가정 마을이 손씨 동성촌이란 점에 착안하여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견, 손권 부자의 이야기를 끌어와 지은 기발한 시인데, 지금 이 자그마한 구역에서 산수와 함께 하는 즐거움이 저들 손씨 부자의 영화보다 낫다는 내용이다. 현종·숙종대의 대학자이자 소론의 영수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구만의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는 계곡의 커다란 바위 위에 새긴 것인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손가정을 찾은 윤기尹愭(1741~1826)는 바위에 새겨진 남구만의 시구에 차운하여 지은 자신의 시를 남구만의 시 아래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5]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이 시들을 각자한 바위는 정릉천 정비 당시에 땅에 묻혔다고 전한다.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1762~1849)만큼 손가정에서 많은 시를 지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추재집』에는 '손가장'이라는 제목을 단 시가 총 세 편이 있는데 그 중 한 편은 어느 가을날 손가정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녁부터 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의 전원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약천 남구만(70세)의 영정.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의 지은이로 잘 알려진 남구만은 숙종대 소론을 이끌며 송시열이 주도하는 노론과 대립 관계에 있었다. 『색경(穡經)』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학자 박세당은 그의 매부이자 정치적, 학문적 동지였다.



정릉천에 새로 생긴 산책로. 서울의 다른 하천과 달리 하상의 바위가 인상적이다.

손가장(孫家庄)

시골집 가을 해는 저무는데	田家秋日下
기와집의 창은 산으로 열려 있네.	甕牖向山開
벌레 소리 성근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고	虫語踈籬蔓
소는 길섶의 이끼를 밟고 오네.	牛蹄小逕苔
책을 끼고 멀리 나간 나무꾼은	帶書樵去遠
대추 따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네.	與棗婦還來
본래 성정이 고운 것을 바라지 않으니	適性無相艷
질그릇 술단지가 옥잔보다 낫구나.	瓦樽勝玉杯
밭두둑 길은 모두 산 위로 통하고	畦畛通山上
마을 언덕 밑 개울물은 조용히 남쪽으로 흘러가네.	村壖隱水南
어떤 사람이 가을 나무 씨를 뿌리고	何人種秋樹
그윽한 곳에서는 오두막 지붕의 띠를 얽고 있네.	幽處縛茅庵
거둔 밤을 두 섬 가마니에 채우는 사람	收栗充儋石
따뜻한 샘물(온천)이 두 세 군데 솟는다 하므로	烹泉品二三
동쪽 골짜기 새로이 기록해둘 만한 것이라	東柯有新記
나중에 다시 올 때 농부들에게 물어보려네.	歸日次農談
돌 사이로 흐르는 물은 가을밤을 울리고	石瀨通秋夜
선방의 창은 단정히 뒤로 열려 있네.	禪窓定後開
시원한 구름은 강당 밖 나무에 걸쳐 있고,	凉雲依講樹
새벽 달빛 뜰 안 이끼에 내려앉네.	曉月下庭苔
꿈이 끊어지는 듯싶더니 종어소리 울려와	夢斷鍾魚動
시(詩)가 탑을 이룬 곳에 기러기 내려와 앉네.	詩成塔雁來
좌정하여 빛이 생겨나는 곳을 보노라니	坐看生光處
단풍나무 향기는 부처님께 올리는 찻잔을 가르네.	楓香剖佛杯

이날 조수삼은 김려가 그랬듯이 손가정 부근의 절, 아마 경국사나 봉국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저녁 나절 손가정의 농부, 나무꾼, 아낙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 가을 밤 적막한 산사의 정취, 이튿날 새벽 동트는 장관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경국사 담장 옆을
흐르는 정릉천

그 밖에 홍수주洪受疇(1642~1704), 오도일吳道一(1645~1703), 최석항崔錫恒(1654~1724), 조유수趙裕壽(1663~1741), 오원吳瑗(1700~1740), 이윤영李胤永(1714~1759), 이명환李明煥(1718~1764), 김종수金鍾秀(1728~1799), 박준원朴準源(1739~1807), 박윤묵朴允默(1771~1849), 김진수金進洙(1797~1865), 김택영金澤榮(1850~1927)과 같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손가정에 들러 품격 있는 한시들을 남겼다.[6]

19세기에 들어서도 동소문 밖 유람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경상도 성주 출신 선비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1847~1916)도 과거 응시차 서울에 들렀다가 며칠 틈을 내어 동소문 밖으로 나와 북한산 유람을 떠났을 정도였다.

1876년(고종13) 음력 2월, 당시 30세였던 이승희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불합격. 이승희는 별시에 응시하기 위해 며칠을 더 도성 안에 머물러야 했다. 이 기간에 이승희는 김희진金希鎭, 윤익규尹翼逵, 송제익宋濟翼 등 지우들과 재종형 달희達熙, 족형 영훈英勳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첫째 날인 음력 2월 22일, 이승희 일행은 혜화문을 나와 정릉고개, 봉국사, 손가정, 청수동을 거쳐 경국사에 도착, 하룻밤을 묵었다. 둘째 날에는 곧바로 산에 올라 북한산성을 비롯해 백운대, 인수봉 등 주요 암봉들과 골짜기 사이사이의 절이며 암자들을 장장 나흘에 걸쳐 돌아보고는 26일 평창동 방면으로 하산해 세검정과 창의문을 지나 도성으로 돌아왔다. 이승희가 이때 둘러본 북한산 일대의 실정들과 그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북한일기北漢日記」는 19세기 후반 한양도성 밖의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그 중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록이다.



이승희. 경상도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조선 말기의 대유학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리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이승희는 20세 전후부터 위정척사운동에 앞장섰고, 1908년부터는 국외로 망명하여 블라디보스톡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2월 22일, 혜화문을 나오니 군인들이 기마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산을 돌아 북쪽으로 돌려 정릉에 올라 작은 언덕을 넘어 봉국사에 들어갔다. 경내가 맑고 그윽해 사랑할 만했다. 비가 와서 잠시 쉬었다가 작은 개천을 넘으니 동네 하나가 나타났다. 물색이 영락없이 시골이다. 마을 이름이 송가정松可亭(아마 손가정을 잘못 들은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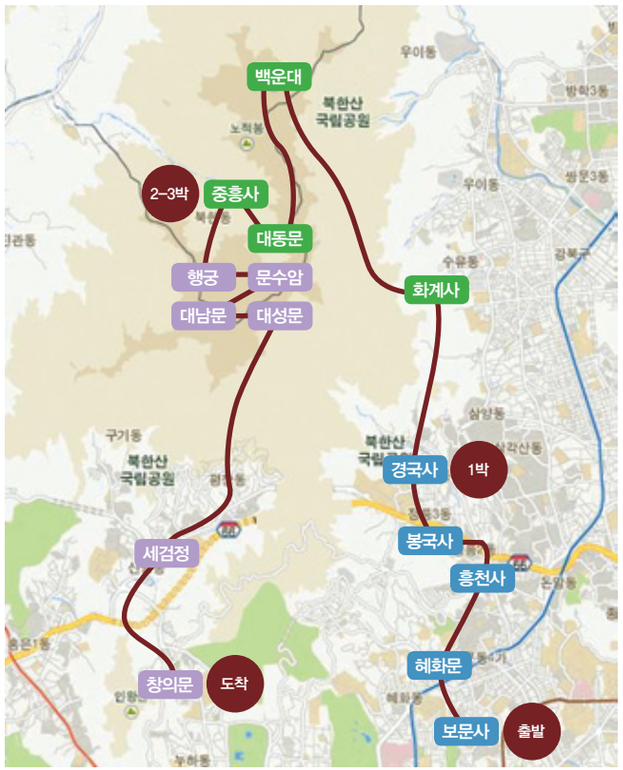
다-역자주)이라고 한다. 얼마를 더 들어가니 골이 하나 나왔는데 '청암靑巖'이라고 하고 그 안의 절은 '경국사'라 하였다. 절은 자못 그윽하여 운치가 있었으나 승려들은 매우 고루했다.

밤에 청수동 정자에 내려갔는데 척신戚臣 김병기金炳冀의 별서라 하였다. 산은 험준하지 않으나 수려했고, 물은 깊지 않으나 깨끗했다. 누대가 겹겹이 포개져 보이고 기이한 화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일찍이 서울 근교에서 제일가는 이름난 정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한다. 집안이 망해 수선할 수도 없어 정원의 나무들은 잘려나가고 누각들은 헐렸으며 담은 기울어지고 섬돌은 무너져내렸다. 옛 석숭石崇이 금곡 재택에 화려하게 지은 별장이 시간이 지나 황폐해졌다는 고사를 접하는 느낌이 들었다.[7]

23일, 동구에서부터 푸른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돌은 더욱 희어지고 물살은 더욱 빨라졌다. 사람 사는 흔적도 없었다. 다만 멀리 돌문 하나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돌문은 구름 끝자락에 걸려 있어 마치 구천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므로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가기는 힘들었다. 바로 북한산성의 소동문小東門(지금의 북한산성 대동문)이었다. 문을 따라 들어가니 홀연히 세 봉우리가 하늘에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우뚝하기가 뿔과 같고, 의젓하기가 신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 일으켰다. 곧 백운, 만장, 노적으로 이루어진 삼각三角이었다.

북풍이 불어 몸이 오그라들고 눈발이 뼈를 에니, 내려와 보국사輔國寺로 들어갔다. 머리를 깎은 사람이 둘 있었는데 모두 성문의 방비를 맡은 자들이었다. 그 행색이 가난하고 초라해 무거운 성문을 닫아 걸 힘도 없어 보였다. 우리 일행은 주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일어나 유람할 뜻도 없어서 서둘러 태고사太古寺로 들어갔다. 절 뒷켠에는 목은 이색이 지은 원증선사비圓證禪師碑가 있었다. 원증의 속성은 홍洪이고 법명은 태고太古이다. 일찍이 이 절에 머물렀으니 고려 왕이 선사를 예우해 왕사에 봉하고 극진히 섬겼다. 입적 후 원증이란 시호를 내리고 이색에게 명하여 명문을 짓게 했다. 이색은 문장과 절의로써 당대 제일이었으나 일개 승려를 위하여 지극히 성대하게 찬양하는 내용의 비명을 지었으니 이런 속습이 쉽게 없어지지 않음이 이와 같다. 절 이름은 원증의 이름에서 유래했다.[8]

1898년(광무2) 11월, 대한제국의 관료 신기선申箕善(1851~1909)의 북한산 유람은 3박4일이 걸렸다. 낙산 동망봉 아래 보문암普門庵(지금의 보문사)에서 출발한 신기선과 그 일행은 흥천사와 봉국사를 거쳐 경국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북한산 입구의 화계사華溪寺로 출발했다. 북한산이 최종 목적지였던 신기선 일행은 북한산성 내 중흥사에서 2박을 하면서 백운대, 인수봉, 노적봉, 문수봉 등 북한산의 거대 암봉들과 산성 안의 행궁과 성문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평창동과 세검정을 지나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창의문을 거쳐 도성에 들어왔다. 마지막 하산하는 날은 온 산에 눈이 내려 산 아래 지척에 있는 한양 도성이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 아득히 보였다고 신기선은 기록했다. 신기선 일행이 거쳐 간 곳을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기선 일행의 북한산 유람 경로

김려, 조수삼, 이승희, 신기선의 행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옛날 조선 사대부들의 북한산 유람은 최소 이틀 이상 걸렸다. 혜화문을 빠져 나와 흥천사, 정릉고개, 봉국사를 지나 경국사까지가 하룻거리여서 유람객들은 산에 오르기 전 청수동 경국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경국사는 일종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었다. 유람 이틀째에 비로소 산에 올라 북한산성과 주요 암봉들을 둘러보는 것인데 산성 안의 태고사와 중흥사에서는 유람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마지막 하산하는 날에는 세검정에 들렀다가 창의문을 지나 도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북한산 유람은 끝이 났다. 짧으면 2일, 길면 5일이나 걸리는 행로였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명승지라 해도 자동차로 하루나 이틀이면 남김없이 '관광'하고 올 수 있다. 북한산쯤이야 차로 입구까지 가서 한나절이면 정상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거리이다. 실로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는 말이 제격이다. 반면에 옛 사람들의 유람이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산수자연을 경험하고 혹은 그 느낌을 시나 글로 옮겨서 내면에 간직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자연에 내맡기는 과정이었다. 때로 유람객들은 김려나 이승희의 경우와 같이 거쳐가는 장소들에 남겨진 이야기들, 이를테면 북한산의 경우에는 마을, 정자, 산성, 절, 암자 등 인공물과 계곡, 봉우리와 같은 자연물에 담긴 설화나 역사를 채록해 두기도 하였다. 유람객들에게 근교의 낯선 공간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텍스트였거니와 사물들이 내뿜는 빛깔, 소리, 냄새는 인간의 문자人文로 번역되었다.

그 옛날 조선의 사대부들이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탄했던 정릉동의 경관은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 많다. 비록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옛 모습을 가늠키 어려운 장소도 많지만 그래도 예전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소들도 몇 군데 있어 다행이다. 이를테면 동소문 밖의 절들, 흥천사·봉국사·경국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손가정 마을도 그 자리에 남아 동성촌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존재가 고마운 것은 정릉천이다. 정릉3 · 4동은 북한산의 맑은 물을 받아 길음동과 종암동, 제기동을

거쳐 청계천을 만나 중랑천과 한강으로 흘러가는 정릉천의 최상류를 품고 있다. 비록 도시화를 거치면서 높은 축대가 세워지고 주변의 주택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방류하는 하천으로도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수질개선 사업의 결과, 이제는 물고기도 살고 경국사 위쪽에서는 여름철 멱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천변 산책길 공사도 끝나 언제라도 정릉천 바위의 빛깔과 물소리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도 있다. 이곳을 걷다가 잠시 옛 선비들이 이곳에 와서 남겼던 시와 글을 꺼내어 읽는다면 얕은 정릉천의 물소리가 한결 깊고 그윽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실력 양성'의 공간-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사찰들

성 안 사대부의 유람처 또는 별서지로서의 정릉동의 공간적 성격은 우리나라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성 밖으로 나들이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향유계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산 유람길에 한 숨 쉬어 가는 장소였던 흥천사는 집회나 연회의 장소로 대여되었고, 경국사는 고관대작들이 기생, 창부倡夫들을 대동하고 와서 한 판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쓰였다. 그 옛날 사대부들이 삼삼오오 와서 산수에 파묻혀 술과 시를 주고받던 그윽한 정취를 갑오년 이후 생산된 문헌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조선 말기 한국 사찰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근교의 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불교철학자 이기영李箕永(1922~1996)은 그 시절 불교계의 전반적인 퇴락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승려들은 왕조의 귀신貴紳이 사찰을 방문하면 멀리 나가 그들의 가마를 메야 했고, 산에서 나는 산채와 그 좋은 장과 두부로 성찬을 차려

대접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빨랫돌, 다듬잇돌을 제공해야 했고, 산사는 그들의 유흥장으로 제공되어야만 했다. 지난날 갸륵한 호국존왕護國尊王의 의리에서 스스로 궐기했던 의병의 전통은 지금 한낱 인습화하여 승려의 굴욕적인 의무로 전락했었다.[9]

흔히 '청암사'로 부르던 경국사는 정릉동 안쪽에 자리한 유서 깊은 고찰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산의 맑은 바람과 정릉계곡의 물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장소였다. 더구나 도성과는 앞쪽의 북악산 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도성과 반나절 거리에 있는 흥천사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경국사에는 장안의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며칠이고 머물면서 유흥이나 피서를 즐기곤 하였다.

대한제국기 신문 기사들 가운데 경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09년 8월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1858~1926)이 피서차 약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사이다. 당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1849~1910)가 이완용을 박대하자 이완용은 잠시 정릉동 경국사로 물러나 대신 몇 명을 불러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비밀협의를 했다. 그 후 8월 16일 일주일간의 피서를 마치고 입성한 이완용은 그 즉시로 통감부를 찾아갔다. 경국사에서 구상한 복안을 가지고 소네 통감과 모종의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소네 통감 부임 이후 불안해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완용은 다시 통감부 문전에서 보기 좋게 박대당하고 하릴없이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전한다. 일국의 총리라는 자가 보여준 한심한 작태였다. 1909년 8월 19일자 황성신문은 이완용의 이러한 처신을 「영영설설營營屑屑」이라는 제하에 전했는데 이는 쉬파리처럼 윙윙거리며 구질구질하게 군다는 뜻이다.

청암사에 체재하던 총리대신 이완용씨가 그저께 입성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다시 들은즉 입성하던 날에 즉시 통감부에 갔으나 소네曾彌 통감이 접견치 아니함으로 무료히 물러났다더라.

—『황성신문』 1909. 8. 19, 「영영설설營營屑屑」



이완용. 1907년 6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을 지냈다.

이완용 말고도 경국사에 들렀다는 기사가 전하는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로는 학부대신을 지낸 이지용李址鎔(1870~1928), 궁내부대신 민병석閔丙奭(1858~1940),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1873~1940)이 있었고 황족 중에는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1877~1955),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1870~1917)이 가끔 경국사에 묵으면서 기악妓樂을 즐겼다고 한다.

절 안 음주가무의 판이 커지면 간혹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1909년 7월 29일 서울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는 경국사에서 탁족회濯足會를 열었다. 피서를 겸한 일종의 친목행사였다. 한적했던 골짜기에 기생들을 태운 인력거들이 폭주했고, 탁족하는 기생들을 보려는 구경꾼

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들었다. 폭행 사건은 기부妓夫 한덕호와 인력거꾼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경국사 온 경내를 뒤흔든 큰 소동이 되었다. 황성신문이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 기생조합소에서 그저께 동문 밖 청암사로 나가서 탁족회를 설設함은 전보前報에 이미 썼거니와 당일에 일장풍파一場風波가 일어났다는데 그 내용인즉 기생 연옥燕玉을 태운 인력거꾼이 말실수가 있어서 기부妓夫 한덕호韓德鎬가 인력거꾼을 난타하여 중상을 입히므로 함께 온 경시청 형사, 순사 등이 이 사건을 듣고 한씨를 포착捕捉하려다가 한씨가 도망해 숨어버려 잡지 못하고 이 조합소장을 포착한즉 이 소장의 기생 유록柳綠이가 발악욕설發惡辱說하다가 이 절에 피서차로 머물러 있는 모某 존전尊前에 급한 상황을 알려 순사 등을 불러 엄책하니 순사 등이 황송하여 물러났는데 당일 탁족회는 남원신사도南原新使道의 생신연生辰宴이 되었다더라.
>
> —『황성신문』 1909. 7. 31, 「탁족회 파흥」.

기부 한덕호의 인력거꾼에 대한 폭행으로 시작된 이 날 사건은 경시청 순사들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큰 소동으로 번졌고 결국 경국사에 머물고 있던 '모 존전'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단 종료되었다. 도성 사람들의 연회장으로 쓰이면서 산사의 고적한 운치를 잃어버린 당시 경국사의 기이한 현실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그러나 소란한 여름이 지나고 온 계곡에 낙엽이 수북이 깔리는 가을이 되면 인적 뜸해진 경국사는 선방 본연의 고적한 분위기를 되찾



『매일신보』(1917. 4. 13)에 실린 다동기생조합의 봄운동회 사진. 1909년 7월 경국사에 열린 기생조합의 피서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지 않았을까?>

곤 하였다. 그러면 도성 안 인사들은 다시 경국사를 찾아 격조 있는 시회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1909년 10월 어느 날 경국사에서 열린 모임에는 박은식朴殷植(1859~1925), 최린崔麟(1878~1958), 이은우李恩雨, 한상우韓相愚 등 서북학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기록을 남겼다.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1909년 11월호에 실린 기문記文과 박은식 등이 지은 한시 5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쌍성일민雙城逸民'이라는 필명의 인사가 쓴 「청암사기靑巖寺記」는 이들이 경국사를 유람한 경위와 이튿날 경내를 둘러 본 소회를 적은 글이다. 다음은 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 삼각산의 한 지맥이 높이 치솟아 웅장한데 곧바로 동남쪽으로 치달리면 처음에는 굽이쳐서 둘러 감싸다가 마지막엔 평온하게 놓인다. 이 지맥의 끝부분이 왼편으로 갈라져서 굽이굽이 맑은 계곡을 이루

고 오른편으로 열지어서 점점이 푸른 산록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에 청암사가 있다. 절의 결구는 매우 왜소하여 그 유적하고 청한함이 도선道禪과 일인逸人이 거하는 곳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속된 생각에 젖어 빨리 돌아와 이 절을 한 번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는데, 금년 가을 서울 장안을 객으로 노니다가 갑자기 성 안에 돌림병이 유행하여 잠깐 성 밖으로 나가 머물러 숙박하기로 계획했다. 다만 가면서 웃고 떠들 동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 날이 며칠 되었다.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벗 최린崔麟이 나와 함께 유람하러 가자는 뜻으로 보낸 것이어서 마침내 벌떡 일어나 크게 한숨을 쉬면서 "질병은 진실로 환난 중에서도 가장 삼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는 전염됨이 성화와 같으니 비록 가족이나 부자 같이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서로 피하여 보지 않은 것이 예사이다. 지금 최군은 쓸쓸한 나그네 신세로 덩굴과 바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일신의 안위는 스스로 보전할 겨를도 없이 동동거릴 뿐이지만 끝내 나를 생각해주고 멀리하여 버리지 않았다! 내 비록 완고하기가 돌 같지만 어찌 그 정을 느껴 알지 못하겠는가!"고 말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겸곡노사謙谷老師 박은식 씨에게 가서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행장을 꾸렸다. 성 동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푸른 산골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게 열지어선 것을 보고 계속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천천히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산의 중허리쯤 되는 곳에 당도하니 한 방에서 문을 열고 우리를 맞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바로 최崔군과 이은우, 한상우



정릉천에 버려진 우산

군이 막 술상을 차리고 자리를 쓸어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밤을 타서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스님 몇 분을 초대하여 함께 시 한 수 씩 지을 것을 의논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문장을 하지 못한다고 사양했으나 그 중에 박朴 처사라는 분이 계셔서 시짓기에 능한 고로 함께 상영지정觴詠之情을 풀어내었다.

다음날 이 절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여러 승도僧徒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니 맨 처음 창립 사적事蹟에 관해서는 애초에 입조차 열 수 없었다. 오호라! 승도 제군들이여! 무릇 작은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절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의 땅으로 자처하는 곳이고 제군 역시 석가여래의 문도로서 특히나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먼저 세상을 구하겠다는 주의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던가. 만약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

시 세상의 흥망역사를 살핀 연후에야 참되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군들은 자기가 어떠한 연혁과 역사를 가졌는지도 살피지 않았으니 그 깨달음의 헛됨이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제군들이 불서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으나, 제군들의 배우지 않음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백운유수 속에서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 제군들이여 이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인가? 도는 도이나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련다. 홍진이 자욱한 거리로부터 발을 끊는 것, 제군들이여 이것이 낙이라 할 수 있는가? 낙은 낙이나 내가 부러워하기에는 부족하다. 단 제군들에게 구구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진실로 석가의 도를 배우고 석가의 행실을 실천하려거든 외교 사절로 바다를 건너가 임진왜란으로 잡혀간 조선 포로들을 데리고 온 송운대사松雲大師(사명당 유정)의 씩씩한 기상을 배우고, 난리를 만나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싸운 영규靈圭(임진왜란시 승병장) 어른의 큰 용기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면 제군들의 가치는 비단 불문佛門에서 빛날 뿐 아니라 국가만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며 장차 극락세계에 가서 최후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니 제군들은 모두 이를 유념할진저.

이미 붓을 들었으니 부득불 간략하게 들은 것이나마 기록해 두어야겠다. 이 절에서 북쪽으로 5리 쯤 올라가면 옛날 백파선사百波禪師가 강도講道한 암자가 있었는데 암자가 닫힌 뒤 이 절을 지었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지난 철종 때 경국사라는 절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하며 그 후 대원군 왕전하께서 여러 번 이곳에 오셔서 불전에 참배했다고 할 뿐이다. 이에 기문을 짓는다.[10]



백암 박은식과 『서북학회월보』. 서북학회는 1908년 1월 서우학회(西友學會)와 한북흥학회(韓北興學會)를 통합하여 서북지방에서 조직했던 계몽운동단체로 1908년 6월부터 1910년 1월까지 『서북학회월보』를 발간했다. 주요인물로는 박은식 외에도 이동휘·안창호·최린·이갑·유동열 등이 참가했다. 회원은 약 2,5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신지식층·신흥시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시민층이었다. 1909년 이후 서북학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지도층들은 만주 등의 국외로 근거지를 옮겨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10년 9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경국사 전경. 1325년(고려 충숙왕 12) 율사 정자(淨慈)가 창건하여 청암사(靑巖寺)라 하였고 1546년(명종 1) 왕실의 시주로 건물을 전면 중수하고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그 때 부처님의 가호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경국사라 개칭하였다. 1921년 단청과 탱화의 대가인 보경(寶鏡)이 주지에 취임한 뒤, 1979년까지 퇴락된 건물을 중수하여 한국불교의 모범 사찰로 변모시켰다. 창건 이래 한국 계율의 맥을 이어 온 도량이며, 정토사상에 바탕을 둔 기도도량으로서도 대표적인 사찰이다.

최린, 박은식 등 서북학회 동지들과 경국사로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재미있지만, 자신이 속한 절의 역사에조차 몽매한 경국사 스님들을 준열히 꾸짖는 대목에서는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 특유의 '진보적' 사고방식을 이 조그만 산사에 와서도 가차 없이 실천으로 옮기는 광경도 흥미롭다. 또한 시회의 첫째 날 밤 박은식이 경국사 선방에서 읊은 시는 당시 구국과 계몽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들 서북학회 회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가을밤 청암사에 모여 읊다(秋夜會吟靑巖寺)

한 암자 고요하고 적막한데 만 그루 소나무 푸르고	一菴靜寂萬松靑
바람은 성긴 격자창에 가득 차고	風滿疏欞月滿庭
달빛이 온 뜰을 채우네.	
옥 같은 이슬 단풍나무 숲에 내려 쌀쌀한데	玉露楓林何瑟瑟
백련보탑은 스스로 우뚝하네.	白蓮寶塔自亭亭
고통의 바다 끝없음을 이제 알아	方知苦海無窮盡
홀로 현묘한 이치에 의지해 묘한 깨달음을 얻었네.	獨賴玄機有玅醒
곧바로 불전을 향하여 공양하고 발원하는 말,	直向佛前供發願
지금 어찌해야 생령을 구제하리이까?	于今何以濟生靈[11]

경국사 법당에 모신 불상을 향한 절박한 질문으로 끝을 맺는 이 시에서 망국의 위기에 직면했으면서도 민중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전망도 제시할 수 없었던 지사志士의 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시에 보이는 경국사의 푸른 솔숲과 '옥 같은 이슬이 내린' 단풍나무 숲은 아직도 울창해서, 바람 부는 날이면 도시의 소음과 격절된 숲은 '솨솨' 소리를 낸다. 박은식과 서북학회 회원들이 활동했던 1909년으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우리가 가을밤 경국사 뜰에 선다면 불상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도성으로부터 그나마 멀리 떨어진 경국사는 여름 한 철을 제외하고는 제법 산사다운 운치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성을 나와 반나절이면 당도하는 흥천사는 사시사철 사람들로 붐볐다. 철종·고종 연간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대대적인 중창을 실시한 흥천사는 소속 승려도 많았을 뿐 아니라 터도 널찍했다. 봄, 가을이면 도성 안 각 학교와 단체의 운동회가 열렸고, 절 앞에는 방문객들에게 술과 음식을 파는 곳이 즐비했다.

이런 흥천사는 왕족을 비롯한 도성 안 인사들에게 회합과 연회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큰 연회가 있을 때면 흥천사 앞마당에는 인력거꾼들이 분주히 오고갔고 방마다 기생, 창부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 단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옛날 정릉동 넘어가는 고갯길 중턱에 웅기중기 들어섰을 흥천사의 새 전각들과 거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는 행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흥천사와 경국사만 붐비는 것은 아니어서 동소문과 동대문 밖의 크고 작은 사찰들은 대개 이와 같이 서울 사람들의 교외 유흥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사찰들에는 건강한 활기가 감돌았다. 바로 근대 운동회가 이 절들의 널찍한 마당을 빌려 봄 ·

▲ 개회식 (오전 10시)
- 개회선언 : J. S. Gale(奇一, 회장)
- 찬 미 가 : 연동중학교 생도
- 연　　설 : 김정식(金貞植, 부총무)
- 답　　사 : 최병헌(崔炳憲, 정동교회 담임목사)
- 내빈연설 : H. B. Hulbert(訖法, 감리교 선교사)

▲ 다과회 (오후 1시)

▲ 유희운동 (오후 3시)

▲ 폐막식 (오후 5시)
- 애국가 제창
-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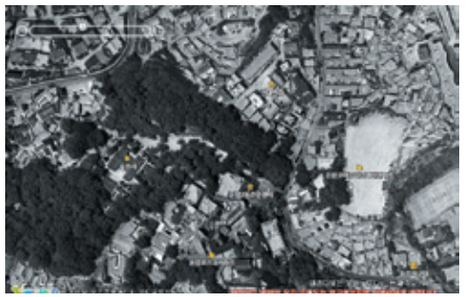
흥천사에서 열린 황성기독청년회 운동회 식순 (1905.5.22)

가을로 개최되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소문에서 가장 가까운 흥천사가 운동회 장소로 유명했다.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敎靑年會(YMCA)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매년 5월에 흥천사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당시의 운동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운동회 날이면 운동경기를 겸해 시국연설, 다과회, 애국가 부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1905년 5월 22일에 열린 기독청년회 운동회의 식순을 보면 운동경기 시간이 단 두 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꽤 흥미로운 점이다. 대신에 대중연설이 답사를 포함해 세 번이나 있었던 사실은 당시 운동회의 계몽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날 연설회는 이튿날까지도 이어졌다. 1908년 5월 4일에 열린 운동회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 윤치호尹致昊(1864~1945), 교육부장 이상재李商在(1850~1927)가 참가하여 젊은이들에게 강연했다.



인사동 임시회관 앞에서 찍은 황성기독교청년회 기념사진 (1904)



흥천사 앞 운동장(1989). 2010년 돈암코아루더클래식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밖에 도성 안 신식학교에서도 봄 운동회 장소로 흥천사 앞 운동장을 택했다. 보성전문학교가 1906년 4월 5일, 관립일어학교와 관립영어학교가 1906년 4월 28일, 관립법어학교가 1907년 5월 3일, 성균관에서 1909년 5월 18일에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사범학교는 1909년 6월 19일 녹음회綠陰會를 흥천사에서 가졌다.

안암동 개운사 — 100년 전에는 대개 영도사永導寺로 불렀다 — 도 흥천사만큼이나 유명한 운동회 장소였다. 도성에서 가기는 흥천사보다 조금 멀었지만 개운산 아래 평탄한 지대를 앞에 두고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기사에는 보성학교, 관립농상공학교, 국민사범학교, 관립한어漢語학교, 일신의숙, 화동학교, 전동사립중동학교, 청년학교, 광신상업학교, 광흥학교, 돈명의숙, 봉명학교, 융희학교, 관진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개운사에서 운동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경기 종목은 깃발뺏기 경주, 이인삼각 달리기, 계산경주(달음질 도중에 계산 문제를 풀어 결승점에 이르는 경주), 높이



개운사(1986). 1396년(태조 5) 무학(無學)이 현재 위치의 근처에 창건하여 영도사(永導寺)라고 하였으며, 1779년(정조 3)정조의 후궁인 홍빈(洪嬪)의 묘 명인원(明仁園)이 절 옆에 들어서자 인파(仁波)가 지금의 자리로 옮기고 개운사(開運寺)로 개명하였다. 20세기 이후에 한국 교육불사와 불교의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한 절로 유명하다.

뛰기, 멀리뛰기, 씨름 등이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은 우리나라 근대 체육의 출발 장소이기도 하다.

대한제국기(1897~1910)는 우리 민족이 일본,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했던 위기의 시대였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위기는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아야 한다는 자강운동, 실력양성운동이 시작된 배경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많은 종교,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신식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구식 과거공부 대신에 신식학교에 몰려들어 신학문을 배웠고,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된 집합 속에서 반상班常의 구별은 의미를 잃어갔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신문지상이나 집회장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백성百姓 또는 신민臣民의 시대가 저물고 이른바 대중大衆이 그 싹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고립되고 정지해서는 존립이 어려운 법이어서 그들은 곧 새로운 이슈를 찾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여러 형태의 집회와 연설회는 몸집을 불려가는 대중의 존재 방식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대중에게 당시 서울 근교의 사찰들은 충분한 물리적 공간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흥천사는 막 탄생한 대중들이 자신들의 생생한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열린 장소였던 셈이다.

그러나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기점으로 대한제국기 활발하게 열렸던 대중집회는 그 빈도가 급감했다. 대다수 애국계몽단체들이 해산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단체들도 조직이 축소되거나 노선이 변질되었다. 대한제국기 신학문을 가르쳤던 신식학교도 폐교 절차를 밟거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1912년 5월 31일에 학령 제716호를 내려 서울 시내는 물론 전국의 각 학교와 단체의 연합운동회를 폐지했다. 한국인들의 비밀결사를 막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였다.[13] 이 때문에 봄, 가을 동문 밖 사찰들의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조선 청년들의 땀 냄새와 선각자들의 열변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흥천사와 개운사는 고작 서울 사람들의 나들이나 연회 장소로 이용될 뿐이었다.

“지긋지긋한 경성을 떠나고 싶다”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사찰들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구증가 덕에 예전보다 더욱 붐비게 된 흥천사는 서울 사람들이 일 년에 꼭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는 명소 중 하나였다. 무슨 진귀한 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식민지 수도 경성京城의 갑갑함과 지긋함을 근교의 숲과 계곡에서 풀어보려는 심사에서였다. 염상섭廉想涉(1897~1963)이 1921년『개벽』에 발표한 단편소설「표본실의 청개구리」중 한 구절은 1920년대 서울 사람들이 흥천사를 어떤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휘익 둘러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여름에 한 번 놀러 가 본 신흥사도 간다는 말 뿐이요, 이때껏 실현은 못 되었다.[13]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나’는 불규칙한 생활과 권태로 신경과민에다 불면증까지 겹쳐 죽음의 유혹마저 느끼고 있는 터였다. 이 때 한 번 집 밖으로 나가 볼까 하는 곳이 동소문 밖 흥천사인데 혼자서는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 ‘H’의 권유에 따라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여행을 간다. 짧지만 당시 서울 사람들의 동소문 밖 흥천사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제국기(1897~1910)가 대중문화의 발흥기였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는 대중문화의 본격적인 성장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연애’는 도시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유행이었다. 연애소설이 불티나게 팔렸고 신문, 잡지들은 연애소동, 이혼소동, 남녀의 정사情死 소식을 전하는 데 열심이었다.[14] 서울 한복판에서는 부부나 연인끼리 나란히 걷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물론 흥천사는 그네들에게 훌륭한 데이트 코스였다. 이상李箱(1910~1937)이 1937년『조광』에 발표한 소설「종생기終生記」에는 ‘이상’과 그의 애인 ‘정희貞姬’의 흥천사 데이트 광경이 묘사되어 눈길을 끈다.[15]

> 그렇다고 내가 찔끔 정희 어깨 우에 얹었든 손을 뚝 떼인다든지 했다가는 큰 망발이다. 일을 잡치리라. 어디까지든지 내 뺨의 홍조만을 조심하면서 좋아, 좋아, 좋아, 그래만 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피차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나란히 흥천사興天寺 경내로 들어갔다. 가서 길을 별안간 잃어버린 것처럼 자분참 산 우으로 올라가 버린다. 산 우에서 이번에는 정말 포즈를 할 일 없이 무너뜨렸다는 것처럼 정교하게 머뭇머뭇해 준다. 그러나 기실 말짱하다. 풍경風磬 소리가 똑 알맞다. 이런 경우에는 제법 번듯한 식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16]



바람 부는 날 흥천사 경내



정인택과 권영희의 결혼식 기념사진. 이상의 친구 정인택(1909-1952)은 이상이 경영하던 까페의 여급 권영희와 1935년 8월 29일 흥천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에서 뒷줄 가운데 검은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이상을 비롯해 1930년대 문인들의 얼굴이 보인다.

이상과 그 애인 정희에게 흥천사는 좋은 데이트 코스이자 놀이터였던 모양이다.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의 딸랑거리는 소리는 멜로영화 같은 두 남녀의 데이트 장면에 꼭 맞는 효과음이다.

'데이트'라는 신풍속도의 훌륭한 배경이 된 흥천사에는 유흥을 즐기려는 도시의 남녀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외의 향락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해가 갈수록 식민 지배의 폭압성은 더욱 심해졌다.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뒤이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일제는 조선 사회를 전시총동원체제로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1938년 일제는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토록 하였다.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한 강압적인 법률이었다. 이런 시국에 흥천사 등 근교의 사찰로 몰려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남녀들이 식민 당국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근교의 사찰들은 '정화淨化'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33년 3월 8일자에 실린 「음일淫逸의 소굴화巢窟化하는 경산취체京山取締는 지난至難」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당시 동대문경찰서의 관할 구역내 '사찰정화' 방침과 1930년대 근교 사찰들의 실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 신성한 사찰에서 주식酒食을 판매한다는 것은 교화 풍기상 자못 좋지 못한 일이라 하여 일반의 그 물의가 높아왔으나 근교에 있는 청량사, 흥천사 등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사찰은 본래 사원의 기본재산이 없음으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 그 수입의 할인액으로 사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매상고 중 손님 한 사람에 대하여 5전 내지 7전씩을 떼어 사찰 유지비로 충당함으로 총

독부 종교과宗敎課나 또는 그것을 취체取締하고 있는 경찰당국에서도 묵과하게 되었다. 연중에도 봄과 가을철 같은 때는 가장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중에는 탕자탕부蕩子蕩婦들의 밀회처로 화하게 되는 곳까지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그 관할에 가장 사찰이 많은 동대문東大門署에서는 풍기에 대한 취체를 더욱 엄중히 할 터이라는 바 작년 1년 중에 동대문서 관내에 있는 12개소에서 유흥을 한 사람은 2만5천9백26인으로 그 매상고는 2만5천3백43원80전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유흥객이 많은 곳은 흥천사의 1만1천1백인으로 그 매상고 1만2천4백원이라고 하며 가장 적은 곳은 도선사의 50인으로 50원이라고 한다. 작년 중 각 사찰의 수입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명(寺名)	유흥인원수(명)	음식물매상고	사원수득액	음식영업자수(명)	승려 총수(명)
청련(靑蓮)	2,858	1,714원 80전	285원 80전	11	22
개운(開運)	5,200	5,200원	143원	21	65
보문(普聞)	800	500원	30원	5	23
미타(彌陀)	150	120원	10원	2	15
흥천(興天)	11,100	12,400원	2,200원	9	40
청룡(靑龍)	580	550원	100원	1	3
화계(華溪)	1,200	1,200원	60원	4	16
도선(道詵)	50	50원	4원	1	10
경국(慶國)	1,500	1,500원	100원	1	8
봉국(奉國)	450	500원	15원	1	13
청량(淸凉)	1,838	1,430원	373원	6	28
연화(蓮花)	200	115원	21원	1	13
계	25,926	25,342원 80전	4,619원 80전	63	256

사찰 풍기 문제에 대하여 동대문서 김金 보안주임保安主任은 말하되 "따스한 봄빛이 짙어오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교외출입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물론 늘게 될 것이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풍기 문제입니다. 근교사찰은 사찰유지비의 관계로 부득이 음식점을 허가한 것이나 때로는 그 절간에서 불량 남녀들이 추행을 감행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 풍기를 문란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찰에 여인숙 영업을 허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침을 빌려 그곳에서 자게까지 하는 곳도 있다는 풍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점에 있어 더욱 철저히 취체를 할 방침입니다. 발견되는 때에는 그 영업자뿐만 아니라 주지에게까지 책임을 지워 엄중히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운운.

—『매일신보』 1933. 3. 8, 「음일淫逸의 소굴화巢窟化하는 경산취체京山取締는 지난至難」

위 동대문경찰서 관할 구역 내 12개 사찰 가운데 광희문光熙門 밖 왕십리에 있었던 청련사(구 안정사)가 2010년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으로 불우를 이전했을 뿐 나머지 11개 사찰들은 아직도 옛 자리를 지키며 도량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중 흥천사가 당시 전체 유흥인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 1만여 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 시절 흥천사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정릉동에 있는 봉국사와 경국사도 인기 있는 연회 장소였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1910년대 절 앞마당에서의 운동회 개최를 금지한 일제가 대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한다면 1930년대 일제는 절을 찾는 남

녀들에게 풍기문란이라는 혐의를 씌어 단속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까지 규율하는 권력으로 진화했다. 1941년 7월 14일 매일신보 「주주만취晝酒滿醉의 도당徒黨」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식민 당국의 단속 방침 공표가 흰소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 전시하에 자숙을 부르짖고 더운 여름을 이겨가며 직역봉공의 총후훈련을 해야 하는 이 때 교외의 풍기가 문란해진다는 소문을 들은 동대문서에서는 어제 13일 일요일을 기하여 일제히 '숙청의 진군'을 하였다. 최근 동대문서 관내에 있는 각 절간에는 소위 더위를 피하여 나온다고 하는 신사숙녀가 매일같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오고 있든 터임으로 이 시국에 동떨어지는 풍기를 취체하고자 동대문서 보안계에서는 어제 13일 오후 우선 제일차로 신흥사 경내로 숙청의 경관대를 파견시켜 일제 검색을 한 결과 과연 소문과 같이 남녀가 어울린 불량배가 백주부터 술이 만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60여 명을 일제히 동대문서로 인치하고 엄중설유를 한 후 일단 돌려보냈는데 이 중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신사와 그 외에 기생까지도 들어 있었다고 하며 동대문서에서는 앞으로도 이 '숙청의 검색'을 계속하여 교외의 풍기를 취체하리라고 한다.
>
> —『매일신보』 1941. 7. 14, 「주주만취晝酒滿醉의 도당徒黨」

전시체제기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도를 더해가면서 동문 밖 절들을 향한 사람들의 행렬은 점차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절의 문화재까지 공출당했던 시대였던 만큼[17] 웬만한 지위나 재력



「철만난 사찰 주위의 요정」이라는 기사의 삽화(『경향신문』 1947.4.17).
가운데 '興天寺' 편액이 뚜렷하다.

이 없고서야 교외의 절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상춘객과 취객으로 북적였던 정릉의 원찰들 즉 흥천사, 경국사, 봉국사 주변도 조금 한산해졌다. 전시체제기 일제의 폭압적인 인적·물적 수탈은 식민지의 개인에게 고작 한나절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서울 사람들에게 동소문 밖은 유흥의 땅이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도시의 때를 씻고 산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켜거나 질펀한 음주가무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동소문 밖 사찰의 승려들도 이러한 도시인들의 욕구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도모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은 근대 한국 불교의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풍기문란한 사찰'이란 관념은 일제강점기 동대문경찰서 '김주임金主任'의 인식과 뭐가 다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이 시대 동소문 밖 사찰들의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사회 변화의 산물로서의 '대중'에 주목한다면 동소문 밖 사찰들은 감옥 같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의 정열과 노력, 휴식의 갈망 등을 차별 없이 받아주었던 열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자 할 때 이 사찰들은 저속한 유흥의 장소로만 머물지 않는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우리 근대사 속 이름 없는 중생, 즉 대중의 숨결이 서린 기억의 공간이다.

정릉동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이 전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모두 손가들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입니다" -조선 후기 손가정의 토지 분쟁

정릉3동 333번지 일대에는 '손가정孫哥亭' 또는 '손가장孫家莊'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정릉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정릉천을 따라 200m 가량 위로 올라가면 제법 넓은 터에 큰 느티나무 두 그루와 그 아래 큰 평상이 하나 보이는데, 그 옆에 이곳이 손가정 마을임을 알리는 작은 표지석이 있다. 손가정은 예부터 밀양 손씨 의창군파 후손들이 세거하는 집성촌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손씨 말고 왕王씨들도 많이 살아서 한때 왕씨들이 번성했을 적에는 '왕가정'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고지도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손가정은 정릉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손가정은 서울 근교 북한산 아래에 있어서 그 풍광을 사랑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너무 깊은 사랑은 집착과 소유욕으로 치닫는 것일까? 지위나 재력 가진 도성 안 사대부 중에는 직접 손가정의 토지를 사들여 자신을 위

한 별서를 만들고 그 안에 정자를 꾸미는 사람도 생겨났다. 김려의 시에 나오는 조현명의 정자, 이승희의 일기에 나오는 김병기의 별서와 정원이 바로 그런 예이다. 이와 같은 도성 안 사대부들의 근교 사유지 확대는 손가정만이 아닌 교외의 모든 전원 마을이 겪는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들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별서 소유는 때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선시대 별서는 단순히 별장 건물 한 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별서에 딸린 토지와 노비를 모두 포함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 지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서가 생긴 곳에서는 늘 별서 소유자와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요소가 잠복하고 있기 마련이었다. 1789년 가을, 손가정 주민들과 김계연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바로 그러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 국왕 정조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선 사건이었다.

영조 재위시 도승지와 강화유수를 지낸 김상익金尙翼(1699~1771)은 노년에 이르러 손가정의 빈 땅을 매입하여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이 정자는 그의 손자 김계연金啓演(?~?)에 이르기까지 이들 강릉 김씨 가문의 재산으로 대물림되었다. 이 무렵 서울의 강릉 김씨 가문은 김상익을 포함해 기로소耆老所(조선시대 퇴임관리들의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에 들어간 사람이 6인이나 되어 세상에서 복문福門이라 일컬을 정도로 명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니 근교의 작은 농촌에서 이 가문 사람들의 위세는 얼마나 당당했겠는가.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다. 김계연이 소유한 정자로 인해 손가정 사람들과 김계연 사이에 말썽이 빚어졌다. 1789(정조13)년 음력 9월 19일 한성부에서 올린 계언啓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1789년 음력 9월 어느 날, 정조가 능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어가 앞에 웬 사람들이 나타나 징을 울리며 막아섰다. 이를 격쟁擊錚이라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간혹 있어서 관아에서 외면 받은 하층 평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하소연(발괄白活이라고도 하였다)했다. 그날 정조 앞에 징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은 손가정의 농민들이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손덕봉孫德奉이란 사람으로 잠시 그의 말을 들어보자.

> "이 전장田莊의 풀 한 포기나 나무 한 그루도 모두 손씨孫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온 물건입니다. 중간에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상익金尙翼이 정자의 터를 매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이 외에 동네의 터에서는 전과 똑같이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상익의 양손養孫 김계연이 자기 집 입안立案 중에 들어 있는 토지라고 하면서 새로 개간한 땅이나 예전에 개간한 땅을 막론하고 종을 풀어 위협하여 모두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전해 온 땅을 난데없이 잃게 되었으니 원통합니다."
>
> —『국역 일성록』 정조13년 9월 19일

손가정 일대는 논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다. 사질 토양이라 물이 금방 빠져버려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가 되었다. 게다가 넓은 땅에 비해 상주 인구가 적었으므로 황무지로 내버려둔 땅도 많았다. 성 안의 고관대작들은 그 한가운데 있는 빈 땅을 사들여 거기에 정자를 짓고 정원을 꾸몄다. 처음에는 평화로웠다. 정자는 원래 용도대로



동국여도(東國輿圖, 19세기 초 제작) 중 도성도에 표시된 손가정 마을

휴양을 위해 쓰였고, 손가정의 농민들은 빈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일구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질서는 오래 가지 못했다. 김상익의 손자 계연이 정자 주위의 개간된 땅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김계연은 자신들의 노비를 풀어 '자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손가정 사람들로부터 소작료를 걷기 시작했다. 김계연은 정자 주변의 농토를 개인 소유의 장원莊園으로 만들어 버렸다. 손가정 사람들은 억울했다. 그들은 손가정의 개간지나 황무지나 다 손씨들의 소유로만 알아서 능력껏 자유롭게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갔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성 안 고관대작의 자손이 들이닥쳐, 개간한 땅은 이미 자신이 신고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니 어찌 할 것인가. 손가정 사람들은 막무가내의 권력 앞에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왕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 줄 유일한 권력이었다.

김계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은 김계연이 한성부에 아뢴 내용이다.

> "저의 할아비 김상익이 터를 매입하여 정자를 세운 뒤에 주인이 있는 땅은 값을 주고 매입하고 노는 땅에 대해서는 입안을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저의 할아비가 새로 점유한 땅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노속奴屬이나 동민洞民을 막론하고 그들이 먹고살도록 맡겨 두고 토지세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손가孫哥 등이 정자 부근의 노속들과 부화뇌동하여 정자 앞뒤의 땅을 점차 개간하여 서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아에 정소呈訴하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
> —『국역 일성록』 정조13년 9월 19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김상익은 정자를 지은 뒤로 정자 주위의 주인 없는 빈 땅을 자기 이름으로 양안(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자신의 소유지임을 문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손가정 농민들은 정자 앞뒤의 땅을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여느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개간했다. 처음에 김상익은 손가정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자 김계연이 오면서부터는 농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했다. 예전처럼 빈 땅을 찾아 자유롭게 농사를 짓던 손가정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쪽에서는 문서에 근거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한 쪽에서는 관습에

근거한 경작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성부와 국왕 정조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 다음은 그 판결 내용이다.

"김가(김계연 가)의 토지 매득 문서는 성출하여 입안한 것이니 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저 손가정 마을은 본래 손가가 여러 세대 동안 살고 나는 땅이어서 개간하여 땅을 부쳐먹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다 서로 땅을 사고팔고 하여 누차 그 주인이 갈리었습니다. 비록 김가가 정자를 짓고 입안한 후에도 일찍이 한 번도 손가정 사람들에게 수세한 일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오직 한 장의 입안에 근거해 전에 없는 도세를 징수하여 거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마을 백성들은 비단 올해 가을에 실업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마저 장차 영구히 세를 무는 땅이 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이 원망을 칭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입안 중인 토지는 민인들에게 돌려주어 전과 같이 지어먹도록 할 것이며 금년에 징수한 도세 역시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김가가 값을 치르고 매득한 땅은 이미 주인이 정해진 땅이므로 손가들이 이 땅도 섞어서 칭원稱寃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니 구별하여 김가에게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김계연이 자기가 매득한 땅 외에 돌연 백성의 땅을 침탈한 죄는 논하지 않을 수 없고, 손덕봉 등이 외람되게 작은 일로써 감히 이때 전하의 행차를 막고 소리치며 발악하여 천청天聽을 놀라게 했으니 민습이 무엄하여 매우 비통하고 놀랍습니다. 김계연과 장두 손덕봉은 모두 유사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토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정조13년 9월 19일

문서상 소유권보다 동성 마을의 관습을 존중하는 판결이었다. 비록 장두 손덕봉은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은 죄로 처벌을 받았겠지만, 손가정 사람들은 김계연에게 냈던 토지사용료를 돌려받았고 앞으로도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분쟁이 종결되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듬해(정조14, 1790년) 2월 손가정에 사는 손양택孫良澤이란 자의 아버지인 손의대孫義大가 김계연으로부터 끝내 땅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못이겨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손의대의 모친 또한 아들이 비명에 죽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입안 중인 토지를 다시 농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작년 9월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형조판서에게 보고 받은 국왕 정조는 불같이 화를 내었다. 정조는 이런 일조차 즉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송관訟官(송사를 맡은 벼슬아치)을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며 형조판서를 엄히 꾸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자신에게 들려온다면 관계된 당상관들을 모두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하였다(『승정원일기』 정조13년 9월 19일). 영민하고 강력했던 군주 정조다운 판결이었다. 결국 반 년 넘게 끌어 온 손가정 사람들과 강릉 김씨 가문 간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렇지만 한 모자母子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싸움은 더 길어졌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옛 정자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가 반영된 훌륭한 건축양식으로 평가 받는다. 동시에 우리 옛 선비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고 시문을 주고받은 공간으로서의 정자는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산실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정자를 엄연히 지배 계층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사치물이었다고 본다면 그 폐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강릉 김씨 가문의 경우와 같이 농민들의 거주지나 농토 한 가운데 땅을 사들여 짓는 정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던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부나 국가의 역할인 바,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는 정자의 소유자 김계연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손가정 농민들의 오랜 관습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갈등을 조정했던 것이다.

본래 땅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땅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과 잠시 놀다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공평하게 풀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땅에서 수익이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외부인과 땅을 살림살이의 유일한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는 원주민 사이의 대립은 어느 고장에서든 비일비재한 일이다. 어쩌면 오늘날 땅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선시대 정조 연간 손가정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조정 과정이 참고자료가 될지도 모르겠다.



‘돌일’-손가정 사람들의 또 다른 생업

손가정의 주인 밀양 손씨들은 조선 후기까지 마을 주변의 땅을 논밭으로 일구고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소작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손가정 주변의 땅값이 치솟기 시작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때만 하더라도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한 밀양 손씨들은 주변의 땅을 팔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외곽의 땅을 사들여 농사를 지었다. 영남 선비 이승희도 손가정 마을을 처음 보자마자 ‘물색이 영락없이 시골이다’고 했을 만큼 오랜 세월 이곳은 농촌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손가정과 정릉동에 특산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돌’이었다. 이옥이 「중흥유기」에서 교외의 천석泉石을 품평하면서 ‘손가장은 밝고 환하다’고 한 대목은 이 일대 화강암의 질이 겉보기에도 꽤 좋았음을 말해 준다. 그래서 도성 안에 궁궐이나 기와집을 새로 지을 때면 가까운 손가정의 돌을 가져다 석재로 썼다. 돌의 품질도 나쁘지 않았거니와 거리도 가까워 운반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지리적 여건 탓에 자연의 바위에서 돌을 '떼서' 석재로 가공하는 일을 말하는 '돌일'은 손가정 사람들의 또 다른 생업이 되었다. 이 때문에 손가정과 정릉 일대에는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여기저기에 채석장이 들어섰다.

손가정 일대의 돌일에 관한 내용은『승정원일기』1704년(숙종30) 5월 17일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북한산성 축성시 석재를 멀리서 운반해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가까운 구준봉 밖 청수동에서 돌을 채취하자는 데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준봉狗蹲峯은 현재 성북동 뒷산을 가리키며 청수동은 손가정 바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1786년(정조10)에 편찬한『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에도 손가정의 돌이 등장한다. 이 의궤는 문효세자文孝世子(1782~1786)묘의 조성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묘 조성에 필요한 총 1,665개의 석재 중 693개를 손가정에서 채취한 돌로 조달하고 손가정에 석재 채취를 위한 부석소浮石所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보인다.[18]

대한제국기에는 도로, 교량, 석축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석재를 채취, 판매하는 이른바 '돌장사石商'들이 도처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서東署의 청수동, 서서西署의 사동寺洞(지금의 은평구 신사동 일대)이 채석장으로 유명해 이곳으로 돌장사들과 석수들이 모여 들었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돌장사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황성신문』1907. 6. 8.).

일제강점기에도 손가정, 청수동 골짜기의 '쩡! 쩡!' 돌 떼는 소리는 계속 들려 왔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정릉에서 돌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정릉과 정릉2동 교수단지 전경(2003). 오른쪽에 보이는 민둥산은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최근 피오레아파트가 들어섰다.

보이는데 1924년 7월 2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산82번지에서 토석 화강함을 토목건축용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5년간 일본인에게 허가해주었다는 내용이다.

현재 손가정에 거주하는 손씨들도 대부분 돌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았다. 손씨들은 농사를 짓는 가운데 틈틈이 돌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돌을 깨는 기술자 돌을 쌓은 기술자 즉 석수石手가 되었다. 정릉천 양쪽의 축대도 모두 손가정의 밀양 손씨들이 공사를 맡아서 쌓은 것이라고 한다. 1920~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세대들은 돌일을 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둔 경우가 많았고 돌을 깨고 쌓는 일 외에도 서



경국사 앞 반야교



반야교 바닥

울의 궁궐 안에서 돌을 다듬어 기둥이나 석재를 다듬는 석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세대들은 더 이상 돌일을 하지 않았다. 정릉 지역에서 더 이상 돌을 채취하지 않게 되면서 일이 줄었고, 공사도 중장비가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일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한다.[19]

경국사로 일주문 앞의 널찌막한 다리를 건너다보면 왼쪽으로 화강암을 다듬어 쌓은 작은 돌다리 하나가 보인다. 철제 난간만 최근에 새로 설치한 것일 뿐, 교각과 다리바닥의 매끈하지 않은 표면을 보면 석재를 다룬 솜씨가 오늘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야교般若橋'라는 이름을 가진 돌다리로 경국사에서 1932년 황금정(지금의 을지로 일대)의 부호 이원우李元雨의 시주를 받아 중수한 것이다.

지금은 그 옆에 현대식 교량이 세워져 반야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작고 쓸모없는 다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다리가 정릉동에서 돌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남겨 놓은 마지막 건조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경국사 앞 반야교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옛 정릉동 사람들의 또 다른 생업이었던 돌일을 기리는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척박한 토지를 일궈 농사를 짓고, 무겁고 단단한 화강암을 떼어 나르던 정릉동 사람들의 힘겨운 노동의 역사가 이 다리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몇 번의 개발과 공사에도 반야교는 살아 남았다. 정릉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반야교가 그 옛날 정릉동 사람들이 흘린 땀의 역사를 증언하는 멋진 기념물로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란다.



다리 앞 암벽에 '이원우씨 영세불망비(李元雨氏 永世不忘碑)'라고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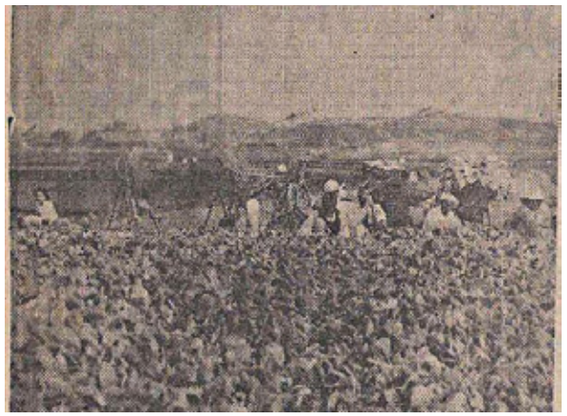


내쫓긴 사람들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토막민들의 정릉리 이주

한가로운 농촌 마을 몇 개로 구성된 정릉동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때는 1930년 전후였다. 1920년대 중반까지도 27만명 가량의 인구를 유지하던 경성부는 1930년을 전후로 급격히 인구가 불어나 1933년이면 37만여 명이 사는 대도시가 되었다. 자연히 교외 지역도 마냥 한가로운 농촌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시내에서 행랑살이 하던 사람,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사람들이 정릉리와 같은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초반 고양군 숭신면의 성북리, 돈암리, 정릉리, 미아리의 집들은 2,000호에 달하게 되었다. 정릉고개(아리랑고개) 너머 정릉리까지는 전기가 가설되었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가 닦였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 당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경성부 시가지 확장계획에는 돈암동까지만 포함되었고 그 외곽의 정릉리와 미아리는 제외되었다. 1914년 이후 고양군 숭인면에 속해 있었던 돈암리, 성북리, 안암리, 종암리, 제기리, 신설리, 청량리를 각각 돈암정, 성북정, 안암정, 종암정, 제기정, 신설정, 청량리정으로 개칭하고 이를 경성부 동부출장소의 관할로 두기 시작했다. 정릉고개와 미아리고개 밖 정릉리와 미아리는 여전히 경성부에 편입되지 못한 채 경기도 고양군 관할로 남게 되었다.

행정 개편 후 일제는 돈암정 일대를 '돈암지구'(오늘날 보문동 1-7가, 안암동 1-4가, 동선동 1-5가, 삼선동 1-3가, 동소문동 1-5가를 포함하는 지역)로 설정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주거지 블록(사방이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 필지가 모여 형성된 구획의 단위)을 만들고 이 블록들에 필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늘날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념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돈암지구 외에도 1936년 새롭게 편입되어 확대된 서울의 경계 내(경성부)에 10개의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였다(그밖에 영등포, 대현, 한남, 사근, 번대, 용두, 청량리, 신당, 공덕 지구가 있었다). 1920년대만 해도 논밭상태로 남겨져 있던 돈암리 일대는 이 사업의 결과 고밀도 주거지로 변모했다. 신규 주택지에는 빽빽이 개량형 도시한옥들이 들어섰으며 그 외 전기,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 돈암지구는 1930년대 후반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조선총독부의 의지가 반영된 선도적 사업지구였다.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곧 돈암지구는 '대경성'의 대표적인 외곽주택지로 떠올랐다.



안암정 토막민의 생활터였던 야채밭 전경
(『매일신보』1936. 6. 4)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시가지확장이 아무런 저항이나 충돌 없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 돈암지구 일대에는 그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의 동소문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돈암지구 내부로는 집단취락지가 거의 없었으며 주로 과실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구릉지였다. 그런 곳에 몇몇 토막촌이 형성되어 있을 뿐 시가지나 골목 같은 도시로서의 경관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곳에 토막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야채밭에서 야채를 떼어다 성안에 들어가 파는 것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는 일제에게 이들은 '정리' 대상이었다. 토막은 강제로 헐렸고 토막민들은 경성부 밖으로 떠밀렸다.

방금 경성부 당국에서 시공 중인 돈암지구 구획정리는 거의 완성을 보게 되었고 돈암정 1번지 일원 약 200호의 주택만이 이전되지 않아 부에서는 지난 4일부터 강제철훼를 행하였다. 수개월 전부터 이전명령은 있었으나 모두가 세궁민이어서 아직껏 다른데로 이전을 행하지 못하고 집을 헐리우게 되었으므로 주민 800여 명은 당장에 갈 곳이 없어 어제밤부터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참경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물자가 결핍되어있고 자금이 융통되지 않은 만큼 당장 신축이 불능하고 또한 셋집 얻기도 곤란하여 이들의 수용은 또한 난사가 아닐 수 없어 당국도 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집헐린 200여 가족 천여 명은 비내리는 뜰에서 노숙하고 5일 오후 2시경에는 주민 대표 80여 명이 부에 출두하여 대토代土 주기를 진정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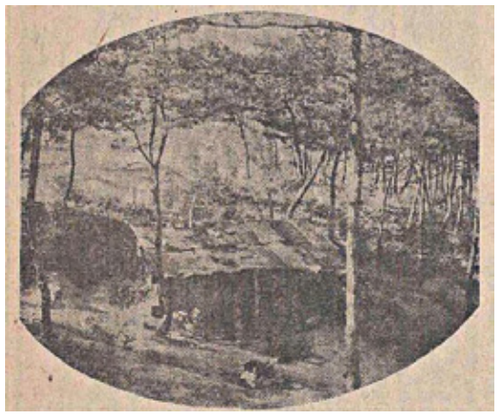
— 『동아일보』 1939. 7. 6, 「돈암정 일번지 일대의 200호를 강제철훼」

1930년대 중반 대대적인 경성부 시가지 정비 및 확장사업을 추진한 경성부 당국은 경성 시가의 '미관을 저해하는' 토막민들을 더욱 외곽으로 이주시킬 것을 결정했다. 경성 동북부의 정릉리와 서북부의 홍제외리가 토막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로 선정되었다. 경성부는 1935년부터 4개년에 걸쳐 토막민들을 이들 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정릉리를 '길지吉地'라 칭하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1호당 15평의 대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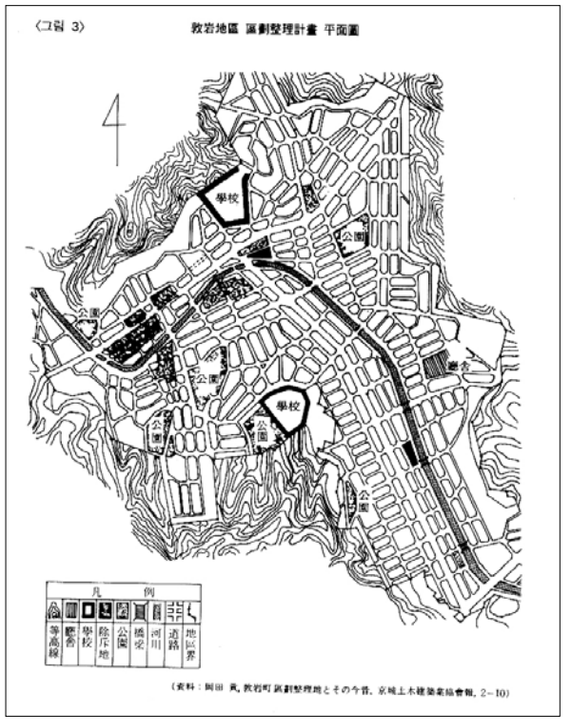
경기도에서는 경성의 토막민을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궁리하던 중 경성부 내외에 있는 2,000호 약 10,000명의 토막민을 부외 정릉리로 4개년 계획사업으로 이주시키기로 이미 착수를 하였는데 소화 9

년 5월말 현재의 토막민은 부내에 296호 1,480명 부외에 1,704호 8,520명인바 소화 9 · 10 양년도에 800호, 11년도에 700호, 12년도에 500호를 1호에 15평씩을 제공하여 정리하기로 되었는데 경성부 내외의 토막민은 용산 관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서대문, 동대문, 종로 등이다.
—『매일신보』 1935. 6. 26, 「정릉리의 길지를 얻어 부내외 토막민 이주 - 금년부터 4개년 계속하여 2,000호 전부를 정리」.

그러나 경성부의 토막민 '정리' 계획은 원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당시 정릉리 인구가 1,000명 남짓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000호나 되는 토막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정릉리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정릉리 주민들은 '아무리 부외府外라 할지라도 부에서 처치하는 하층부락을 맞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그런 비위생적이고 모욕적인 처치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경성부와 동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반대 운동을 벌였다(『조선중앙일보』 1936. 6. 7, 「토막민土幕民 부외府外 철퇴문제 재차 난관에 봉착, 정릉리 주민이 토막민 불환영, 갈 곳 없는 그들 신세」). 토막민들의 불만도 컸다. 경성부가 무상으로 대지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할 만한 자금이 있는 토막민들에게 있을 리 만무했다. 또한 항상 부내에 들어가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서 생계를 해결했던 토막민들은 정릉리와 홍제외리처럼 궁벽진 곳에서는 부내를 출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원주민만큼이나 토막민들도 경성부의 이주 정책에 막막해 할 따름이었다. 그 결과 경성부 외곽으로의 토막민 이주율은 이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1937년 6월 겨우 30%에 불과했다. 홍제외리로 529호, 정릉리로 234호가 이주했다. 하여간 그렇게 경성부에서 떠밀려 나오다시피 한 토막민들은 참혹한 생활 조건을 견디면서 정릉리를 터전 삼아 다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정릉리의 토막(『매일신보』 1936. 6. 6)

그럼 정릉리로 이주한 토막민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일단 정릉리로 이주한 토막민들에게는 각 호수마다 약속대로 15평의 대지가 주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사에 필요한 이전비와 건축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궁벽진 시외곽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토막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토막은 주로 하천변이나 하천 부지 위에 지어졌는데 그나마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얻기 쉬워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정릉천은 토막으로 들어찼고 해방 후에는 그 자리를 무허가 판잣집들이 대신했다.[20] 정릉천의 토막과 판잣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21] 그리고 무허가 건물들이 사라진 정릉천을 덮는 복개 공사는 1979년에 시작해 1986년에 완료되었다. 정릉3동 청수교부터 종암사거리 월암교까지 뻗친 넓은 자동차 도로(지금의 정릉로)는 이때 생겨났다. 그와 함께 지난 날 정릉천 토막민들의 흔적도 서울 시민들의 시야에서 말끔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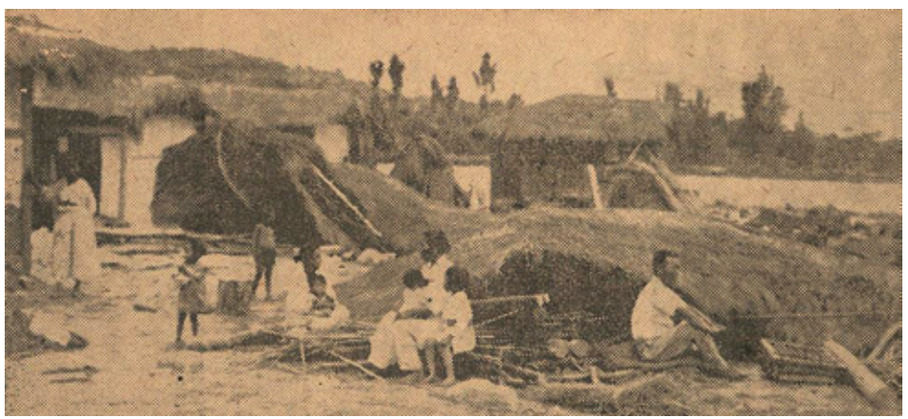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도면.
서대문 대현지구 도면과 더불어 전국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1930년대 말 삼선교,
돈암동 거리의 모습.
혜화문 쪽에서 찍은 것이다.



보문동 한옥단지(1990). 일제시대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이후 이러한 형태의 개량한옥이 빼곡히 들어섰다.
2013년 12월 현재 성북구에는 서울시 전체 한옥의 11.8%인 1,618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이 헐리고 맥없이 앉아 있는 토막민 가족들의 모습(『동아일보』 1939. 7. 6)

‘울타리 없는 집’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22]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 mark가 있다면 북한산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외국의 유명 도시들은 성당, 의사당, 첨탑, 초고층 빌딩 같은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그 얼굴 역할을 한다지만 서울은 북한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맑은 날이면 멀리 한강 둔치에서도 보이는 푸른 산록과 유난히 하얀 암봉들, 도봉과 우이령을 지나 인수봉, 백운대, 보현봉, 문수봉, 비봉으로 이어지는 리드미컬한 능선들은 그 자체로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의 지붕이요 얼굴이다. 이런 북한산을 서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산에 대한 사랑은 옛사람들이 남긴 시와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상헌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면서 지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로 시작하는 시조도 그렇거니와 이옥이 ‘아름답다佳’는 말을 무려 26번이나 되풀이해서 쓴 「중흥유기」, ‘그날이 오며는 /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로 시작하는 심훈의 「그날이 오면」과 같은 시는 그 옛날 우리 문인들이 얼마나 북한산을 아끼고 쓰다듬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북한산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에 사진과 함께 올리는 수많은 감상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식지 않는 북한산의 인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북한산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감동에 대하여 다음에 소개하는 글만큼 감명 깊게 쓴 글은 또 없을 것이다.

경성부 돈암정으로부터 숭인면 정릉리로 넘어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고개가 있다. 속칭 아리랑고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름 없는 고개에 붙이는 흔한 보통명사일 뿐이지 어떠한 유래가 있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세상 풍속을 싫어하며 ‘아리랑’이라는 단어조차 귀에 거슬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이 고개를 으레 ‘정릉고개’ 라고 불러 왔다. 이 고개는 정릉리의 관문이요, 이 고개를 넘으면 정릉貞陵이 소재한 까닭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이 고개를 ‘생각하게 하는 고개, 즉 상현想峴’이라고 이름 짓자는 의견을 듣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상현은 작년 봄에 한 길 넘게 깎아 내리고 3간 폭으로 자동차 도로를 닦았으나 아직도 경사가 심해 우리 자전거꾼들은 자전거를 끌고 넘어다녀야만 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초행길에 이 고개를 넘어서 성서조선사까지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으나 주인도 못 만나고 돌아가는 황혼 길에 다시 넘으려다가, 유흥가 별장지대로 넘나드는 자동차의 흙먼지를 피하기 위하여 북한산을 향하고 돌아서니 여러 가지 생각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개에서 무슨 생각이 났었던가? 첫째로 단발령 고개에 올라서서 금강산의 별천지를 바라본 때의 감개무량함에 못지않을 일이

다. 시내의 흐린 공기가 이 고개에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세속에서 영계로 향하게 된다. 길가의 가게들에 끌리던 우리의 눈길은 이 고개에서 도봉산과 삼각산과 북한산성을 바라보게 된다. 가로등과 차량의 전조등에 부시던 우리 눈은 이 고개에 이르러 큰 곰, 작은 곰, 백조, 목동 등 별자리들과 달빛과 혹성의 운행에 주의하게 된다. 확성기로 나오는 라디오 소리와 차량들의 마찰소리에 신경을 상하던 우리 귀는 이 고개에 이르러 맑은 시냇물이 바위에 부딪쳐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야 비로소 상처에 고약을 부친 것 같이 시원하다.

아침에 활기찬 몸으로 이 고개를 넘어 시내로 들어갈 때에는 자전거를 밀면서 그날 행行할 용기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그날 처리할 용무를 다시 한 번 기억한다. 저녁에 피로한 몸으로 이 고개에 다다를 때는 롯이 소돔 성을 떠날 때의 두려움이 생기는 듯하다. 하루 동안 유형무형의 위험으로부터 피한 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무릇 참되지 못한 일, 너그럽지 못한 일, 탐욕스러웠던 일 등에 대한 참회도 이 고개를 넘는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자아낸다. 놀러 다니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달음질할 때에 피곤한 '성서조선 배달꾼'의 쓸쓸한 느낌과 더불어 잔에 넘치는 은총의 감격은 또한 각별하기만 하다.

—「상현」, 『성서조선』 제98호, 193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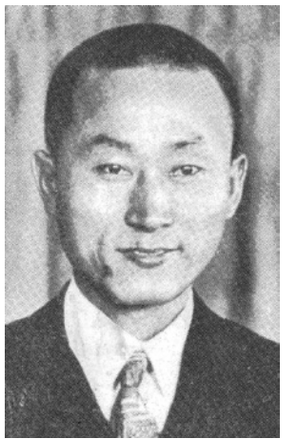
김교신金敎臣(1901~1945)이 1937년 3월 『성서조선聖書朝鮮』지 에 쓴 「상현想峴」이란 글이다. 이 글에서 북한산은 정릉고개를 자전거로 넘어 가는 '나'를 저 너머 광막한 우주와 연결시켜 주는 초월적 장소가 된다. 하루 일을 마치고 무언가 개운치 못한 심정이 되어 고개 넘어 집으로 향할 때 보이는 북한산, 도봉산의 굽이치는 능선과 그 위의 광대무변한 하늘은 신의 은총처럼 다가와 박힌다. 이 때 정릉고개는 깊은 명상의 공간으로 변한다. 고개 이름을 '생각하는 고개, 상현'이라고 붙여 본 이유이다.

김교신은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의 소금 같은 존재였다.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에 만해 한용운이 있었다면 기독교에는 김교신이 있었다. 그가 1927년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등 동인들과 함께 창간한 월간 신앙잡지 『성서조선』(1942년 제158호까지 발행)은 당시 일제의 핍박과 회유 속에 분열되고 껍질만 남은 한국 기독교에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흔히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김교신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이 성서를 바탕으로 그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시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오염, 편향된 교리에서 벗어나 조선의 현실에 입각한 주체적인 신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다. 따라서 김교신의 『성서조선』 간행과 무교회주의 신앙운동은 늘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다.

김교신이 공덕리 옛집을 떠나 정릉리로 이사온 날은 1936년 5월 6일이었다. 김교신이 정릉리를 새 집터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째 늙으신 홀어머니를 위함이었다. 그때만 해도 정릉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과 한적한 주위의 산과 숲이 있어 그의 어머니가 물맞이하는 데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둘째 김교신 자신을 위함이었다. 되도록 시끌벅적한 경성을 멀리하고 싶었지만 아예 경성을 떠나버린다면 『성서조선』의 간행이나 양정고보 교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종암동 개운산 정상에서 본 북한산과 도봉산의 새벽 풍경.
김교신이 정릉고개에서 본 풍경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김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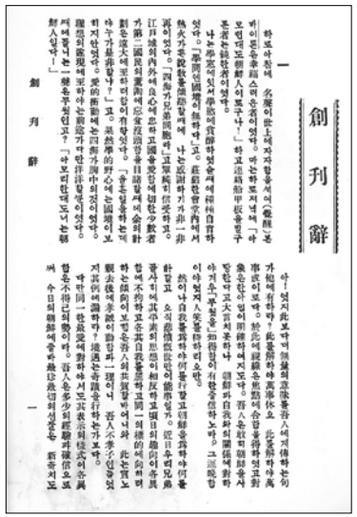
『성서조선』 창간동인. 뒷줄 좌로부터 양인성, 함석헌. 앞줄 좌로부터 유석동, 정상훈, 김교신, 송두용. 1927년 동경사범학교 졸업 직후 찍은 사진이다.

경성까지 차마車馬가 다닐 수 있는 신작로가 놓여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마지막 동네인 정릉리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정릉리는 '북한산 기슭에 거친 땅이 남아있고 어루만지면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개척의 재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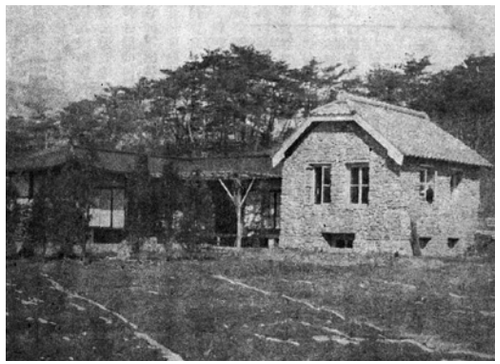
같은 해 3월에 대지 1,500평을 간신히 매입한 김교신은 손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서재는 개울의 크고 작은 돌을 모아다가 양옥으로 지었다. 부인을 위한 살림집은 한옥으로 지었다. 부엌에는 당시로는 아주 귀한 씽크대를 놓고 하수도를 마련했고,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이 역시 당시로는 드물게 문을 내어 부인이 상을 차려 들고 오는 데 문을 여러 개 거치지 않게 설계했다. 김교신은 이렇게 당시의 집구조나 생활방식도 개량, 개선하는데도 선구적이었다. 이런 김교신의 집은 당시 북한산 아래 첫 번째 집이었다. 둘째 집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말하자면 산중의 집이었던 셈이다.

이 집에는 많은 식구가 살았다. 모친 양신楊愼 여사와 부인 한매韓梅 여사, 그리고 6녀 2남의 자녀들이 모두 한 집에 살았다. 이 밖에도 같이 사는 식모와 하숙생들을 합치면 한 때 무려 18명이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다. 닭·개·돼지 등 기르는 가축이 수십 마리나 되었고, 집 주변에는 넓은 밭을 일구고 계절에 따라 갖가지 채소와 곡식을 심고 가꾸어 자급했다. 수십평의 넓은 땅에 백합화를 심어 온 동네에 향기를 가득 차게도 하였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다란 길과 밭의 주위는 코스모스로 메웠다. 또 겨울이면 인근의 논에 물을 대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온 가족이 스케이트 놀이를 즐겼다. 이른 봄 얼음이 녹을 때면 아이들


聖書朝鮮
創刊號
一九二七年七月一日發行
目次
創刊辭 ..... 一
人間科敎授을 何故로 주엇나 ..... 宋斗用 一
그리스도의 안식 ..... 鄭相勳 七
예수와 안식일 ..... 鄭相勳 一二
이츠와 사람 ..... 金敎臣 二三
몸지고 돌을 찾하야 ..... 咸錫憲 三二
神과 信仰 ..... 宋斗用 三五
아브라함의 信仰 ..... 柳三悳 四五
宇宙의 소래 ..... 金敎臣 四八
基督敎혁명운동의 안팟 ..... 편집자 五二
成敗得失 ..... 五五


創刊辭
一

『성서조선』 창간호와
김교신이 쓴 창간사





김교신의 정릉집과 가족사진

과 함께 개울에 들어가서 바위를 들고 삼태기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이기도 했다. 이런 김교신의 가정의 단란한 모습은 넷째딸 정옥이 쓴 글에 잘 담겨 있다. 『성서조선』 1939년 2월호에 게재한, 어린 아이의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글이다.

우리 집은 북한산 아래 있습니다. 집 앞에 개천이 있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아홉 분인데 어른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두 세 분이고, 아이들은 작은 언니하고 정혜 언니하고 정손이하고 정복이하고 나하고 다섯이고, 보배는 심부름하는 아이오.

우리 집은 절반은 기와집이고 절반은 함석집이오. 개도 있고 닭도 있는데, 개는 세 마리고 닭은 스물 네 마리오. 큰 언니는 시집갔소. 우리 는 언니가 보고 싶소.

아-멘.

편자 : 이것은 금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우리 집 넷째 딸의 작문인데 북한산록의 광경이 보이는 듯해서 이 여백에 싣는다.

김교신의 정릉 서재는 그 자체로 『성서조선』지의 편집실이기도 하였다. 잡지는 1930년 6월호인 제17호부터는 다른 동인들의 사정으로 김교신의 이름으로만 편집, 발행되었으므로 김교신은 자택에서 모든 발간 업무를 총괄해야만 했다. 김교신이 매월 잡지 한 권을 혼자 힘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릉리와 경성부 내의 인쇄소를 오가며 동분서주해야 했다. 같은 때 양정고등보통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교신은 매일 아침 저녁 자전거로 정릉고개를 넘어 학교가 있던 만리동을 오고 갔다.[23] 김교신이 1939년 1월 31일에 쓴 일기에는 유난히 바빴던 하루의 행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아침부터 집 - 인쇄소 - 총독부 - 정릉리(원고) - 인쇄소 - 총독부 - 양정학교 - 인쇄소 - 집, 이렇게 뛰어다녔다. 그래도 2월호의 정기일 발송은 기어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1936년 이후 김교신이 『성서조선』에 발표한 글과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정릉과 북한산을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다. 새벽 5시 전 집 근처 봉국사의 목탁소리를 '고마워하며' 기상한 김교신은 정릉 계곡에 가서 냉수마찰과 새벽기도를 끝내고 5시 반에 가족예배를 인도했다. 새벽마다 정릉리에서 올려다보는 북한산은 그에게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의 은총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가족 전체가 북한산을 등반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거기에는 모친과 부인, 초등학교 1학년 짜리 딸도 끼어 있었다. 등반은 정릉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걷는 것으로, 백운대 정상까지 올랐다가 해가 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갔다온 후 며칠동안 그의 모친과 부인은 문지방을 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 했다고 한다. 이런 김교신에게 북한산과 그 기슭 정릉리는 그 자체로 생활 공간이자 사상의 거처라 할 만했다. 1936년 6월 6일에 쓴 일기에서 김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울타리 없는 집이라, 북한산성이 북편을 막았고 남한산성에 대문을 달았다. 시내의 왜소저암矮小底暗한 집에서 혼난 터이라, 바라크식일망정 채광의 창은 넉넉하고도 넘치니 아침엔 늦잠 자고자 하되 밝아서 잘 수 없고, 저녁엔 피로로써 베드로의 무리처럼 쓰러져 잔다.

울타리 없는 집. 아니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울타리로 삼은 집. 김교신에게 정릉집은 단순한 처소가 아니었다. 정릉의 흙과 북한산의 물과 숲은 김교신에게 신의 진리를 계시해주는 '산 경치'였다. 이른 봄 북한산 바위 위에 움트는 싹들도 북한산 계곡물 속에서 꾸물거리는 작은 개구리들도 김교신에게는 일상의 기적이요 나아가 민족의 독립을 알리는 신호로 다가왔다. 이처럼 김교신의 북한산과 정릉리에 대한 사랑은 차고 넘쳤다.

김교신이 정릉리의 자연에만 애정을 쏟은 것은 아니었다. 정릉리에 사는 사람들과도 그는 끊임없이 소통했다. 낮에 있던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김교신은 동네의 '움집'에 놀러가 자정이 넘도록 한담을 즐기곤 했다. '움집'이란 당시 정릉리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토막집을 일컫는 말로서 김교신은 모든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이웃으로 지냈다.

1939년 11월 김교신은 정릉리에 북한학원北漢學園을 설립했다. 소설 『상록수』와 같은 농촌계몽운동을 이곳 정릉리에서도 펼쳐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김교신은 유능한 두 여선생을 초빙하여 학원을 열고 아이들을 모아 한글과 셈법 같은 기초적인 교과를 가르쳤다. 김교신 자신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고 밤에는 성인들을 모아 야학을 열었다. 밤에 공부하러 온 정릉리 주민들 중에는 부인들도 많았다. 그렇게 북한학원

은 정릉리 주민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떠가는 배움터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학원의 운영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일제의 방해도 점점 심해졌거니와 1942년 3월에는 '성서조선 사건'[24]으로 김교신이 1942년 3월부터 꼬박 1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함께 강도를 더해 갔던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 하에서는 북한산 기슭의 조그마한 학원도 온전할 수 없었다.

1945년 김교신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1944년부터 함경남도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며 강제징용당한 5,000여 한국인 노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힘쓰고 있던 김교신은 이듬해 그만 전염병에 걸려 1945년 4월 25일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장례는 5월 1일 공장장工場葬으로 치러졌으며 유해는 함경남도 함주군 가평면 다래봉 선산 가족묘지의 선친 옆에 모셔졌다. 서울에서 내려온 홀어머니, 부인, 자녀들과 『성서조선』 동인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김교신의 오랜 친구 함석헌咸錫憲(1901~1989)은 신의주에서 서울로 월남하여, 이제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정릉 옛집을 방문하고 이렇게 읊조렸다. 「돌아간 김교신 형 집을 찾고」라는 제목의 시조이다.

문 앞에 흐르는 물 의구히 흘러 있고
울 뒤에 맑은 송풍 제대로 맑았고나
봄 볕은 서창을 비춰 님의 얼굴 보는 듯

이 시내 마시면서 이 바람 쏘이면서
흐리운 이 세상 맑히자 애쓰던 마음
그 마음 어디 찾을꼬 북한산만 높았네

시냇물 흘러가고 솔바람 불어가고
산사의 저녁종이 울리어 가는 저녁
다녀간 님을 그리며 나는 어딜 가려노

정릉리 378번지, 김교신이 직접 정릉천의 돌을 모아 지은 집은 그 후 주인과 행정구역과 번지가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워 할 것은 못된다. 애초에 김교신의 집은 울타리 없는 집, 북한산성이 북편을 막았고 남한산성에 대문을 단 거대한 집이었으니까. 그 집은 북한산과 정릉천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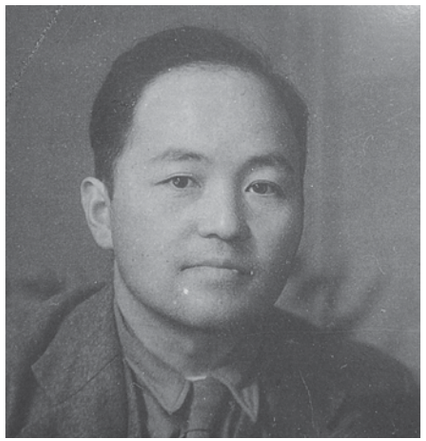
1950년 정릉의 여름
-김성칠의 일기로 본 북한군 점령 기간 정릉동

1993년 2월 창작과비평사에 펴낸 책 한 권이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역사 앞에서』라는 책으로 김성칠金聖七(1913~1951) 전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국전쟁 동안 쓴 일기를 그의 아내 이남덕李男德(1920~2012) 교수가 묶어낸 것이었다.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 점령 하에 들어간 서울의 모습을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포착하여 서술한 일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았다. 또한 이 책의 발간으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1950년 여름 북한군 점령 기간 서울의 상황이 공론과 연구의 장으로 들어왔다.

경성제대 재학 시절에 처음 만난 김성칠과 이남덕은 1944년 충북 봉양(지금의 제천시 봉양읍)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해방을 맞아 상경한 후 1947년 봄 김성칠이 서울대 사학과 조교수로 취임한 뒤 정릉리 362번지로 이사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길에 오르지 않은 이남덕과 김성칠의 가족은 정릉리에 남아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목도하고 '인공 치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점령 기간)'의 서울



『역사 앞에서』 1993년 초판 표지.


김성칠의 사진. 일찍부터 국사를 비롯한 국학 등 민족문화는 물론 청나라와 조선 시대 지식층의 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1941년 여름에 『용비어천가』 10권을 번역하였으며, 1946년에 『조선역사』를 집필하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열하일기』 5책을 간행하였다.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조교수가 된 뒤 손가정으로 이사하였다.

생활을 경험하였다. 당시 김성칠은 강의마저 할 수 없게 돼 가끔 걸어서 서울대학교와 도심을 왕래할 뿐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정릉 손가정 자택에서 숨어지내야 했다. 김성칠은 이때 자신의 신변은 물론이고 정릉 일대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일기로 남겼다.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날 1950년 여름 정릉 일대의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김성칠의 일기에는 그해 여름, 손가정과 정릉동 사람들의 전쟁 속 일상이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책 뒷부분에 실린 아내 이남덕 교수의 회고담 역시 당시 정릉동 주민들의 상황을 아는 데 큰 도움을 준다.

1950년 6월 25일 김성칠은 북한군이 38선을 밀고 내려온다는 소

식을 듣고도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아니 빠져나갈 새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신 서울은 안전하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데다가 북한군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 볼 겨를도 없었다. 다만 김성칠은 자신의 집에 기거했던 제자 둘만 고향으로 떠나보내고 정릉에서 가족과 함께 정릉동에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지켜봐야만 했다.

김성칠은 정릉동과 돈암동을 오고가면서, 미아리고개를 넘어온 북한군의 탱크가 돈암동 시가지를 가로질러 혜화문 안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정릉 자택에 돌아온 김성칠은 이웃집과 마찬가지로 직접 인공기를 그려 대문 앞에 달아야 했으며, 정릉 정자각에서 열린 인민위원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해 여름, 김성칠 가족과 정릉동 사람들은 꼼짝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된 때가 1950년 9월 28일이니 정릉동은 꼬박 석달 동안 북한의 통치 지역으로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정릉동의 인적 피해는 다른 곳에 비하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서울 점령시 창동과 미아리에서 소규모 전투가 일어났을 뿐이고 정릉동은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살짝 비켜 있었기 때문에 거의 포화를 입지 않았다. 미 공군의 폭격도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쪽에 집중된 반면 성북구 일대는 거의 폭격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때는 1950년 9월 서울 수복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북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은 '반동 인사'로 점찍은 사람들을 모아 정릉 골짜기에서 학살했고, 수복 당시 미군과 북한군 사이의 총격전으로 빗발치는 탄환에 애꿎은 정릉동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김성칠의 일기와 이남덕의 회고담에 의하면, 1950년 여름 북한군 점령 기간 정릉동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식량난이었고, 둘째는 북한군의 주민 통제 방식이었다.

북한군 점령 당시 서울은 지방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아에 허덕였다. 더구나 그해 여름의 극심한 가뭄은 서울의 식량난을 더욱 부추겼다. 정릉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릉동 사람들은 남은 식량을 아끼고 아껴가며 죽으로 끓여먹거나 그것마저 없으면 몰래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했다. 그나마 농촌 지역이었던 정릉동은 호박밭이 많아서 호박과 호박잎, 호박순은 정릉동 사람들에게 요긴한 식량이 되었다. 북한산의 도토리는 채 여물기도 전에 털렸다.

> 호박밭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함부로 호박을 따고 있다. 웬 사람이냐 물으니, 굶어 죽을 지경이어서 하는 수 없이 들어왔다 한다. 보아하니 얼굴이 누렇게 부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
> — 김성칠의 일기(1950. 8. 11)[25]

나는 이런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찾아 헤맸다. 우선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게 서울시민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해 호박 농사를 열심히 했던 덕택으로 시내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에게까지 나누어줄 수 있어서 여간 다행히 아니었다. 불문과의 손우성孫宇聲(1904~2006) 선생님도 그 자제분을 이 호박

메신저로 보내시곤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박죽으로 연명했는데 말이 호박죽이지 호박잎을 주재료로 한 호박 시레깃국에 혹간 쌀이 보이는 그런 멀건 죽이었다. 아이들이 이 호박죽이 상식常食이 되자 영 먹지 않고 먹으라고 강권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데 애를 먹게 된다.

— 이남덕의 회고담[26]

북한군 점령 기간 서울에서 총포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 전쟁은 어제까지도 잘 지내던 동네 사람들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같이 이데올로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은 그 정도가 심했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자 '반동 우익' 인사를 색출하여 납북하거나 학살했다. 각 구와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집마다 성인 남자들을 징발하여 의용군에 충원했다. 각 지구별로 선출된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권한은 막강해서 만약 이들의 눈에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즉시 인민재판에 넘겨져 고욕을 치러야만 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인심이 험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뿐 아니라 북한군은 거의 날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을 학교나 공터에 모아놓고 강습, 선거, 시위, 노래를 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 했던 것은 작업에 동원되는 것이었는데 식량을 찾아 끼니를 이어나가는 일도 힘겨울 때 작업에 나가는 것은 실로 속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김성칠은 의용군에 징발 될 것을 우려해 골방에서 숨어지내야 했으므로 주로 아내 이남덕이 마을의 집회와 작업에 출석했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몹시도 길고 짜증스러웠다. 날마다 강습이요, 선거요, 시위요, 노래요 하면서 집회 때문에 안 모이는 날이 없었는데 가장 괴로운 것은 작업에 동원되는 일이었다. 집안식구 먹거리를 찾아서 조반석죽이나마 끼니를 이어나가는 일도 힘에 겨운데, 그리고 폭격이 계속되는 속에서 아이들 옷만이라도 보따리에 챙겨놓고 여차하면(어디 정한 데도 없건만) 도망갈 준비에 정신이 없는 판에 작업 동원령이 내리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 이남덕의 회고담[27]

김성칠의 일기는 1951년 4월 8일로 끝을 맺는다. 안타깝게도 1951년 10월 8일 피란 수도인 부산에서 고향인 영천으로 중구절重九節 제사를 모시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까닭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김성칠과 이남덕이 그 어렵던 시절 정릉동에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 정릉동 사람들에게 큰 행운이다. 대개 다른 지역에서는 말소된 기억으로 되어 있는 1950년 여름 북한군 점령 기간의 생활이 김성칠과 이남덕의 증언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동의 재산이다.

전쟁 동안 정릉동 사람들은 꿋꿋했다. 극도의 굶주림과 비민주적인 북한군의 통제 속에서도 정릉동 사람들은 끝까지 이웃에 대한 연민과 신뢰를 잃지 않았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굶주린 와중에도 이웃끼리 음식을 나눠 먹었으며, 연이은 집회와 작업에 불려다니면서도 마을 공동체의 훈훈한 인정을 잃지 않았다. 그러했기에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정릉동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축대의 세월
-1950~1960년대 정릉동의 인구증가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모여들었다. 전쟁 당시 한 때 60만명으로까지 인구가 감소했던 서울은 수복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953년 휴전 이후부터는 매년 10만명 넘게 불어났다. 피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파괴된 집을 보수했고, 정부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어주었지만 서울의 주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1955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늘어난 서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세워진 공영주택은 자금 출처 및 건축목적별로 부흥주택 · 재건주택 · 시범주택 · ICA주택 등 그 명칭도 다양했다. 공영주택은 주로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들어섰다. 성북구의 정릉동과 안암동이 대표적이었으며 서대문구 창천동, 홍제동, 행촌동,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성동구의 행당동 등에도 공영주택이 들어섰다. 한적한 촌락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택이 들어서자 버스 노선이 신설되었고 상하수도가 들어



정릉동 재건주택의 모습(1957)

갔다. 이에 따라 주변 산등성이에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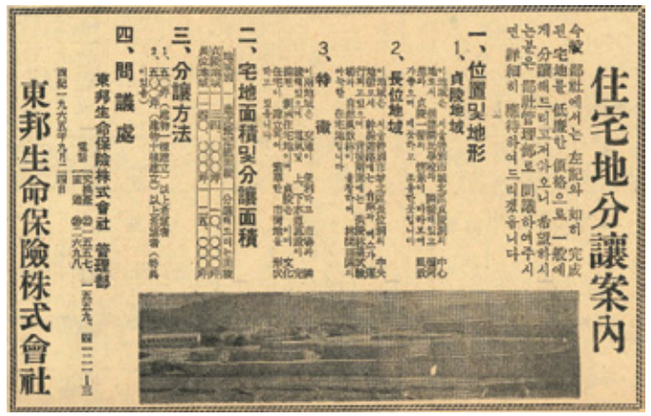
1950년대에 세워진 공영주택은 일제강점기 유행했던 개량한옥의 양식보다는 새롭게 고안한 주택양식으로 지어졌다. 부엌과 화장실 이용에 편리성을 더하고 침실과 거실을 분리한 서구의 주택양식을 따랐다.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된 새로운 주택양식은 곧 일반화되어 1960~70년대를 풍미하였다. 정릉동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 몇 군데 남아 있다.

정릉2동에 살고 있는 이종철 씨(이회영과 이은숙의 손자)는 어린 시절 공영주택을 짓는 데 고용된 인부들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맨 처음에 정릉 여기는 전부 산이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데는 저 비탈, 길음시장 앞쪽 지금 정릉 1동에 집이 있었어. 거기 집들도 여기 AID차관으로 지은 집들이랑 비슷해. 거기서 태어나서 장교동에 있는 외할아버지집에 한 2년인가 살다가 61년쯤에 여기로 이사왔어. 요 근처에만 50가구 있었어. 요 앞에 보이는 집들을 동방주택이라 그래요. 2층 슬라브집들 쫙 있는거. 그거는 삼성에서 개발한 거야. 동방주택은 그 당시에 부촌이었어. 지금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첨부터 2층 슬라브집에 대지가 200~300평 되는 저택들이 개발된 지역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산을 다 깎는 것을 봤지. 산 깎는 거 보면 불도저 가지고 산을 왼종일 깎아. 요새는 평탄작업 하는데 불도저, 포크레인만 가지고 미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이 했어. 동방주택 올라오는 길 있잖아. 그 길 저쪽은 삼양동 쪽 산동네야, 요즘말로는 달동네지.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었어. 거지들이 많았지. (동방주택 짓는) 인부들이 다 거기 사람이야. 철도레일을 이렇게 놔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서 죽 밀고 와. 여자들은 바구니에다가 돌멩이 쪼 거 들고가서 붓고. 한쪽에서는 바위에 구멍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걸 우리가 구경했지."

— 이종철 구술증언(2013년 9월, 정릉2동)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영주택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위해서도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가 부유층을 위한 집단 주거 양식이듯이 말이다. 그래서 한때 정릉동은 오늘날 성북동이


住宅地分譲案内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주택지 분양안내 광고(『동아일보』 1965. 9. 24). 동방주택은 당시 고급주택으로 유명했다.



정릉4동 동방주택의 최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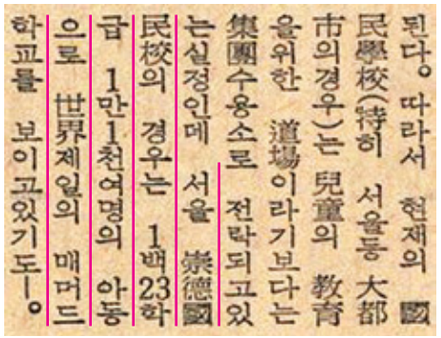
나 평창동이 그런 것처럼 고급주택단지로 부상해 많은 저명 인사들이 옮겨와 살기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릉동의 새 주택단지를 지은 사람들은 공사장 부근 산동네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교통이나 수도시

설 때문만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주택들이 들어서는 땅 옆으로 이사를 와야 했던 것이다. 당시 맨손으로 철도레일을 밀면서 정릉동의 반듯한 터전을 만들어주었던 일꾼들의 노고가 사진 속 축대의 세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영주택 건설로 정릉동의 풍경은 해가 다르게 변해 갔다. 1965년경에 이르면 정릉동은, 과장된 면이 없진 않겠지만 동아일보 광고에서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시장과 인접해있으며 간선도로에는 합승과 뻐스가 운행되고',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신흥주택지'가 되어 번화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정릉동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숭덕초등학교가 '세계 최대의 초등학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당시 숭덕초등학교는 123학급에 1만 1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릉 참봉을 지낸 서재국徐載國(1892~1978)의 아드님으로 1955년 정릉 재실에서 태어난 서완석 씨도 숭덕초등학교에 다녔는데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3부제 수업을 실시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당시는 정릉천이 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정릉천이 불어나면 정릉천 남쪽에 사는 아이들은 등교도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독 숭덕초등학교만 학생 수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서울 중간 변두리의 신흥주택지에 설립된 초등학교들 대부분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100학급이 넘는 초등학교들로는 숭덕을 비롯해 창신(109), 전농(116), 홍파(114), 장충(114), 청구(108), 무학(101), 동명(114), 금호(108), 돈암(104), 미동(101), 은로(100) 초등학교 등 12개교가 있었다(괄호 안은 학급수). 정부와 서울시가 초등학교를 더 짓고 강남 개발에 착수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급과밀 현상은 조금씩 완화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가 일약 '세계최대 초등학교'라는 어울리지 않은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1960년대 전국적인 이농향도에 뒤따른 서울 동부 지역의 인구폭발, 주택폭발 현상에 전후 한국의 교육열이 겹쳐져 발생한 시대적 증후였다.


된다。따라서 현재의 國民學校(特히 서울등 大都市의경우)는 兒童의 教育을위한 道場이라기보다는 集團수용소로 전락되고있는실정인데 서울 崇德國民校의 경우는 1백23학급 1만1천여명의 아동으로 世界제일의 매머드학교를 보이고있기도。

당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한 기사 중 숭덕초등학교의 학급, 학생수를 예로 든 부분(『동아일보』1967. 4. 12).



숭덕초등학교(중앙 ㄷ자 모양)와 주변의 주택지대(1990).



북악산로에서 본 정릉동(2013).

교수단지와 북악스카이웨이, 그리고 스카이아파트

1960년대 정릉동을 비롯해 돈암동, 길음동 등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정릉고개와 정릉 입구 사이의 산비탈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임야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정릉 능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방 후에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동안 주택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한여름이면 서울 시민들이 가까운 이곳 숲을 찾아 더위를 식혔고 동네 아이들은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1960년대 후반까지 정릉 재실에 살았던 서완석 씨는 당시 풍경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홍천사에서 (정릉) 넘어오는 길이 완전 숲속길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야 되니까,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와야 해요. 그러면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돈암동에 내려서 홍천사 길을 넘어와야 했어요. 그때는 산길, 숲속이어서 무서워요. 나무가 빽빽하니 밤에는 여우 우는 소리도 나고 뭐, 아주 뭐 늑대 소리도 난다고 그랬어. 그렇게 숲이 우거졌고. 그다음에 아리랑시장에서 정릉 올라오는



서완석 씨가 어릴 때 정릉 앞 개울에서 찍은 사진.
지금도 이 개울은 정릉 정자각 앞을 흘러가고 있으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수량이 많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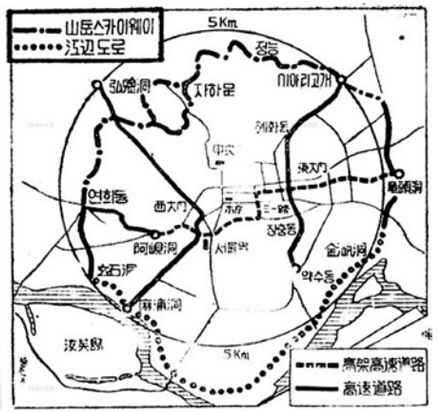
길도, 마지막 집이 그 보국사. 보국사가 오래된 집이에요. 그 집 하나 있고 밑에 삼거리 있는데 집이 있었고. 그 위쪽에는 집이 없었죠. 보국사가 마지막 집이에요."

— 서완석 구술증언(2013년 11월, 명동)

숲이 우거지고 '여우소리'가 들려왔던 정릉 주변의 임야가 민간에 불하된 것은 1965년 무렵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의 토지 불하 소식을 접한 당시 서울대 교직원들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불하받고 이를 '교수단지敎授團地'(대학교 교직원 주택단지)로 개발했다. 민간에서 조합이 결성되어 주택단지를 개발한 첫 사례였다. 정릉동 559번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조합원들은 곧 집터를 닦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진도 참여함으로써 산비탈에 층층이 들어선 축대는 어느 곳보다도 튼튼히 시공되었다. 당시 서울 변두리에 우후죽순 세워진 여느 공영주택단지와 마찬가지로 색색깔 지붕을 뽐내는 신식 주택이 즐비한 마을 하나가 이곳에도 뚝딱 들어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일어난 돌발사태는 교수단지 개발에 잠시 제동을 걸었다. 바로 1.21사태였다.



호경암의 1.21사태 당시 총탄 자국.
현재는 바위 아래로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가 나 있다.



「환상도로」계획도(『경향신문』 1968. 9. 25). 바로 위에 '관광개발 큰 구실, 교통난 · 변두리 개발도 한몫 해결'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남파한 무장간첩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으로, 군과 경찰은 김신조를 생포하고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수색전을 전개해 도주한 2명을 제외한 게릴라 28명을 사살함으로써 마침내 동월 31일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이 이처럼 쉽게 북한 무장간첩에게 뚫려다는 소식은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朴正熙(1917~1979)였다. 박정희는 이 사건 후 서울의 도시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주택건설에서 수도 방비로 도시계획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무장간첩의 침투로였던 북악산에 집중적으로 부대와 초소를 배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 시내와 외곽에는 고가도로, 순환도로를 대거 건설함으로써 청와대를 원점으로 한 원 모양의 서울 도



성북문화원 옥상에서 본 북악스카이웨이. 맨 앞쪽에 보이는 산이 북악산의 능선상에 위치한 구준봉으로, 북악스카이웨이는 이 능선을 따라 개통되었다. 능선 왼쪽에 북악팔각정이 보이며 멀리 북한산 형제봉과 보현봉도 보인다.

심을 이들 자동차 도로가 감싸게 했다. 당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현옥金玄玉(1926~1997) 서울시장은 이러한 도로건설계획을 가차 없이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서울에는 1.21사태 후 2년만인 1970년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북악산과 정릉, 동쪽으로 용두동, 남쪽으로 용산, 서쪽으로 연희동을 잇는 총연장 40km가 넘는 환상環狀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1970년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고작 12만 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때 건설된 환상도로의 용도가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군 게릴라 침투나 전쟁에 대비한 군사용 도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러한 외곽순환도로의 군사적 용도는 정부나 서울시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바였다.

> 31명의 북괴무장공비들에게 수도서울의 '허'를 찔렸던 「1.21」 사태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의 자각과 군의 노력으로 그 '허'를 겹겹으로 다져가며 수도방위는 철통같이 굳어졌다. 수도경비사등이 지키고 있는 수도권 북방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곁들여진 철책이 물샐틈없이 쳐졌고 그 뒤엔 산병호와 순찰로가 엇갈려 이제 무장공비들의 침투는 어림도 없게 되었다. 또한 북악을 가로지르는 스카이웨이도 평시에는 시원스런 관광지로 되가지만 은밀한 침투를 꾀하는 공비들에게는 험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외곽 요소요소에는 검문소와 초소가 증설되었고 무장공비의 대거 침투에 대비,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축된 진지들은 웬만한 포탄에는 끄떡도 않는 영구요새로 화해 수도관 방어는 문자 그대로 '철옹성'이 되었다(하략).
>
> —『동아일보』 1970. 1. 21, 「수도방위 이상없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서울 도심 외곽순환도로의 북편을 맡은 자동차 도로로서 미아리고개와 창의문까지 북악산을 따라 연결하게끔 설계되었다. 1968년 무렵 박여병 씨는 한창 교수단지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악스카이웨이(현 북악산로) 건설공사에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현 수도방위사령부)가 관여하고 있어서 주택 건축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가 아닌 수도경비사령부 측과 협의해야만 했다고 한다. 현재 교수단지 옆을 통과하는 북악스카이웨이의 고도와 교수단지 주택의 지붕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것은 북악산과 북악스카이웨이 주변에 들어선 초소와 진지의 감시망과 사각射角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일대 주택의 고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박여병 구술증언). 1976년에 교수단지에 집터를 사서 들어온 고 손영을 장군도 주택을 짓는 데 애를 먹었다. 다음은 손장군의 아드님 손성수 씨의 기억이다.



북악산로에서 본 교수단지



교수단지 축대와 담장. 아래 축대와 위쪽의 벽돌담은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어졌다. 시대가 만들어 낸 '단층'이라 할 만하다.

"이 터가 원래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땅이었어요. 저희 원래 집은 성북동 쪽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구청 가서 문의를 하니까 건축허가 다 나온다고 건축설계를 집어넣었더니 구청에서는 된다 이거죠. 근데 수경사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여기 산꼭대기 여기가 높은데 정릉 이쪽 능선에 기관총 초소가 설정되어 있어서 집이 들어서면 저쪽(북쪽)이 안 보인다고 건축허가를 안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친이 군대 쪽으로 잘 아시고 그러니까 수경사령관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4.5m 이상으로 안 짓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집하고 요 앞에 몇 군데가 허가가 난거죠. 그래서 억지로 지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수경사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땅을 판 분도 하다가하다가 안돼서 아무 얘기 안하고 넘기고, 아무 얘기 안하고 넘기고 하다가 저희가 산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닥치니까, 우리 부친이 수령사령관하고 잘 아시고 이래서 최저고도로 해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 손성수 구술증언(2013년 11월, 정릉2동)

이러한 주변의 어수선한 상황 때문인지 교수단지에는 대지만 매입해놓고 건물은 짓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예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손을 뗀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서울이고 정릉의 푸른 숲과 맑은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시한 조감도 (2010)



2010년부터 교수단지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에서는 대문 앞에 화분을 달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공기가 좋았기에 이를 좇아 매년 여기에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어서 빈 대지들은 점차 집들로 꾸역꾸역 메워졌다.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야트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오늘날 교수단지의 경관은 그렇게 1980년대 후반까지 천천히 이루어졌다.

2008년 10월 조용하던 교수단지에 소란이 더해졌다. 정릉2동 506-50번지 일대가 정릉 6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되었고 이듬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났다. 2010년 1월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7층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16개동 710세대가 들어선다는 재건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재건축 소식을 접한 마을은 두 파로 갈렸다. 찬성하는 편에서는 '정릉2동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했고 반대편에서는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해 재건축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1년 1월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신청을 보류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2013년 12월 현재까지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지나간 마을은 교수단지만이 아니었다. 교수단지는 주택이 들어서기 전이어서 기껏 고도제한을 받았을 뿐이지만, 정릉3동 배밭골의 앞산을 가로질러 가는 북악스카이웨이는 오래 전부터 이곳 산비탈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빈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1.21사태라는 연초의 충격적 사건이 1월 31일에 종결되고 열흘 뒤인 2월 9일 서울시는 '스카이웨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일은 2월 21일이었다. 가파른 경사에 암반으로 이루어진 북악산의 허리를 무너 8km가 넘는 자동차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불과 10일 만에 작성되었고 또 계획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착공에 들어갔던 것이다. 놀랍다 못해 광포한 속도였다. 뒤따라 도로가 들어설 주변의 무허가 주택의 철거 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쪽에서 가장 곤란해 했던 것은 성북동 뒤편의 구준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들어선 무허가 주택이었다. 신설 예정 도로는 성북동 산25번지 및 산18번지 일대와 정릉3동 산87-1번지 및 산1번지 일대에 들어선 판자촌 사이를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성북구청은 4월 25일과 26일에 배밭골과 성북동 판자촌에 계고장을 보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살던 집을 스스로 허물도록 강요받은 주민들은 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데모를 벌여 거세게 저항했다. 이와 더불어 철거대책위는 성북구청 및 서울시청 공무원 32명, 경찰관 12명 등이 5년 전부터 1967년 12월까지 정릉동 산87-1 무허가 판자촌 주민

들에게 집을 헐겠다고 위협하면서 수백 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배밭골 주민들은 무허가 판잣집이나마 정부의 약속대로 곧 양성화되어 떳떳이 살 날을 기다리며 꼬박꼬박 보이지 않은 '세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바쳤던 것인데 좋은 소식은커녕 난데없는 자진철거 계고장이 날아든 것이다. 이러한 항의와 폭로에도 불구하고 연일 성북구청 철거반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급기야 5월 11일에는 철거반과 배밭골 주민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져 주민 12명이 머리가 깨져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동아일보』 1968. 5. 11, 「주민경찰투석전」). 사태가 점점 불리해지자 철거대책위는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일간지에 실어 철거의 억울함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에 이르렀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조국근대화과정에 진력하시는 귀하의 건강과 대서울 건설에 노고하시는 귀하의 영달을 축원합니다. 호소인은 성북구 정릉3동 배밭골 철거민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호소문을 귀하에게 올려서 저희들의 안식처가 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귀하에게 듣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설 때 관계관에게 금품이 수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년간 재산세를 징수했고 양성화 운운하다가 계몽도 대책도 없이 무자비한 철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철거반이란 이름의 폭력배를 고용(?)하여 철거민을 상해할 수 있습니까? 건물철거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건물 내의 가축, 가구가 파괴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깡패로 편성된 철거반에 의해 건물 가구 등이 멸렬되어 안식처는 상실됐고 생존권이 말살됐습니다. 저희들 처자식은 풍찬노숙을 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귀하의 동정도 지원도 못 받는다면 이곳에 스스로 묻힐 결심을 했습니다.

순환도로공사가 중단된채 스카이웨이의 신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이룩됐다면 이에 수반한 사회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산87-1 및 산1 배밭골주민총회대표)

—『경향신문』 1968. 5. 18, 「서울특별시장 귀하-건설 위해 안식처 뺏지 말라」.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는 중단될 줄 몰랐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같은 해 6월 13일 철거반을 보내 배밭골 판잣집 360여 동을 모두 강제철거했다. 다음날 일간지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말썽 많던 정릉동 산87-1 일대 속칭 배밭골의 불량건물 360여 동을 13일 완전정리했다'는 기사가 승전보처럼 나갔다.

그렇다고 배밭골 주민들이 마냥 진 것만은 아니었다. 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서울시는 판자집 철거 후 '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같은 지역 내에 주민 공동으로 영구적이고 현대적인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순조로운 철거 작업을 위한 당국의 주민회유책이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오


住民·警察投石戰
정릉山無許철거 26명이 重輕傷


서울特別市長貴下
建設위해 안식처 뺏지말라

『동아일보』 1968. 5. 11(좌).
『경향신문』 1968. 5. 18(우).

늘날까지 배밭골 한가운데 남아 있는 '스카이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처음 준공되었을 때 이름은 '스카이웨이아파트'였던 것 같다. 북악스카이웨이 건설과 함께 부수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내력이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스카이 아파트를 짓는 데 걸린 기간이다. 정릉3동 산87-1번지 일대 판자집들을 철거하고 한 달 여만인 7월 23일에 착공한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0일에 준공식과 입주식을 가졌다. 대지 3370평에 연건평이 9동 2530평이나 되는 규모에 253가구가 입주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고작 6개월도 못되어 완공을 본 것이다. 이 또한 놀랍지만 같은 해 9월 28일 세검정~미아리고개를 잇는 북악스카이웨이도 단 6개월만에 개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와 김현옥이 '다스리던' 서울에서 이런 짧은 공사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동아일보』 1968. 12. 30, 「스카이웨이아파트 9동 완공 입주」.

완공 당시 9호동까지 있었던 스카이아파트는 그동안 5개 동이 철거되었고 2013년 12월 현재 4개 동만 남아 있다. 1968년 253가구가 입주했던 아파트에는 이제 25가구만이 남아 있고, 그나마 남은 아파트도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담당부서인 성북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거주자의 이주를 권고하고 아파트에 지지대를 덧대거나 시멘트가 탈락된 곳을 보수하면서 붕괴를 막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정릉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지만 배밭골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서 재개발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오마이뉴스』 2013. 1 25, 「이런 곳에 사람이 살다니……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조선의 정조 연간 손가정 사람들과 강릉 김씨 가문 사이의 토지 분쟁. 그리고 1960년대 배밭골 판자촌 사람들과 철거반과의 투석전. 200년이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사건이지만 외부의 권력이 비집고 들어와 정릉동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밀어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큰 차이점도 있다. 바로 갈등 국면에서 취한 국가의 위치와 역할이

다. 조선 후기 손가정과 강릉 김씨 가문이 충돌할 때 국왕 정조로 대표되는 국가는 어디까지나 조정자 역할에 머물 따름이었다. 이때 국가는 손가정 사람들의 '무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선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었다. 그러나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건설을 위해 배밭골의 판자촌 사람들에게 국가는 강력한 권력을 업은 '길손'으로 등장했다. 반공과 안보라는 '절대적 가치' 아래에서 북악산 비탈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과 내일의 희망까지 내어주어야만 했다. 이들은 국가와 대결해야 했으므로 어디에서 달리 조정자를 찾을 수도 없었다. 오직 맨손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싸워야만 했던 그들이다. 그렇게 하여 얻어낸 성과가 '스카이아파트'라는 것이었지만 그 곳에서의 생활 조건은 예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이었다. 날림으로 지은 부실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일상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어쩌면 배밭골 판자촌의 사람들은 비록 판잣집에 더 오래 살았을지 몰라도 조금씩 천천히 긴 시간을 두고 안정된 생활과 반듯한 집을 마련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도 북악스카이웨이는 서울 시민들에게 드라이브 코스와 산책길로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서울 시내와 북한산의 경치를 양 옆으로 한꺼번에 조망하며 올라가는 숲길은 언제 가더라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길이 만들어질 때 벌어졌던 주민과 국가 사이의 악다구니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다. 그러나 이 길을 지날 때 한 번 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지나간 옛 일인가, 혹시 이 길과 같은 것이 이 땅 어디에선가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고 말이다.





스카이아파트의 최근 모습

정릉동을 걷는 재미

지금 만일 서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에게 딱 하루의 휴가가 주어져서 아무데로나 자유롭게 나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행선지로 정릉동을 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없을 것이다. 이유야 분명하다. 100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릉동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대도시 서울의 한복판이기 때문이다. 명동이나 강남처럼 번화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곳보다도 좁은 도로와 골목에 가득찬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은 정릉동 뿐 아니라 서울의 중간 변두리 주택지의 공통된 경관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정릉동이든 홍제동이든 신길동이든 서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 이른바 '베드타운bed town'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동네마다 가진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는 이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속에 묻혀 맨눈으로 그것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동네에다 다시 오지 않을 하루치의 자유를 갖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맑고 트이고 게다가 역사의 향기까지 철철 흐르는 장소—이런 곳을 보통 명소라고 부른다—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마땅히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



정릉동 한복판을 가로질러가는 내부순환로는 1998년 개통되었다.

굳이 정릉동을 방문하고 싶다면 긴 휴가의 마지막 날이 좋을 것이다. 멀리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다시 출근하려면 두통이 여간 심하지 않을 것이니 휴가와 복귀 사이에 하루의 완충 기간을 두어 잠시 서울 공기에 적응도 하면서 마음도 새롭게 할 겸 정릉동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10시쯤 집을 나서서 한나절 가량 무작정 정릉동 이곳 저곳을 다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걷다 보면 긴 여행의 후유증과 그에 동반한 두통은 저만치 물러날 것이다.

먼저 정릉천을 따라 걸어보자. 최근 정비 공사를 마친 정릉천에는 물길을 따라 걷기 편한 산책로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들쑥날쑥하게 자동차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천변의 골목길을 걷다 길을 잃기도 했을



정릉천의 바위와 물



정릉약수. 아래에 보이는 자그마한 철제 문을 열고 샘물을 떠야 한다.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아래쪽 정릉시장부터 멀리 경국사 위쪽까지 오직 걷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복고풍의 아늑한 골목길을 만나는 행운은 바랄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을 따라 바위 틈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물소리는 온갖 소음에 지친 귀를 잠시나마 쉬게 해 줄 것이다. 만일 정릉천을 방문한 때가 7, 8월의 맑은 날이라면 경국사를 지나서 피오레아파트 단지 부근 시멘트 다리 아래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한 떼의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면 잠시 체면 따위는 놔두고 냉큼 물 속에 들어가보는 것도 좋다. 정릉천 맑은 물 속에 들어가 노는 재미는 한강 둔치 풀장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왁자지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그곳에서는 유난히 평화롭고 아득하게 들린다.

정릉천이 산뜻한 산책로와 물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정릉약수'는 그 맛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정릉약수 또는 정심약수라고도 하는 약수는 정릉동의 오랜 자랑거리로 그 맛이 일품이다. 돈암동 흥천사나 정릉2동 주민센터에서 10여 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으면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이 나오는데 약수터는 능 안쪽 매점 옆에 있다. 사실 예전 정릉약수는 맛보다는 그 병 고치는 효험으로 더 유명했다. 일제강점기 시인 임화林和(1908~1953)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여름 피서차 정릉에 놀러 갔던 것을 회상하며 쓴 짧은 글에서 '정릉의 약수로 머리

를 감으면 풍을 제하고 한 해라도 빠지면 풍이 도진다'고 하는 어머니와 동네 부인들의 믿음에 관해 적었다(『동아일보』 1936. 6 28, 「정릉리의 계곡」). 또한 1954년부터 1961년 별세하기까지 정릉동 재건주택에 들어와 살던 소설가 계용묵桂鎔默(1904~1961)도 정릉약수를 지키던 '물할머니'의 이야기를 짧은 수필 속에 적고 있다.

> 이 개천을 끼고 한 발자국만 산으로 더 내디디면 약수가 또 있다. 약수라도 신선한 새벽물은 더 효험이 있으리라. 해도 뜨기 전 자욱한 안개 속에 모여드는 수객水客들, 이 수객들이 모여들면 물할머니의 푸념이 정성스럽게도 그들의 건강을 빌어 준다.
>
> 이 물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신령이 내리어 이 약수를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 백발이 흩나는 오늘까지 하루도 쉬임없이 연일 연성으로 수객들의 건강을 위하여 빈다. 이 물로 병을 낫게 하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라고 산신에게 빌고 또 강씨마마(신덕왕후)와 이 약수터 너머의 봉국사 보살에게도 빈다.
>
> — 계용묵, 「내가 사는 주변(원제 : 물할머니의 푸념소리)」, 『계용묵 전집 2』, 민음사, 2004, 183쪽.

이렇듯 서울 사람들의 한 해 건강을 책임졌던 든든한 정릉약수. 그 약수가 지금도 도심 한 켠에 남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비록 지금은 예전처럼 몸이나 머리를 씻을 환경은 못 되지만 약숫물을 한 바가지 가득 떠서 들이키면 매연과 미세먼지에 시달린 오장육부가 말끔히 씻길 것이다. 정릉에는 정릉약수가 있음을 명심하자.





(좌) 정릉3동의 한 골목.
같은 오르막길인데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
(우) 정릉3동에서 내려다 본 정릉동 풍경.
멀리 서경대학교와 길음동 뉴타운이 보인다.

오래된 마을들의 골목들도 좋은 산책로이다. 정릉천 우안의 손가정, 흥천사와 정릉 사이의 교수단지, 국민대 앞 배밭골의 굽은 골목길과 나지막한 언덕들은 도보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코스이다.

손가정에서 손씨 명패가 걸린 집들과 골목 곳곳의 우람한 나무들 옆을 걷다보면 정릉동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속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된다.

흥천사와 정릉을 오가면서 지나치는 교수단지의 호젓한 골목에서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다. 특히 지붕들 사이로 언뜻언뜻 나타나는 북한산의 능선과 봉우리들은 걷는 맛을 더해 준다.

국민대 앞 배밭골로 들어가서 골목을 따라 북악산 쪽으로 올라가 보는 것도 좋다. 배밭골은 정릉동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라 조금만 올라가도 금세 강원도 어느 산골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

로 자연의 냄새가 짙다. 이렇게 배밭골에서 뜻하지 않는 자연과 만날 때에는 지난날 배밭골의 아픈 사연을 꺼내보지 않아도 좋다. 잠시 박재삼朴在森(1933~1997)의 시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더 제격이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에 시달렸던 시인이 1968년 병세를 회복한 후 쓴 「정릉貞陵 살면서」란 시에는 배밭골의 맑고 고요한 정취가 오롯이 담겨 있다.

정릉 살면서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 와서는
그 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갛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이 눈물 나게 넘치는 자산만은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박재삼시집』, 범우사, 2001, 32쪽.

이렇게 정릉동의 물길과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금세 해는 기운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직 체력이 남아 있다면 어둑어둑해진 정릉동의 절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흥천사, 봉국사, 경국사는 비록 아파트 단지와 큰 자동차 도로 옆에 있지만 신기하게도 경내에 들어서면 모든 소음들이 차단된다. 산사가 아닌 도시 사찰만이 자아낼 수 있는 독특한 운치이다. 이 때 절의 경내는 하루 종일 골목길을 걸어 온 탓에 피로에 절은 '나'를 향해서 열려 있는 비밀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럴 때면 굳이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법당 안 소리 없이 앉아 있는 불상을 향해 합장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긴 여행의 끝에 찍는 마침표처럼.



교수단지 골목에서 보이는 북한산 보현봉의 설경. 자세히 보면 일선사와 북한산성 대성문도 보인다.

수난의 미아리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

미아리는 지금의 성북구 길음동과 하월곡동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북구 돈암동에서 길음교로 넘어가는 길, 즉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미아삼거리를 지나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현재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혜화문惠化門, 즉 동소문東小門 밖의 지점인 삼선평三仙坪을 지나 아리랑고개에서부터 시작하는 지명이 바로 미아리라는 곳이다.

이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옛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1984년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동명연혁고IX(도봉구편)』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미아리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세기경 겸제 정선이 그린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에는 적유현狄踰峴 북쪽 바로 아래에 사아리沙阿里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미아리彌阿

里란 동명은 사아리에서 전음된 것 같다. 즉 전에는 정릉동貞陵洞 지역을 사을한리沙乙閑里라고 칭하였으므로 사아리는 사을한리의 약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아리가 미아리로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록을 의지하여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를 추측해 본다면 본래 미아리라는 곳은 적유현狄踰峴, 즉 '되넘이고개'의 북쪽 지방을 뜻한 곳으로 추정된다. '되넘이고개'라는 의미는 병자호란 당시 '되놈', 즉 오랑캐가 넘어온 곳이라는 의미로서 돈암동 일대에 자리잡은 아리랑고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현재 행정구역상의 미아리 이름을 딴 곳은 강북구 미아동이 유일하지만 역사적으로 미아리를 지칭하는 공간은 앞서 이야기 하였듯 성북구 길음동, 하월곡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미아리라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지방제도상의 커다란 변천이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 이후였다. 당시 미아리는 한성부 동부 숭신방 동소문외계 미아리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1911년 4월 일제는 서울의 행정구역을 도성안은 5부, 도성 밖은 8개 명으로 나눈 후 혜화문을 기점으로 도성 안쪽은 숭신방, 도성 밖은 숭신면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1914년 경기도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이 새로 제정될 때 미아리는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가 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미아리라 지칭되는 배경 이 되었다.

본래 미아리 일대의 거주 인구는 100호 정도로서 한 호戶 당 5명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500명 정도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앞서의 갑오개혁 이후 서울의 발전과정 속에서 대거 인구 유입이 있었다. 1936년 일제 경성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1936년 1만 명을 상회



1920년대
혜화문(惠化門)

했고, 1937년부터 진행된 돈암정 구획정리사업의 완공으로 더 많은 인구가 미아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아리랑고개를 넘기 전, 즉 지금의 성신여대입구 역 부근에는 당시 전차 종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아리 지역에 대거 인구가 유입되는 한 원인이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매일신보』에 의하면 1943년 미아리, 정릉리, 월곡리에는 총호수가 6천호, 인구가 6만 명이나 되고, 매일4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곤 했다고 한다. 이곳으로 몰려든 이유는 주택신축이 자유롭고, 집세도 싼 편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생활은 농업이나 축산업보다는 대개 서울 안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일제강점기의 미아리

앞서 언급하였듯 갑오개혁 및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술국치 이후에도 서울의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서울 시내에 대두되었던 것이 공동묘지 문제였다. 본래 서울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이태원 등지에 시신의 매장이 집중되는 편이었는데 1910년 무렵부터 그 수용 능력에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제 당국에서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동묘지들은 도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의 주변부로 옮기고자 하였다. 1913년 일제 당국에서 지정한 신설 공동묘지의 지역을 참고한다면 현재의 강북구 오패산 일대와 함께 길음동 일대가 모두 공동묘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길음동 일대의 공동묘지는 현재 길음 3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공동묘지의 입구는 현재 길음 119 안전센터 자리였고 삼양동 산을 중심으로 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독부 당국에서는 아예 미아리 일대를 공동묘지 지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과 가깝고 접근성도 좋으며 아울러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 바로 미아리였기 때문이었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1940년에 신사리, 망우리 공동묘지 확장공사를 완료시키고 아울러 미아리 공동묘지 역시 확장시켜 서울의 공동묘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말했듯 당시 미아리 지역은 서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에 거주민의 수는 많았으며 이들은 공동묘지가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미아리 주민들은 1943년 총독부 당국에 진정서까지 내면서 공동묘지 및 그에 딸린 화장장의 이전을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미아리는 서울 동부의 신설주택지구인 돈암동과 언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또한 주거 환경이 무척이나 조밀함에도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위생상으로나 동네 미관상 좋지 않기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다. 1943년이라면 태평양전쟁이 격렬했던 시기로서 총독부 당국의 조선인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그만큼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는 총독부 당국으로 하여금 길음동 일대 화장장 설치를 철회시켰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 미아리 지역은 계속 공동묘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일제시기의 미아리고개는 삶과 죽음이 나뉘게 되는 공간으로도 인식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미아리고개를 넘으면 고인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 슬퍼 상주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애잔하게 울었다고 전한다. 이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장마 때가 되면 씻겨나는 흙 속에서 끔찍한 송장들이 드러나거나 또 주택가가 인접한 탓에 공동묘지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또한 그곳으로 통하는 길목은 흡사 관곽과 장의용품을 전시하는 가두 전시장처럼 되어버렸기에 지역 주민들은 공동묘지의 존재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비록 주민들은 총독부 당국의 공동묘지 확대안을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공동묘지가 즐비한 동네라는 미아리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는 못 했다. 당시 일제 당국은 지역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앞서의 공동묘지 확대 철



한국전쟁 당시
미아리고개

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었겠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던 총독부 당국의 일시 계획 보류도 한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미아리는 한동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네로 인식되었다. 거대하게 조성된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장례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거주하기도 했으며, 서울 시내를 출퇴근 하고자 전차 종점이 위치하였다는 지역적 이점으로 이사해 온 사람도 있었다. 오후의 한가한 시간에는 무덤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흔하게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출퇴근하는 사람과 공동묘지로 향하는 장례행렬이 빈번하게 마주치는 동네로서 미아리는 해방 직후까지도 그렇게 인식되었다. 지금도 자주 불려지는 노래인 '단장斷腸의 미아리고개'는 어쩌면 이때부터 이름붙여진 미아리의 별명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 지역: 해방 이후 미아리

앞서 이야기했듯 미아리 지역의 발전은 총독부 당국의 시책으로 좌절되었다. 이는 일제 당국이 조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 컸다. 따라서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미아리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앞서 지역 주민에게 골칫거리였던 미아리 공동묘지는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 4월에 이르러 이전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바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미아리가 또 다른 수난의 역사를 맞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당시 서울의 외곽지역에는 묘지나 유곽, 화장장 부근, 강바닥이나 다리 밑, 하천변, 성벽 옆, 언덕 밑 임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허가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다. 동대문 밖 안암천, 정릉천 등의 하천부지에는 무려 1,238호에 달하는 토막이 밀집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 서울로 밀려드는 피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열악하나마 임시로 전쟁유출물자인 목판, 아연철판, 아스팔트 루핑, 미군이 쓰던 가병사 퀀셀 등을 사용하여 판자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당시 미아리는 구로구 번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피난민 정착촌이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난민정착사업을 위해 미아리 공동묘지 이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미아리는 공동묘지와 피난민촌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변모해버렸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 피난민의 정착자로서 역할을 하던 미아리

는 다시 경제개발로 인한 대대적인 인구유입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시내의 도시미관을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당국에서 시내의 판자촌을 대대적으로 없앴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때 철거당한 사람들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미아리 일대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196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월곡동 일대에 7,000여 가구로 이루어진 무허가촌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미아리 거주민과 달리 주로 서울 시내에서 철거당해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미아리의 인구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초등학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은 본래 숭인초등학교 한 곳만이 있었는데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신설은 무척 더뎠다. 이주민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숭인초등학교로 자녀들을 통학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숭인초등학교는 하룻밤 자면 학생이 10여 명씩 불어나 1967년 4월 초 무렵에는 총 1백 49학급에 1만 2천 1백 34명의 학생이 다니게 되었다. 이는 동양 최대의 초등학교라는 불명예를 선사했는데 당시 수업 상황을 보면 1학년은 1학급에 거의 1백명으로 3부제 수업, 2학년~5학년이 2부제, 6학년만이 1부제 수업을 했다. 특히 3학년의 경우는 5학년이 정상수업을 마친 뒤 하오 2시 이후부터 5학년 교실서 수업을 하게 되어 '고정 2부'란 별명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인구유입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1960~1970년대 길음동, 미아동, 삼양동, 하월곡동에 조금씩이나마 개발이 시도되고는 있었다. 앞서 숭인초등학교의 사례가 나타나던 1960년대에 공영주택 입주 신청, 길음교 확장



1972년 숭인초등학교
새 교사(校舍) 완공식

공사, 미아리고개 도로 개통 등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도 주요 간선 도로의 확장과 미아삼거리 입체 교차로 건설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1970년대에는 앞서 숭인초등학교의 학생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숭곡초등학교를 필두로 각급학교가 신설되기 시작했다.

주거공간도 점차적으로 쾌적화의 길을 걸었다. 1950년대부터 정릉천 일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매연, 공해 업소는 80년대 이르러서는 서울시 밖으로 대거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다수는 현재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상태다. 아울러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릉천 복개공사는 미아리 지역의 주거지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1985년 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길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또다시 그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발시대의 그림자: 점집과 미아리 텍사스

1960년대부터 서울은 도시화 바람이 거셌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김현옥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건설을 계기로 서울시 도시재개발 계획을 설정하고 종로지역을 표준거리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 무렵 서울 시내에서, 특히 종로지역에서 미아리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급증한 것 역시도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미아리는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위치하는 동네였다. 멀리 일제시대에는 공동묘지, 화장장 등이 설치되었고, 해방이후 및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촌이 주로 들어섰다. 아울러 개발시대에 있어서도 주로 서울 시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미아리에 무허가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룩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미아리 지역에 점집과 집창촌이 건설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미아리 점집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1960년대 서울의 도시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 곳곳에 위치했던 점집들이 이주해온 경우였다. 미아리는 서울의 도심지역과 변두리를 연결해 주는 주요지역이면서도 집값이나 방값이 그리 비싼 지역이 아니었으며, 비탈진 미아리고개를 오르내리는 버스들의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찬 공해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본래부터 적당치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점복과 무속신앙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세상살이가 힘겨운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야 하는 길목에 수요가 많았다. 예전에는 주로 서울의 남산에 위치하였던 점집들은 서울시의 미관을 위해 대거 철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집은 앞서 말한 지리적 이점에 근거하여 미아리 지역에 밀집하게 되었다.



미아리 점집

아울러 1968년에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공창 구실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종로 3가의 집창촌을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조처는 미아리에 집창촌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내의 집창촌은 종로구 낙원동의 납작 술집에서부터 그 일대인 인의동, 돈의동, 봉익동, 훈정동, 묘동, 원남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으로 종로3가에서 원남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4가 로터리에 이르는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속칭 '종삼'으로 불렸던 집창촌은 서울의 노른자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도시질서와 시민도덕을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는 인식과 지역의 이미지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종삼'에는 1,600명의 매춘여성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습적으로 기곳을 철거하였고 이에 매춘

여성들은 대대적으로 서울의 부도심 및 신흥개발지구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조사에 의한다면 '종삼'의 철거 3일전에 이미 많은 매춘여성들은 정릉, 미아리, 상계동, 양동, 전농동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종삼'에 밀집해 있었던 매춘지역은 1971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26개 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월곡천변, 동대문 중화동 420번지, 중랑천변, 영등포구 구로 2동에 특히 밀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하월곡동 88번지, 훗날 '미아리 텍사스'라는 곳은 종삼 철폐 직후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종삼' 철폐 이후 4대문 안의 지속적인 집창촌 정화운동은 매춘여성들을 도시외곽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었는데, 미아리는 서울의 도심과 비교적 가깝고 아울러 각종 인구의 유입이 빈번했던 곳이라 단속이 심하지 않았기에 매춘여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미아리 일대의 집창촌은 처음에 정릉천 개천가를 따라서 500여m에 늘어서 있는 속칭 '하꼬방' 같은 선술집의 형태였다. 1970년에 70여 개 무허가 대포집이 밀집되어 있었고, 1976년에는 30동의 건물에 100여 개의 무허가 주점들이 위치해 있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월곡천 상류부터 진행된 복개공사는 하류 쪽의 정릉천으로 진행해갔고, 천변 좌우로 있던 술집들이 하천 복개로 인하여 종암동 쪽 술집들은 철거되고, 월곡동 쪽으로만 남게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개발이 진행된 길음역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화는 집창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릉천 복개공사가 끝나고 난 후 길음역 10번 출구 쪽으로 1989년 환승주차장이 들어서게



미아리고개 길 확장 전후의 모습

되었다. 지하철 개통과 사람들의 잦은 왕래는 개발에 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 동안 4대문 안의 개발호재로 개발바람에 밀려나있던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다른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집창촌은 급격하게 개발되는 주변지역에 비해 흡사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낡은 건물과 함께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이색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타지사람들이 집창촌의 대명사처럼 미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자연스레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갖도록 만들었다.

사실 서울시내의 미관과 발전 문제는 그에 수반된 부정적인 것들의 도시 외곽으로 이전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미아리 텍사스촌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아리라는 이미지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던 것을

심화시켰다. 일제시대 이래로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곳, 아울러 피난민에 철거민들이 지저분하게 거주하는 동네로서 미아리가 인식되어 왔던 것에서 다시 집창촌의 존재는 미아리라는 이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집창촌은 특히 지역주민에게 골칫거리였는데, 이를테면 집창촌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 어느 학부모는 7살 난 딸아이가 "저기 [집창촌] 언니 공주 옷 입었다"며 자기도 같은 옷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소연했다는 사연은 그 정도가 어땠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미아리의 오늘날: 개발의 미래

2002년 이후 미아리 일대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 지역은 대거 철거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아울러 그간 미아리 주변의 수많은 무허가 건물과 달동네들도 대부분은 개발의 흐름을 타고 없어지거나 대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앞서 언급한 미아리 집창촌도 종암경찰서의 김강자 총경의 노력으로 예전에 비한다면 많이 개선되어 오늘에 이른다.

미아리라는 이름이 현재는 예전과 달리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아리라는 공간은 과거 어렵고 힘든 서민, 아니 서민보다도 처지가 열악한 도시 빈민들이나 사는 곳, 아울러 집창촌과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미아리의 개발은 사실 본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지가 나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통한 타지인의 대거 유입과 함께 원거주자들의 재차 타지 이주의 방식으로 미아리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거주민과 새거주민 간의 암묵적인 갈등 양상은 일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아리 지역을 일궈왔던 도시민들의 공간적 유산은 단순히 잊혀지고 제거되어야 할 기억에 불과한 것일까? 적어도 미아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대로 미아리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미아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미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것임에도 미아리를 터전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고스란히 받아왔다.

미아리는 현재 개발 중이다. 예전에 타지인들로부터 불결하고 더러운 공간으로서의 미아리는 이제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미아리 지역은 감추어야만 하는 부끄러운 삶의 공간은 결코 아니며, 한시라도 재개발을 통해서 공간의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비도덕적 공간이라는 낙인 대신 수십 년 동안 인생의 고비 고비와 함께 해왔던 도시민의 생활문화의 터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그 공간 속에 본래 배태되어 있던 역사성과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3부

의릉 일대


景廟史庫謄錄
春宮時賜賓客閔鎭
閔賓客 案下
謹封
昨於筵間聞我
仁顯王后時事中夜感慕不
能自抑今
舅氏萬里啓行且不遠益
切渭陽之懷玆送柑與
酪粥少表區區之情耳
只此不宣
戊子孟冬念五 東 頓首

의릉의 희로애락

슬픈 경종

사적 제204호로 지정된 의릉(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은 조선 제20대왕인 경종景宗과 그의 두 번째 왕비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의 능이다. 경종은 서른 셋에 왕위에 올라 서른 일곱에 죽었다. 짧은 4년의 재위기간만큼이나 드러난 공적도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지 경종은 27명의 조선 왕 가운데 그 존재감이 가장 약한 왕 중의 한 명이다. 경종의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조선 최고의 '악녀'로 널리 알려진 희빈 장씨이다. 그리고 이복동생이 영조이다. 사극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경종의 비극적인 삶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종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경종과 의릉에 관한 이야기는 이 비극적인 상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마마마, 왜 날 낳으셨나요?

경종의 비극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종의 어머니는 조선 최고의 '악녀'로 잘 알려진 희빈 장씨이다. 희빈 장씨의 본명은 장옥정으로 역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장현의 조카였다. 장옥정은 장현 덕분에 남인의 추천을 받아 대왕대비의 처소에 궁녀로 들어갔다가 숙종의 사랑을 받았다. 1688년 아들 경종을 낳고 희빈의 첩지를 받았다가 인현왕후의 지지기반인 서인들이 몰락하고 인현왕후가 폐출되면서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궁녀가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중전까지 되는 경우는 조선 역사에서 희빈 장씨밖에 없었다. 그만큼 희빈 장씨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경종의 원죄이자 경종에 관한 이야기를 희빈 장씨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희빈 장씨는 타고난 악녀였을까? 사극의 단골 메뉴인 희빈 장씨의 파란만장한 삶은 당대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그 진실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다. 숙종은 장씨의 미모에 농락당해 당파싸움을 일삼은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27명의 조선 왕 중에 영조 다음으로 오랜 기간 통치하며 절대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랑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냉혹한 승부사였다. 숙종 때 치열했던 남인과 서인의 정권교체와 인현왕후의 폐비와 복권, 희빈 장씨의 왕비 책봉과 희빈으로의 강등이 일치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대중에게 각인된 장희빈의 '악녀' 이미지는 당파싸움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던 숙종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도 당쟁의 희생자였다.

희빈 장씨의 삶은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와 자주 비교된다. 두 여인은 후궁의 신분으로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고, 그 덕으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차이 또한 분명하다. 우선 폐비 윤씨는 이른바 왕의 '승은'을 입어 아들을 낳은 후궁이 아니라 왕비와 같이 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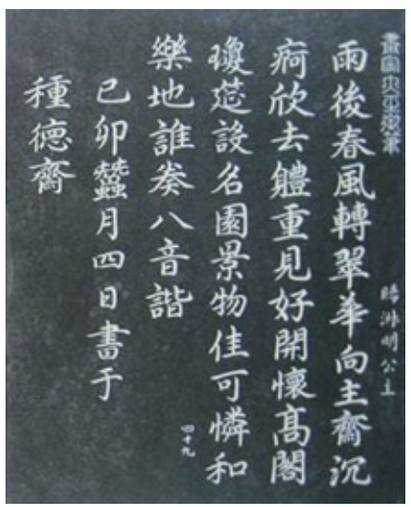
절차를 받아 후궁이 된 간택 후궁 출신이다. 성종보다 나이도 많았다고 한다. 반면 희빈 장씨는 궁녀로 입궁해 왕의 승은을 입어 아들을 낳고 정식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희빈 장씨에게는 인수대비와 같은 모진 시어머니도 없었다.

남편과 아들을 향한 두 여인의 마지막 행동도 극적으로 대비된다. 윤씨는 아들 연산군에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하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복수해줄 것을 기대했다. 대신 남편인 성종에 대한 원망이나 보복은 하지 않았다. 반면 희빈 장씨는 아들에게 복수를 기대한 대신 자신이 직접 복수에 나섰다. 그것도 신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숙종을 상대로 한 복수이다. 일설에 따르면 장희빈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마침내 아들을 만난 장씨는 갑자기 아들 경종의 사타구니를(하초) 잡아당겨 기절시켰고, 그는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경종은 실제로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 때문에 왕위는 그의 배다른 동생인 영조에게 넘어갔다. 숙종과 방식은 달랐지만 희빈 장씨 또한 권력을 위해 아들을 철저하게 이용한 냉혹한 어머니였다.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한 냉혹한 남편 숙종을 향한 분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장차 왕이 될 아들 경종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던 것 같다.

경종을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 숙종

경종을 불행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은 아버지 숙종이었다.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으로 알려진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못지 않게 숙종과 경종 사이도 불행했다. 숙종과 경종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적장자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느 왕보다 왕세자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는 딸 둘을 낳고 숙종 6년(1680)에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인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으나 그녀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 노심초사하던 상황에서 장희빈을 만났고 그녀는 숙종 14년(1688)에 아들 균(경종)을 낳았다. 혼인한지 15년 만에 얻은 첫아들이었다.

숙종은 관례를 깨고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원자를 곧바로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다. 노론 집권층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스물세 살로 아직 젊으니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젊은 숙종은 원로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했고, 끝까지 반대하던 송시열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와 더불어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했고, 그 빈틈은 남인이 매웠다. 그리고 노론 집안에 속하던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남인이 지지



숙종 어필.
숙종25년(1699) 숙명공주에게 준 오언율시이다.

하던 희빈 장씨를 왕후로 책봉했다. 이를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고 한다.

그러나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던가, 숙종의 사랑은 새로 들인 후궁 숙빈 최씨에게 옮겨갔다. 숙빈 최씨는 숙종 19년(1693)에 첫아들을, 이듬 해에는 둘째 아들을 연이어 낳았다. 비록 첫 아들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이 뒷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延礽君이다. 경종과 여섯 살 차이다.

연잉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 해에 숙종은 희빈 장씨를 지지하던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했다. 이를 갑술옥사甲戌獄事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서인의 지지를 받던 폐비 민씨가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숙종은 희빈 장씨를 궁궐 밖으로 내쫓지 않고 별궁인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겨 살도록 했다. 장씨가 궁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세자의 생모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세자는 어머니를 두 분 모시게 되었다. 세자로서는 무척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자는 환궁한 인현왕후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의 예우로 깍듯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 "세자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조석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사모하고 공경함이 사친私親(생모)에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가 그의 사친에게 가서 뵐 때에도 반드시 나에게 고하여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며, 내가 병든 뒤 혹 더욱 위중한 날에는 나한테 감히 '가서 뵙겠습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그 연유를 알고 나서 반드시 가 뵈라고 시킨 후에야 비로소 가 뵈었다."(민진원, 『단암만록』)

이처럼 세자는 성품이 온순하고 효성스러웠다. 그러나 희빈 장씨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다. 왕비 자리를 빼앗긴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심으로 아들에게 심한 매질까지 했다고 한다(민진원, 『단암만록』).

권력과 함께 남편과 자식의 사랑마저 빼앗긴 희빈 장씨는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궁중에는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매일같이 중전이 죽기를 빌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라이벌인 숙빈 최씨를 통해 숙종의 귀에 들어갔다. 숙종은 냉정했다. 세자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자고 한 소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장씨에게 자결을 명했고, 결국 장씨는 사약을 마셨다. 이때 그녀의 나이 마흔세 살이었고, 세자의 나이 열네 살이었다.

경종은 생모인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모함하려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 비극을 직접 목격한다. 열네 살의 사춘기에 어머니의 불행한 죽음을 지켜 본 세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장씨가 죽기 전까지 경종은 총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병약한 체질에 생모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 갔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울화증과 화병이 심해졌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보다 세자를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 숙종의 태도였다. 숙종은 세자를 꾸짖을 때면 죽은 장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장씨가 죽은 뒤로 숙종의 마음은 다른 왕자들에 쏠렸다. 숙빈 최씨 소생인 연잉군을 비롯하여 명빈 박씨가 연령군을 낳자 더 이상 세자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 뒤를 이을 아들도 없고 건강마저 좋지 않았기 때문

에 숙종은 세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말년에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고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빌미로 폐세자를 시키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숙종 43년(1717)에는 노론 영수 이이명李□命(1658~1722)과의 독대를 통해 세자 교체를 논의하기도 했다. 후계 자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숙종이 병으로 사망해 경종은 겨우 왕위에 올랐다.

경종은 어떤 왕이었나?–당파싸움의 희생양

'다병무자多病無子', 곧 병이 많고 자식이 없다는 것이 실록에 기록된 경종의 건강명세서이다. 그렇다면 경종의 병 증세는 어떤 것이었을까?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원은 세자 시절 경종의 병 증세를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세자는 점차 병이 빌미가 되어 때때로 벽을 향하고 앉아서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였다. 혹은 한밤중에 계단과 뜰 사이를 방황하거나 앉아 있었고, 먹고 자는 행동이 매우 이상함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정신도 안정되지 못하였고 지각도 불분명하였다. 또 하체의 기운이 마비되고 약해서 남녀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춘추 30에도 여색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비록 궁녀들과 애들처럼 장난을 하긴 했지만 여색을 가까이 할 뜻이 없었다(민진원. 『단암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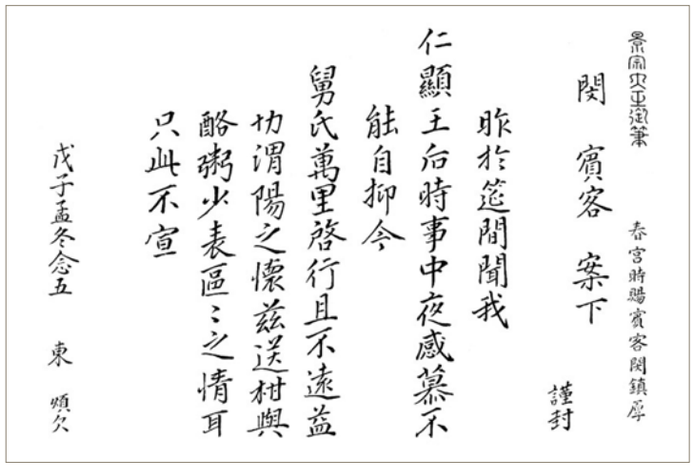
실록에는 경종의 병 증세에 대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상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았다. 해가 지날수록 고질이 됐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경종실록』 4년 8월 2일).

경종은 여러 병으로 고생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다. 현종 때부터 본격화된 당파싸움으로 경종은 세자시절부터 심한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특히 이복동생 연잉군의 탄생과 함께 겪었던 경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상황에서 숙종이 덜컥 사망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까? 뒤를 이을 아들도 없는 경종을 신하들이 가만 둘 리 없었다. 그의 나이 아직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복동생인 연잉군(뒷날 영조)을 왕위를 계승할 '왕세제'로 임명하라는 상소와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이 바로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이다. 노론은 경종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 세력이었다.

경종은 노론의 이런 청을 방어할 힘이 없었다. 병약한데다가 아들이 없는 그로서는 이복동생 연잉군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다. 결국 노론의 힘에 밀려 연잉군을 왕세제로 임명했다. 그러나 노론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연잉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쯤되면 경종더러 아예 왕 노릇을 그만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통이 터질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의 강력한 반발로 대리청정은 무산되었으나 노론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소론의 반격으로 노론 4대



景廟史王謹筆　春宮時賜賓客閱鎮學

閔　賓客　案下　謹封

昨於筵間聞我
仁顯王后時事中夜感慕不
能自抑今
舅氏萬里路行且不遠益
切渭陽之懷茲送柑與
酪粥少表區區之情耳
只此不宣

戊子孟冬念五　東　頓欠

경종 어필

신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노론이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종은 병을 달고 살았던 무능한 군주였을까? 『경종실록』은 경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어린 나이에 일찍 학문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물욕物慾의 누累도 없었다. 불행한 소조所遭에 걸려서 변통하며 지내는 데 지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에 대해 헐뜯고 칭찬함이 전혀 중외中外에 들리는 바가 없으니, 사람들은 모두 신성神聖한 덕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이 쌓여 병을 이루었고 깊어갈수록 더욱 고질화해서, 즉위한 이래로 정사를 다스리는 데 게을리하였고, 조회에 임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며 정사를 여러 아래 신하들에게 맡겼다.

경종은 고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짧은 재위기간으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정치를 그르친 왕은 아니었다.

경종은 독살되었는가?

경종은 1724년 8월 25일 재위 4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항상 병을 달고 살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약한 왕이 죽었는데도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종의 이복동생인 왕세제 연잉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러하다.

8월 경종의 병이 위급해지자 왕세제인 연잉군이 병구완을 총지휘했다. 어의들의 약제가 효험이 없자 대비전에서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 어의들은 게장을 올리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연잉군이 이를 무시하고 경종에게 먹였다. 경종은 게장 덕택에 입맛을 조금 되찾아 수라를 들었으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그날 밤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심하게 했다. 어의들의 처방이 별 효험이 없자 연잉군이 왕의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삼을 올리라고 했다. 이번에도 어의들이 반대했으나 연잉군의 명령으로 인삼을 올렸



영조 어진

다. 경종은 인삼을 복용하고 나서 잠시 기운을 차리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으로서는 당연히 연잉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종이 죽은 뒤에 영조는 끊임없이 경종 독살설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과연 경종은 독살된 것일까?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경종 독살설은 허구이다. 우선 경종의 병세는 연잉군이 권한 게장과 생감을 먹기 전부터 심각한 상태였다. 『경종실록』에는 경종 사망 23일 전인 8월 2일부터 경종의 병환이 매우 심각했다고 적혀 있다.

>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또 한열의 징후가 있었다(8월 2일)
> 밤에 한열이 갑자기 심해지다(8월 3일).
> 설사 기운이 있어서 약방에서 입진하다(8월 7일).
> 한열증이 그치지 않다(8월 8일).
> 한열로 인해 수라 올리는 것을 싫어함이 더욱 심해지다(8월 11일).
> 병이 중하여 침선이 날로 감소되고 소변도 적어지다(8월 16일).
> 밤에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파오다(8월 20일).
> 복통과 설사가 더욱 심해지다(8월 22일).
> 임금의 설사 징후가 그치지 않아 혼미하고 피곤함이 특별히 심해지다(8월 23일).
> 환후가 피곤하고 위태함이 더욱 심하고 맥이 낮아져서 힘이 없었다.
> 의식을 잃자 인삼차를 올리다(8월 24일).
> 환취정에서 승하하다(8월 25일).

이쯤되면 왕의 정치일정을 기록한 실록이라기 보다는 '병상일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록은 건강하던 경종이 어느날 갑자기 사망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동안 병마와 씨름하다 사망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경종의 옆에는 연잉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 최고의 의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잉군이 공개적으로 독살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게장과 인삼이 상극이라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어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삼을 경종에게 먹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만히 두어도 금방 사망할 것이 뻔한 왕을 반대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살할 이유가 있을까? 영조는 총명한 왕이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경종은 평소에 병약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질병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과도한 정치적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 끊임없이 경종의 독살설이 제기되는 걸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영조가 이복형인 영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은 반대파인 소론이나 남인이 영조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인좌의 난이다. 영조의 즉위로 정계에서 물러난 일부 소론들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은 진압되었으나 '경종 독살'이라는 정치적 명분마저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후 소론은 노론과 영조를 공격할 때마다 그 명분

으로 경종 독살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유포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조 31년(1755)의 나주벽서사건이다. 나주 객사인 망화루 기둥에 거병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붙은 것이 발단이 되어 수많은 소론들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치운은 국문을 당하면서도 영조의 면전에 대고 "나는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소!"라고 말했다. 갑진년은 경종이 사망하던 해이다. 영조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대놓고 따져 물은 것이다. 분노한 영조는 철저하게 보복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은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고 '경종 독살'이라는 정치적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남 지방의 남인들이 조정에 등용되지 않는 동안 영조의 경종 독살설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의해 전파되었다. 경종 독살은 영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치적 무기였다.



천장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의릉(懿陵)

의릉 수난사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자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天藏山 기슭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영조 6) 6월 29일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 선의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 왕릉 아래에 능을 조영하였다. 의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의 앞뒤로 배치한 동원상하봉同原上下封 능이다. 조선왕릉 중 효종의 영릉과 더불어 두 곳이 이런 형식이다. 곡장을 두른 것이 경종의 능침이며 그 아래 곡장이 없는 것이 선의왕후의 능침이다. 의릉은 능의 주인인 경종이 당쟁 속에 순탄치 못한 짧은 삶을 살다간 것과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명당 중의 명당, 하늘이 숨겨놓은 땅 천장산

천장산은 동대문구 회기동 · 청량리동 · 석관동에 걸쳐 있는 해발 140m의 야트막한 산이다. 천장산은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한 고려시대부터 불교적으로 명당터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천장이라는 한자 이름에는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불교적인 의미로 부처님이 꽁꽁 숨겨놓은 보물 같은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곳은 길지로 널리 알려져 절이 지어졌다. 지금도 천장산 기슭에 남아있는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는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천장산이라 하였다고 산 이름의 유래를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장산이 왜 천하의 명당터로 지목되었을까?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가 죽었을 때 묘를 천장산 좌측 언덕에 쓰기로 하면서 산의 지세를 둘러보고 온 도제조都提調 정만석鄭晩錫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여러 지사地師들과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지사 박상발朴祥發 · 이현李玹 등이 모두 말하기를, '양주楊州 천장산天藏山 유좌酉坐(유방을 등지고 묘방을 향해 앉은 자리, 곧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한 자리)의 땅은 내룡來龍이 삼각산三角山에서부터 나누어진 맥脈으로 전지田地를 뚫고 골짜기를 지나 별도로 성봉星峰을 솟아오르게 하였으니, 기세는 마치 말이 달리는 것 같고 모양은 용龍이 내려오는 것같이 더욱 벗겨지고 더욱 바뀌지면서 그 변화가 극도에 이르러서는 다시 천장산을 솟아오르게 하여 문득 구천九天에 호랑이가 날아가는 형국形局을 이루었으며, 몸을 뒤집어 형세를 거스리려고 머리를 돌린 기운이 순順하며, 뒷쪽에 배치되어 있는 겹겹의 산세는 개송介送이 분명하고 혈성穴星이 풍후豊厚하며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겹으로 감싸고 있고 당국堂局은 평평하고 반듯하며 수성水城이 가로로 걸쳐 있고 사안砂案이 손을 마주 잡고 조회하는 듯하니, 실로 크게 쓸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순조실록』 30년(경인, 1830년) 6월 27일자)

정만석의 말을 듣고 순조는 그곳에 묘소墓所로 정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봉표封標하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의릉이 위치한 곳은 천장산의 가장 좋은 명당터는 아니었다. 가장 좋은 위치에는 연산군의 생모 윤비의 묘인 회릉이 있었다. 게다가 의릉은 왕이 편히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동대문 밖을 나서 동구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그렇다면 영조는 경종을 왜 이곳에 묻었을까?

의릉의 위치 선정에 얽힌 불편한 진실

의릉懿陵의 의미를 한자로 풀이하면 크고 아름다운(懿) 무덤(陵)이란 뜻이다. 왕릉이라면 왠지 크고 웅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직접 의릉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의릉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의릉은 왕릉치고는 참 초라한 무덤이다. 영릉이나 광릉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세종의 영릉이나 세조의 광릉, 정조의 융건릉을 가 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의릉의 규모가 '아담'한 것은 숙종과 인현왕

후의 능인 명릉의 제도를 따라 문무인석을 비롯한 모든 석물을 사람의 몸만큼의 크기 정도로 줄여서 제작했기 때문이다.

의릉이 초라한 진짜 이유는 의릉의 위치 선정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의릉이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 사실 자체가 경종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해준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왕릉의 위치는 권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왕이 죽으면 제일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 왕의 장례지 선택이다. 조선 왕조 최고의 풍수전문가가 동원된 가운데 왕이 직접 왕릉 후보지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망한 왕이 살아생전 어떤 왕이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막강한 권력과 업적을 남긴 왕이냐, 그리고 그 후계자인 새 왕이 그 유산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왕릉 가운데 최고의 무덤으로 꼽히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태종의 헌릉, 세종의 영릉, 세조의 광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왕릉은 후계자 왕들인 태종, 세종, 문종, 예종 등의 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조선 최고의 명당터이다. 심지어 마마보이 왕으로 잘 알려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은 왕비 단독 능인데도 웬만한 왕릉의 규모를 압도한다. 살아생전 문정왕후의 우먼파워를 짐작케 한다.

조선왕조의 국가법령인 『경국대전』에는 왕릉은 한양도성에서 10리 밖에서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의릉은 당시 궁궐로 사용하고 있던 창덕궁으로부터는 약 6.4킬로미터, 사대문 중 하나인 동대문으로부터는 약 5.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남한에 남아 있는 40기의 조선왕릉 가운데 현재의 서울시(한강 북쪽) 강북지역에 남아 있는 왕릉은 정릉, 태릉과 함께 의릉 3곳 뿐이다. 정릉과 태릉이 왕비의 무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릉은 27명의 조선 왕이 묻힌 왕릉 가운데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역대 왕릉 가운데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장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가깝다는 것은 배려나 권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조선왕을 대표하는 건원릉, 세조의 광릉, 성종의 선릉, 숙종의 헌릉, 정조의 융건릉 등이 모두 의릉보다 훨씬 먼 도성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왕릉의 위치를 명당터를 찾아 도성에서 최대한 멀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살아생전 왕권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멀리 갈수록 그만큼 백성이 고달프고 장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하들은 왕릉을 되도록 이면 도성 가까이 두고서 장례비용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왕권이 강했던 왕이 사망하면 그 권위에 밀려 신하들의 그런 발언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왕의 권위가 약하고 후계자가 왕의 장지를 선택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정은 다르다. 신하들의 뜻에 따라 장지는 대충 선정된다. 경종의 무덤인 의릉이 바로 그렇다. 실록에는 후계자인 영조가 이복형인 경종의 장지를 선택하느라 고민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살아서도 슬펐던 경종은 죽어서는 더 슬펐을 것이다.

5 · 16 군사쿠데타로 중앙정보부가 의릉을 불법 점거하다

흔히 우리는 궁궐과 왕릉을 비롯한 문화재수난사하면 일본의 침탈에 의한 수난과 훼손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 대한민국정부나 기타 다른 요인의 의한 수난이나 훼손도 적지 않은데, 의릉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릉이 훼손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왕릉이 국유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에 의한 훼손이 가장 많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 권력에 의한 훼손이 심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통일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남북 분단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한 차례 훼손되었다. 휴전선과 가까운 파주, 양주와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있던 왕릉들은 군사정부 시기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기타 여러 능은 군부대 등 국가기관이 능역 내에 위치하여 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서삼릉은 조선왕릉 토지 매각을 통해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로, 1960년대 수차례에 걸친 토지 매각으로 능역이 7개소로 분할되어 관리조차 어렵게 되었다.

의릉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부터 능역 전체를 접수한 뒤 1962년 1월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1972년 7월부터 정식으로 관리위임했다. 의릉은 조선왕릉 중 원형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왕릉이다. 중앙정보부는 왕릉의 우측 능선을 깎아서 넓은 축구장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청사 건물을 세우는가 하면, 좌측 능선 역시 청사를 짓기 위해 산허리를 잘라냈다. 1972년경에는 정자각 앞과 홍살문 사이에 땅을 파서 인공으로 연못을 파고 다리를 놓고 각종 관상어를 기르며, 온갖 외래 수종을 이식하여 일본식 조경 시설물들을 설치했다. 연못 주변에는



복원 중인 의릉.
정자각 앞쪽을 보면 연못을 메운 후 아직 잔디를 입히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에는 중앙정보부 건물도 보인다.

단풍나무와 향나무를 비롯하여 값비싼 정원수를 심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까지 가져다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이곳에 들러 연못에서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그 덕에 의릉은 조선시대 왕릉 가운데 가장 예쁜 왕릉으로 뽑히는 영광 아닌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고 한다.

의릉, 역사적인 7 · 4남북공동성명의 현장이 되다

중앙정보부는 남산과 이문동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본부는 이문동에 두고 국내 파트가 남산에 있었다. 남산 청사는 대지 2만5천여 평에 각종 지하비밀시설과 취조실을 비롯 5층 미만의 41개 건물로 구성되었다. 이문동에는 이보다 넓은 13만평의 부지에 국가정보연수원을 비롯하여 1, 2, 3, 4, 5별관 건물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이문동 중앙정보부의 내부 구조는 어떠했을까? 중앙정보부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의릉이 잘 정돈된 채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나지막한 중앙정보부 본관 건물이 나타난다. 본관 건물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층마다 창문이 높게 설치돼 있다. 1층 복도 등에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보부의 부훈이 적혀 있다. 부훈은 김종필씨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신조인 '익명에의 정열'을 본따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에의 정열'은 치열한 국제정치의 뒷면에서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국의 외교적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서도 모든 공적은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정보기관의 구실을 상징화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문동에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외부인의 방문이 허락되었다. 1년에 한차례씩 열리는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나 외신기자 등을 위한 브리핑도 이곳에서 열렸다. 제한적이나마 본부 건물이 개방된 것은 이문동 건물이 대북한 정보분석 공작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홍보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산 건물은 한번도 외부에 개방된 적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1972)
사진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없다. 국내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남산 중앙정보부는 정보와 공작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던 군사정권 권력의 핵심이었다. 국내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치판단국과 이른바 '간첩수사'를 전담하는 대공수사국이 남산 중앙정보부를 이끌어가는 사실상의 쌍두마차였다. 악명 높은 고문과 도청이 자행된 곳도 바로 남산 중앙정보부였다([한겨레] 1992.3.20.).

이런 이유로 이문동 중정본부 건물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대외적인 행사가 종종 열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단이래 남북당국자 간의 첫 대화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

명 발표이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입니다.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중앙정보부장의 이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흥분에 휩싸였다. 중앙정보부장이 흑백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평양을 방문했다고 깜짝 성명을 발표한 장소가 이문동 중앙정보부 종합청사 강당이다. 종합청사 강당은 이문동 중앙정보부 청사와 의릉 사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장소는 2층 강당이다. 100석이 조금 넘는 강당은 객석 뒤편이 넓고 무대로 가까워질수록 좁아지는 극장과 같은 구조이다. 지금 이 건물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어 옛 중정 건물 중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왕릉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변화

조선시대 왕릉은 궁궐, 종묘와 함께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곳은 또한 당대 최고의 풍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고른 천하의 명당이다. 그렇다면 왕릉으로 낙점된 지역 주민 입장은 어떨까? 고장의 영광이었을까? 한마디로 재앙 그 자체이다. 왕릉으로 지정된 곳은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된다. 무자비한 철거가 시작되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만 한다. 무덤도 이장해야 한다. 왕릉으로 지정된 곳에는 사방 10리 안에 민가 하나 들어설 수 없다. 왕릉 주변으로 조성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은 땔감이나 집짓기로 좋은 나무들이었지만 벌목은 커녕 낙엽 한 장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었다.

왕릉은 인공보다는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는 구릉지의 산릉 위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왕릉 조성에 막대한 비용과 인원이 동원되었다. 작게는 3천에서 많게는 6천 명 정도가 3개월 동안 노동을 해야 한다. 경종의 장례식은 음력 12월 16일이었다. 양력으로 1월 중, 하순의 한

겨울이었다. 그날 서울에는 억수같은 비가 내렸다. 폭우로 인해 장례에 참석하던 영조는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궁궐로 돌아갔다. 한겨울에 쏟아진 폭우 속에서 경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했을 수천 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애잔하다.

이렇게 사람과 마을, 무덤을 옮긴 곳에 왕릉이 들어서면 새로운 마을이 조성된다.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 이른바 능말이다. 의릉이 들어서면서 천장산 아래 살던 원주민들은 지금의 석관동 쪽으로 집단 이주했다. 천장산 아래 있던 산신을 모시는 도당都堂도 지금의 석관동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의릉 주변에도 능을 지키는 능말이 만들어졌다.

의릉이 있는 천장산 주변은 조선시대 양주에 속했던 곳이다. 양주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왕릉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었다.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의 능만 모두 45개나 몰려 있다. 여기에 대군이나 공주 등 왕실 가족의 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무덤이 양주 지역에 흩어져 있다. 양주는 왕릉의 소재지라는 이유로 왕실로부터 특별한 은택을 입기도 했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컸다. 양주지역 백성들은 능침 부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왕릉 조성에 필요한 각종 요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왕이 능행을 하기라도 하면 강제로 환경미화 작업에 투입되거나 능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받쳐야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군 묘 공사에도 강제로 동원되기도 했다. 숙종 때에는 능원대군 묘에 세울 비석을 운반하는데 양주 백성 2천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양주 백성들은 왕릉을 지키는 산릉수호군으로 차출되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수호군은 왕릉에 배속되어 능 주변의 청소와 땔나무 벌채 감시 등의 일을 했다. 수호군은 왕릉을 조성하는 양주지역에서 차출되었기 때문에 천장산 주변에 살던 백성들도 당연히 산릉수호군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릉을 지키는 수호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태조 건원릉의 수호군이 100명, 세조의 광릉을 지키는 수호군이 70명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왕릉 수호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양주 백성은 언제나 왕릉 수호군으로 차출되거나 언제든지 수호군으로 편입되어야만 하는 예비 수호군의 역을 지고 살아야 했다.

양주로 가는 국장 행렬이 지나는 곳이 동대문이고, 그 동대문 밖에서 제일 가까운 동구릉 가는 길목에 천장산과 의릉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의릉 주변에 살았을 백성들의 고충이 어떠했는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조성된 왕릉도 조선왕조가 멸망한 뒤에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의릉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묘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천장산의 나무는 땔감으로 벌목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방치된 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했다. 1960년대까지도 천장산과 의릉 주변은 농사를 짓는 한가한 농촌지역이었다.

중앙정보부 건물이 의릉 안에 둥지를 틀면서 의릉은 다시 국민들의 접근금지 구역이 되었다. 해방 후 서울의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한가한 농촌지역이었던 석관동과 이문동 일대도 도시개발로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장산 일대는 개발제한과

고도제한 등 각종 정부 규제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 건물을 짓다가 중앙정보부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장산에 둥지를 튼 중앙정보부 건물보다 높아서 보안의 위험을 느낀다는 것이 공사를 중단시킨 중요한 이유였다. 그래서 평화의 전당 건물은 안기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난 뒤 공사기간 20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과 격리된 채 원형을 잃고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해 버렸던 의릉은 약 34년 만인 1995년 안기부(구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접근 금지 구역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의릉은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안기부의 위상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의 개혁을 시사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안기부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기부가 불법점거하고 있던 의릉의 국가 환수문제가 제기되었다. 1993년 봄, 김영삼 대통령 안기부 이문동 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했다. "안기부는 과거 정치공작의 오명을 벗고 거듭나야 한다.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요지였다. 김 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본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식당 아주머니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자상한 면을 보였으나 직원들은 뼈있는 대통령의 말에 긴장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김 대통령은 그 해 정기국회에서도 "안기부와 기무사의 기구를 축소하고 정치사찰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1994년 1월 18일에도 안기부 이문동 청사를 방문하여 김덕 안기부장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이문동 안기부 청사 방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안기부 관련기사를 보도할 때 배경자료용으로 사용하도록 안기부 이문동 청사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가 하면 1993년 6월 28일에는 평화의댐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으로부터 이문동 청사에서 창설 이래 첫 감사도 받았다. 그동안 안기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안기부법 제12조에 따라 창설 이래 줄곧 감사를 받지 않았었다.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안기부 청사가 무단점용한 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문동의 의릉 사적지의 일반 공개를 촉구했다. 1993년 7월 7일, 국회 상임위에서 박지원, 박계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안기부 본부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의 땅 20만 평 가운데 13만평은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사적 204호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안기부가 62년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군사독재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안기부와 협의해 문제가 된 사적지를 문화재관리국으로 환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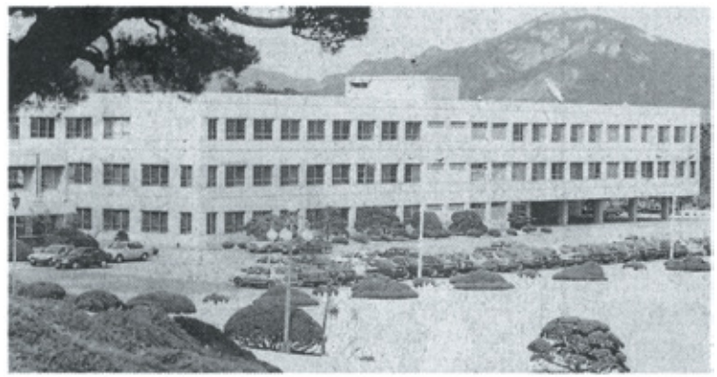
1994년 9월 23일 열린 국회 상임위 대정부 질문에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은 다시 "안기부의 이문동 부지는 사적지 의릉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소유인 이문동 부지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일주일 뒤 김덕 안

기부장은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남 내곡동에 신축중인 안기부 청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의릉 일대의 녹지 등 7만 7천 평의 부지를 문화재관리국에 이전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사가 이전되면 부근 지역의 건물고도제한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보안시설과 관련해 민원의 대상이 돼 온 각종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9월 안기부는 청사를 내곡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연수원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제외한 7만 7천여 평의 부지가 문화재관리국으로 이전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이문동 주변의 건물고도제한이 없어지는 등 각종 규제도 철폐되었다. 1995년 9월 15일 문화체육부는 이문동 안기부 일부 부지에 영상예술종합센터를 세울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마침내 안기부는 1995년 9월 25일 강남 내곡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이사도 한달 동안 주로 밤에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동안 청사가 남산과 이문동 등지에 분산되어 있어 예산 및 인력낭비와 업무의 비능률성으로 애로를 겪어온데다 서울정도6백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 이전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5년 10월 3일 저녁 바뀐 세상을 실감하는 KBS 열린음악회 공연 녹화가 구안기부청사 본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안기부 이전 후 첫 공개 행사로 사실상 '안기부 개방공연'의 의미가 두드러진 것은 출연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날 공연에는 귀순 가수 김용과 조영남,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이 출연했는데, 곡 선택에 안기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6일 기사

한국영상문화의 산실로 탈바꿈할 안기부 이문동 청사.

"안기부 측에서는 곡을 고르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의 노래를 가능하면 피해달라느니 또는 곤란하다느니 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흡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남은 '아침이슬'을 불렀는데, 조영남이 새시대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된다며 골라 부른 노래였다고 한다. 특히 노찾사는 당초 '사계'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공연 직전 스스로의 선택으로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로 레퍼토리를 바꾸었다. 바뀐 세상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살아서 만나리라"는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이날 공연을 TV로 시청한 사람들은 "안기부 청사에서 운동권 가요로 공연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 기막힌 공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열린음악회 총책임자 김승종 KBS주간의 말을 들어보자.



이문동 안기부 청사앞 광장에서 3일밤 열린 「열린 음악회」. 〈崔東植〉

『동아일보』
1995년 10월 4일 기사

"안기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안기부를 옮기면서 조선조 20대왕 경종의 묘가 있는 그곳을 문화재로 복원하고 한국종합예술센터도 만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이를 많이 알리자는 의도였겠지요."

무소불위의 권부를 공개했다고 해서 시중에 상당한 점수를 딴 행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안기부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흔적만 보여주면서 문을 연 흉내를 낸 것이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그날 열린음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래는 참석하기로 약속했으나 다른 행사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 역시 안기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카멜레온 같은 안기부의 공작정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안기부는 떠났지만 안기부를 등에 업은 권력 횡포는 여전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하고 의릉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 안기부의 일부 부서와 연수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건물의 잔영과 함께 안기부를 등에 업은 권력 횡포는 여전했다. 안기부를 드나드는 공익요원의 횡포에 분노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의 신문 투고를 한번 읽어보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중인 나는 14일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다. 교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기부에서 당직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니 그는 대뜸 "뭘봐, 이○○야 하면서 욕과 반말을 계속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곳은 학교가 있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곳 안기부 직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요즘 한총련 사태와 안기부법 개정 논의로 기세가 등등한 안기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안기부 안의 분위기와 직원의 교육 상태가 어떻길래 말단 공익근무요원이 그저 지나가는 시민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기부는 그 본래의 역할을 넘지 말아야 한다(임우철,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겨레] 1996. 9. 21.



28일 오후 옛 안기부 자리인 서울 이문동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 학교 연극원 학생들이 '음지못' 기념물을 깨뜨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동아일보』 1998년 3월 30일 기사

그런 의미에서 안기부 기념비를 허무는 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역사인식 퍼포먼스가 의미있다. 1998년 9월 28일 오후 옛 안기부 청사 터 중앙정보부기념물을 허무는 행위예술(퍼포먼스)이 열렸다. 공연의 제목은 '장군바위와 음지못', 공연자는 안기부 터의 새 주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학생들이었다. 이날 학생들이 부순 기념물은 중앙정보부가 지난 71,72년 이곳에 '양지못', '음지못'이라는 두 개의 연못을 판 뒤 세운 가로 1.5미터, 세로 1.2미터 크기의 돌로 된 기념비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에 맞춰 이 연못을 판 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고 새긴 기념물을 세웠다. 더욱이 이 연못은 사적 204호인 의릉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중앙정보부는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을 마구 훼손한 셈이다. 이날 공연은 오후 4시 40분께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기념비에 씌워놓은 천을 찢은 뒤 망치로 기념비의 모서리를 힘차게 부수면서 절정에 올랐다. 행사를 기획한 배요섭(29, 연출과) 씨는 "옛 안기부 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여기가 어떤 역사의 현장인지 알고 과거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뜻에서 공연을 마련했다"며 "안기부로부터 고초를 겪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자는 뜻도 씻김굿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한겨레]1998.3.30.

안기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다

민간에 반환된 의릉 내 안기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1999년 6월 14일 성북구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석관동 산1의5 일대 4,446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지는 국가정보원이 차량정비소로 사용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이전한 후 성북구가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왔다. 성북구는 석관·장위동에 학교가 3개에 불과해 학교당 학급수가 50개가 넘고 학급당 학생 수도 41~48명에 달하는 등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문화관광부가 국정원 정비소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화관광부는 이 곳을 한국종합예술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성북구는 “초등학교를 짓기로 하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뒤늦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3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통해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밝혔는데 문화부가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진 구청장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화부는 “해당 지역이 왕릉이 있는 곳으로 엄연한 국유지”라며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기존 학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지자체가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의릉의 모습

마침내 제 모습을 되찾은 의릉

의릉 복원 사업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2002년 국자정보원으로부터 환수 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전 능역을 복권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2003년 발굴조사 당시 남아 있던 고 건축물은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 뿐이었으며 수복방, 수라방, 재실은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복원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신도와 어구, 금천교 등을 복원했으며 강당 앞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흙으로 덮고 소나무를 심었다.

조선 왕릉은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 결정에 걸린 시간은 단 15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조선 왕릉에 최고 등급인 ‘등재 권고’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후 호주 등 4개국 위원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마리아 세군도 위원장은 “모두 조선 왕릉의 가치를 인정하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심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등재 심사가 끝났다. 논란이 되는 문화유산의 경우 길게는 3시간 이상 심의가 이어질 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선 왕릉의 등재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가 조선 왕릉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왕릉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서인지 문화재청은 기존에 공개하였던 왕릉 이외에 비공개하고 있던 왕릉들도 서둘러 정비를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의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인의 출입이 금지된 절대 신성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평화로운 공원이자 쉼터로 바뀌었다.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 의릉은 휴식과 사색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자 조상들의 선물이 아닐까? 의릉은 비극적이었던 무덤 주인의 운명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무덤(懿陵)'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세계문화유산 의릉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석탄石炭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연탄으로 본 석관동의 변천사-

석관동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어본다면 '돌 석石'자에 '꿸 관串'자이다. 말 그대로 돌이 꿰어져있는 동네라는 의미인데, 이는 마을 동쪽에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의 한 줄기가 돌을 겹겹이 꿰어 놓은 형상을 띠고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동네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은 바로 석관동이라는 한자 이름을 순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돌곶 마을, 즉 석관동은 해방 이후 개발의 시대 한동안 '석탄동'으로 불렸을 때가 있었다. 지금은 외지인에게 현대식 주거시설인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곳, 그러면서도 조선 20대 왕인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의 릉인 의릉 및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도당都堂이 위치한 고풍스러운 동네, 혹은 한국의 대표적 전문예술인 양성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자리잡은 동네로서 석관동이 인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낯선 별명이라 할 수 있겠다.

석관동과 석탄동의 차이는 개발 시대 석관동이 급격하게 발전해 온 역사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석관동이 석탄동이

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일까? 그리고 석관동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를 거쳐 지금의 석관동이 되었을까? 먼저 이 마을이 '석탄동'으로 불리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자.

개발시대 도시 거주 서민의 난방 문제와 연탄

오늘날에야 '월동준비'라는 게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겨울옷을 꺼내는 정도로밖에는 인식되지 못 하지만 집집마다 냉장고와 가스보일러가 들어오기 이전, 즉 산업화 시대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을 의미했다. 월동준비는 크게 식구수에 맞춰 수북하게 담은 김장김치와 광에 그득하게 쌓아올린 연탄으로 대표되었는데, 김장을 담그거나 연탄을 부리는 날은 식구들 가운데 한 두 사람쯤은 몸살이 날 정도로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김장 김치를 담그는 것이야 전국이 매한가지였지만 도시 생활을 하는 서민에게 있어서 연탄은 각별한 것이었다. 시골의 경우 연탄을 구할 수가 없으면 근처 산지에서 나무를 베어올 수가 있었지만 도시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 나무를 구해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0-70년대 도시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연탄에 얽힌 사연 하나 쯤은 대개 지니고 있을 것이다. 겨울이 올 무렵 리어카나 지게꾼들이 동네 여기저기에서 연탄을 부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을 갈았었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동네 어귀마다 미끄러운 곳에는 연탄재가 뿌려진 모습을 보거나 간혹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는 어머니가 독에서 꺼내온 동치미 국물을 들이켜 답답한 가슴을 달래본 적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연탄이 서민의 난방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다.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석탄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연탄의 원료가 되었던 무연탄의 생산량을 늘렸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아울러 당시 석유나 가스공급능력은 매우 취약했으며 임산연료의 반입은 정부시책으로 제한되고 있었기에 도시 생활을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값싸고 구하기 쉬운 연료인 연탄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서울의 경우 1962년의 연간 연탄 수요는 184만 2천 톤이었는데 그 4년 뒤인 1966년에는 371만 톤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1977년에는 744만 6천 톤까지 증가했으니 가히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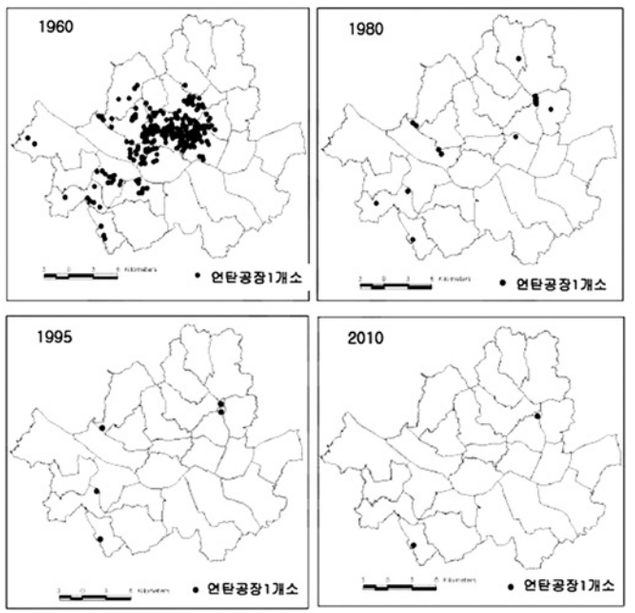
그러나 연탄의 수요가 팽창하여 그 생산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무연탄의 생산은 강원도 탄광촌에 국한된 것인지라 지역마다 연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1962년 6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탄가격을 동결하여 19공탄의 공장도 가격을 6원 45전, 소매가격을 7원으로 동결하였고 연탄 1개당 무게는 4.5kg으로 동결 고시하였다. 아울러 그해 9월에는 쌀, 보리, 비료, 연탄, 석탄 등 5개 품목에 대해 정부에서는 민정民政으로 이양할 때까지 가격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1963년 8월에 연탄가격을 7원에서 7원 50전 내지 8원으로 인상조치하였고, 서울시경은 연탄 고시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자들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을 공포했다. 이러한 까닭에 1960년대 초 서울시 연탄수급사정은 한결 나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연탄의 공급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연탄의 생산량에 있었다기보다는 무연탄 산지에서 서울로 공급하는 철도 운수편의 부실에 있었다. 1966년에 발생했던 연탄파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해 가을 기습적인 한파로 연탄 수요가 다른 때보다 증가했는데 당시 서울로 무연탄을 실어 나를 화차의 감축으로 연탄의 공급량이 몹시 부족해지자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료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정용, 발전용, 관수용, 상업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연료를 무연탄에서 유류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유류로 전환되었더라도 서민 입장에는 연탄보다 값이 비쌌던 석유나 가스로 난방연료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연탄파동 때 연탄의 수요가 낮아지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1973년 말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안 그래도 높았던 석유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도시 서민들은 쉽사리 연탄 이외의 난방연료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연탄에 대한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석관동이 한때 '석탄동'으로 불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연탄공장과 '석탄동'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석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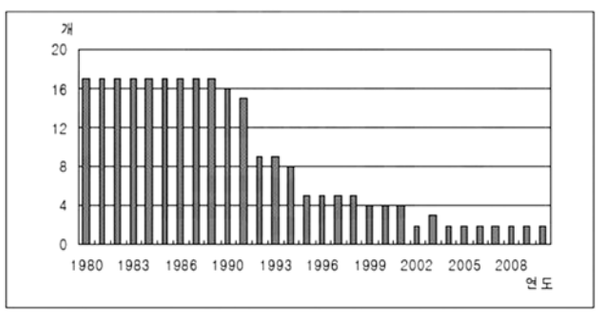
연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연탄공급을 위해 정부는 연탄공장 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였다. 1968년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서울의 연탄수요를 맞추고, 또 당시 문제가 되었던 서울 시내 중심가의 연탄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서울 외곽이었던 이곳에다 연탄제조업 단지를 조성한 것이었다. 무연탄 수송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망우선 철로를 연결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서울시 연탄공장 분포 변화도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당시 서울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연탄공장은 17곳이었다. 그 가운데 14개가 한강 이북지역에 입지해 있었는데, 이는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까지 서울 인구가 강북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와 서울시에서 강남개발을 통해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시키고자 했을 때도 강남지역에는 연탄 대신 석유나 가스로 난방을 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였기에 1980년대 후반, 아니 지금까지도 연탄공장은 주로 강북에 위치하게 된 것이었다.

강북지역 14곳의 연탄공장 가운데 석관동 일대 입지한 연탄공장의 수는 무려 7곳이었다. 석관동 일대에 연탄공장이 밀집한 것은 철도 수송의 용이함도 있었지만 주변이 모두 서울 외곽지역으로서 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연탄은 주된 원료인 무연탄을 수송해와 공장에서 가정용 연탄을 성형하게 되는데, 부서지기 쉬운 연탄의 특성상 교통 및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밀집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연탄제조업 단지가 조성된 석관동 일대에는 삼천리 연탄, 한성 연탄, 정원 연탄을 시작으로 주변 영세한 연탄공장을 포



서울시 연탄공장 수 변화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함하여 연탄공장이 밀집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탄제조업 단지의 조성은 석관동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지금처럼 공기정화시설이나 각종 매연에 대한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석관동 일대의 주민들은 연탄과 관계된 이런 저런 문제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일례로 1983년 1월 31일자『중앙일보』10면의「희망취재란」에서 보도한 석관 1동 및 동대문구 이문 3동의 집단민원의 사례는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기자의 제목부터가「도심의 탄광촌 …… 10여년째 수난」으로서 거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당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석관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를 "탄광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탄가루와 씨름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라면서 석관동이 흡사 '석탄동'이라고 푸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은 서울시와 연탄공장에 최소한 방진망을 설치해 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누차 호소했으나 이러한 청원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눈병과 피부병에 시달렸고 가옥은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서울시 측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검게 변한 저탄장 주변의 폭 12m, 길이 1.2km의 진입로를 새로 포장해주고 살수차를 가동하여 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고자 하였지만 탄가루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석관동 일대의 연탄공장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수가 점차 감



삼천리 연탄공장(2013).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석관이문 전동차량기지 바로 옆 중랑천변에 있다

소하기 시작했다. 물론 8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석관동 주민들은 탄가루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를테면 『경향신문』 1987년 12월 1일자 9면의 기사 제목은 「주택가 탄가루 공해 심각하다」였는데 이곳에는 여전히 서울시 수요의 41%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난방수요가 석유 및 가스로 변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연탄난방 가구의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였기에 석관동 일대의 연탄공장은 계속 가동되었다. 이때문에 저탄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로 밤새 널어놓은 빨래가 검게 말라있거나, 대야에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까맣게 변해버리는 일은 이 지역 주민에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석관동의 집값은 인근지역에 비해 20%가 쌌을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탄공해지역건축불가'라는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1995년까지 연탄공장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려는 계획에서 석관동 일대의 연탄공장만은 제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시대적 추세는 석관동 일대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석관동 저탄장 주변의 연탄공장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고 1994년 무렵에는 폐공장부지에 중대형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를테면 1994년 5월 현재 동원연탄부지 2만 2천 8백 32평에 전원산업과 두산건설이 아파트 1천 9백 98가구를 짓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민들의 소원과 무관하게 철도청에서는 버려진 연탄공장 터에 전동차 수리기지창을 건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철도청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에 기초한 것이었다. 강원도 탄광에서 무연탄을 날랐던 철도가 경제적 타산성이 맞지 않자 땅을 놀려두느니 석관동 일대에 전동차 수리기지창을 건립하는 게 낫다고 보았던 것이다.

"석탄 가루 없어지자 철가루가 왠 말이냐!": 석관동 개발 과정의 잡음들

1994년 석관동 일대에 위치했던 연탄공장 가운데 동원연탄이 없어졌다. 연탄사업은 계속하여 사양산업화 되었기에 빈 땅이 된 그곳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개발될 것이 예상되었다. 성북구에서는 이 땅에 대규모 아파트촌을 계획하였다. 연탄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한 30여년 간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부

지에 있을 때는 인근 동네가 고도 제한에 걸려 개발도 안 되었기에 동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이에 성북구에서는 총 2만 1천 9백 10평의 부지에 16~25층 아파트 25동 1천 9백 98가구를 98년 3월까지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서울 4차 동시분양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의 아파트 단지로서 석관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 접어들자 철도청에서는 이 지역에 전동차 기지창을 설치하고자 하여 석관동 일대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철도청에서 석관동 일대에 전동차 수리공장을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석관동 일대가 경인전철과 경원선, 중앙선이 지나는 요충지인데다 서울 시내에서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지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경인전철의 복선화와 중앙선의 전철화, 경원선 편성 증가 등으로 2002년까지 600여 대의 전동차가 늘게 되어 기지창 건설은 절실한 문제였다.

그러나 석관동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석관동은 60년대 석관동 일대에 연탄공장단지가 조성되어 탄가루 때문에 고생했으며, 연탄공장이 없어지기 시작한 90년대 무렵에는 고물상과 재생공장 등, 이른바 '공해공장'들만 들어서 있었던 상태였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와중에 또다시 공해시설인 철도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존의 연탄공장과 고물상 등에게서 매년 수십억원대의 임대수입을 챙겨왔던 철도청이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지창 건설을 추진했다는 사



한국철도공사 석관 · 이문 차량기지

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석관동 일대 주민들은 차량기지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벌였으며 1996년 7월 31일에는 1만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철도청,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대표는 "우리는 동원연탄 등 연탄공장으로 인해 30년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의 환경이 개선되어 갈 찰나 철도청의 갑작스런 결정은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주민들은 기지 건설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기지창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석관동 주민들과 철도청 사이의 대립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1999년에는 철도청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재차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다시 들끓게 되었다. 주민들은 철도청의 강행 의지를 확인하자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기지창 건설을 막고자 하였다. 당시 석관동 일대 주민들이 내건 대표적인 구호는 "석탄가루 없어지니 철가루가 왠 말이냐!"로서 주민들의 편의와는 상관없이 관청의 임의대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잘 드러내는 구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지금의 석관동 일대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탄공장은 이제 삼천리 연탄공장 하나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나마 무연탄은 방진시설이 구비된 공장 안에서 연탄으로 가공되고 있다. 그리고 철도청과 마찰을 빚었던 전동차 기지창은 석관이문전동차기지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석관동 주변의 환경은 연탄이라는 서민의 필수 연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석관동은 도심지와 가까우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기에 연탄공장이 입지하게 되었고 아울러 탄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근에 저탄장까지 입지하게 되었다. 연탄사업이 사양산업화 되었을 때도 남은 서울시 연탄 공급을 위해 한동안 연탄공장이 계속 가동되었으며, 그 연탄 공장이 하나 둘 문을 닫자 저탄장 지역에는 철도청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동차 기지창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관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동네는 서서히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지금 석관동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인 석관동 104-4번지 일대의 녹지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00년대 이후 석관이문전동차량기지 부근에 7098㎡의 녹지조성을 위해 성북구에서는 낙락장송 38주, 스트로브잣나무 175주, 감나무 21주, 살구나무 14주, 왕벚나무 48주, 청단풍 53주, 덩쿨나무 700주, 병꽃나무 510주, 산철쭉 7530주, 영산홍 7680주, 자산홍 5150주, 맥문동 1만6564주, 중사철 6570주 등 26종 5만387주 등을 심었다. 아울러 이곳에는 우배수 집수정 4곳, 녹지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녹지대 밑으로 중랑천 이용편의를 위해 폭 20m(왕복4차선 및 한쪽편 인도설치), 길이 150m의 지하보차로도 조성되었다.

이 녹지대의 조성은 아파트단지와 차량기지 사이의 소음 및 각종 공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할 뿐더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전의 '석탄동'이라는 이미지, 즉 저개발되고 소음 공해에 찌든 동네라는 이미지에서 지금의 석관동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시대의 추세도 아니요 정부의 시혜도 아니었다. 자신의 동네에 대한 애착을 가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석관동 개발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동네 곳곳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예전의 검고 칙칙했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석탄동'을 다시 석관동으로 바꾼 것처럼 주민들의 동네에 대한 애착이 계속된다면 석관동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장위동의 어느 고학생 이야기-

장위동이라는 마을의 유래

장위동長位洞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로 마을 뒤의 장위산獐位山의 이름을 따되 훗날 한자를 변형시켜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동네는 조선시대부터 줄곧 농민들이 살았으며 별다른 특산물 없이 벼농사와 조, 수수, 고추 등의 작물만 재배되었다고 전해진다. 거주민들의 생활이 전통시대 한국의 보통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점은 자연스레 마을의 특징적인 자연물로 마을 이름을 정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마을 이름 대다수가 그 주변의 산, 강, 바위처럼 두드러진 자연물에서 따왔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다른 하나는, 오래 전에 이 마을에 명신名臣이 살았었기에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마을 이름 장위長位의 한자 뜻을 풀어본다면 ‘높은(長) 관직(位)’이라는 뜻이다.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행정단위인 리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조선 초부터 이 마을 이름이 장위동이었다는 점은 앞서의 한자 뜻풀이와 함께 결부시킨다면 조선 이전의 시기, 즉 고려시대 언젠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기에 장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이 마을에는 조선 후기 이조판서를 지냈던 윤용구尹用求가 살기도 했다. 윤용구의 호號 가운데 장위산인獐位山人은 바로 장위동, 혹은 장위산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

첫 번째 추론은 이 마을이 전통시대 한국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추론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한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추론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명망가의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위동이라는 마을 이름의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은 어쩌면 장위동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개성일 수도 있겠다. 요컨대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추론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과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구비한 마을이 바로 장위동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장위동의 시간은 머물러 있다.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뉴타운 개발 방식 관련 논의는 아직도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양쪽 모두 장위동의 발전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지금껏 장위동은 행정구역상으로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한국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오늘 내일 꿈을 향해 한 발 자국 내딛고자 노력해 왔던 동네였다. 그것이 비록 시대적 제약이나 각종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그 꿈만은 포기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생업



1997년 장위동의 모습.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이곳이 서민들의 주거지임을 짐작케 한다.

에 종사하는 모습을 계속 지녀왔던 동네가 바로 장위동이었다. 앞서의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자 하는 소박한 각자의 소망이 그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장위동 사람들의 면모는 그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개발로 인한 마을의 발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도 그 개발의 수혜는 장위동을 살짝 비껴갔다. 그때 장위동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어느 청년의 사례는 장위동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 청년의 '선택' 자체야 개인적인 것이며 젊은 혈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청년이 느꼈던 '감정'은 장위동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유해 왔던 것은 아닐까?

복면강도 사건과 60년대 장위동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이다. 1961년 11월 19일 장위동에는 복면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당시 주소로 성북구 장위동 64번지였으며 최광진崔光鎭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세 명의 범인은 새벽 3시 30분쯤 집에 침입한 뒤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손전등으로 잭 나이프를 보이며 최광진 내외를 협박하여 당시 돈 21만 환과 각종 귀금속 등 총 30여 만 환어치를 탈취하고 도주했다.

당시 30여 만환은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까? 당시 쌀값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만 5천 환 정도였고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봄 무렵에는 정부에서 비축미를 방출해도 쌀 가격이 2만 환 정도로 육박했다. 당시 다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던 창고지기의 월급이 6만 환 가량이었고 고위직이었던 육군 대령의 월급은 18만 환 가량 되었다. 이를 놓고 본다면 당시 돈 30만 환 정도는 서민들에 있어서 5달치 월급에 해당했으며 고위직 공무원, 혹은 대우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2~3달치 월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절 서민들은 대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현금을 집에다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당시 돈 21만 환과 9만 환어치의 귀금속은 피해자 최광진의 전재산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 의한다면 강도들이 최광진의 집에서 탈취해 간 귀금속의 내역이란 것이 반지 하나, 은수저 하나, 손목시계 따위의 것이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지극히 소박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복면강도는 장위동에 거주한 어느 서민의 전재산을 턴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강도,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당시 신문에 의한다면 신문의 사건 사고란에는 연탄가스 중독 사례와 비견될 정도로 강도, 도둑, 절도사건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었다가 그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체되곤 하였다. 당시 대다수 가정의 난방연료가 연탄이었으며 동네마다 빈번하게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그에 비견될 정도로 강도, 도둑 사건이 많았던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흡사 '무법천지'라 느낄만 했다. 당시 『경향신문』 1961년 1월 10일자 1면의 「지의천어地意天語」(당시의 세태를 풍자하는 고정 코너였다)에서는 강도, 절도가 부쩍 늘어가는 현상에 대해 "못 먹고 사는 인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못 먹고 사는 인간이 많다는 것은 국민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물가에서 쌀 한 가마니가 서민들의 월급 3분의 1 정도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당시 쌀의 가치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민 살림살이가 몹시도 쪼들렸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위동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전재산 30여 만 환을 보유했던 최광진이라는 인물의 경우 역시 대한민국의 장삼이사, 아니 장위동 거주 주민의 흔하디 흔한 살림이었을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위동 일대를 서울의 '변두리'로 묘사하고 있었고, 기존의 토박이 주민들과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기본적 물화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동네가 바로 장위동이었다. 당시 어려웠던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장위동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소식을 들었다면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눈먼 욕을 해댈만 했을 것이다.

복면을 벗은 강도의 맨얼굴

최광진의 신고를 접했던 성북경찰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였던 21일에 '시내 모처'에서 강도 용의자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물들은 고스란히 최광진 가족들이 장롱 깊숙이 묻어둔 전재산이었음은 물론이었다.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은 장위동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두 명은 장위동 부근인 숭인시장쪽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한다면 장위동 3인조 복면강도단의 면면은 앳된 청년들이었으며 범죄와는 인연이 없는 모습이었다. 특히 장위동에 거주했던 범인인 황인철黃仁哲의 경우 검거 당시 21세에 불과한 청년이었으며 누가 봐도 평생 범죄라고는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라도 강도의 이미지를 말해보라 한다면 몸에 덕지덕지 문신이 있으며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교양 없는 사람쯤으로 답변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거된 강도의 면모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한 분노에서 자연스레 강도단의 이력으로 옮겨졌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장위동 주민이자 같은 동네 사람 집을 습격한 범인 황인철黃仁哲이라는 인물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1961



1961년 11월 21일 당시 사건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

년 11월 24일자 2면에서는 황인철이라는 인물의 이력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여 뭇 사람들의 관심에 답을 하고 있었다.

범인인 황인철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이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 고향의 부모를 남긴 채 형과 누이를 따라 월남한 인물이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지만 악착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스 께끼' 장사를 해가면서 시내 B야간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때때로 그는 그의 형 집에서, 또 때로는 그의 누이 집에서 기거를 해가면서 여름이면 '아이스 께끼' 장사, 겨울이면 담배 장사를 해 가면서 푼푼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소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숙식을 형과 누이의 집에서 해결했고 딱히 부양해야 할 가정도 없었던 만큼 황인철은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야간 중학을 마친 황인철은 곧바로 주간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큰 뜻을 품고 학교가 파하기만 하면 밤늦게까지 다방가를 찾아다니며 담배장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로에 지쳐 나른해지는 몸을 꼬집어 가며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는 비록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계속 학업과 일에 정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내딛어가고 있었다.

그는 단기 4291년, 이를 서기로 환산하면 1958년에 서울의 S대학교 법대를 지원하였다. 첫 시험은 낙방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담배팔이를 하면서 매일같이 도서관에 들려 입시 준비에 열중하였다. '또 다시 실패한다면……' 하는 초조감에 뒤쫓기면서도 그는 매일같이 담배를 팔아 남은 약간의 이익금을 저축하였다. 이는 그가 법대에 합격했을 때의 입학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뜻은 이듬해, 즉 1959년 봄에 이루어졌다. 그는 당당히 S대학교 법대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형과 누이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때 목 놓아 울기까지 했다고 했다.

황인철은 푼푼이 모은 돈과 형과 누이가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보태주는 돈으로 의젓하게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가난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계속 그를 뒤따랐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꿈 속의 학사學士님'

1959년 9월, 즉 S대학교 법대의 1학년 2학기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황인철의 꿈만 같은 세월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신문기사에 의한다면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6만 5,900환 정도였다. 예나 지금이나 국립대의 등록금은 저렴했으므로 당시 서울 시내의 사립대학 입학금은 이를 상회했을 것이다. 당시 서울 시내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당대 신문기사를 참조한다면 10만 환을 상회했다. 지금 서울 시내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일반 서민의 1~2달치 월급을 상회하는 450만원 전후인 것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 전후 한국의 대학 등록금도 지금 못지않게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모아둔 돈이 대략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푼푼이 장사해서 모았던 돈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첫 학기를 마치고 재차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느꼈을 좌절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자포자기 상태가 된 그는 이때부터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고 형과 누이의 꾸지람도 자주 듣게 되었다. 얼마간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서관에 나가 보았다. 그는 이 무렵 머릿속에 실망만 가득하여 도서관에 가도 책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단한 현실과 그 나름의 꿈을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아직도 많았다는 사실은 그를 자연스레 밖으로 나돌게 만들었다.

사건을 일으키기 20일 전 그는 형과 누이의 꾸지람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당시 동대문 밖에 위치하였던 숭인동 시장가 친구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진술을 하면서 그 친구집을 찾아간 것이 잘못이었음을 후회하였다. 할 일도 딱히 없었을뿐더러 머릿 속에는 허탈감만 가득했던 그는 자연스레 친구 집 앞의 무허가 이발소에서 하루종일 소일하게 되었다. 이 이발소에서 그는 공범이자 비슷한 처지였던 윤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들과 공모 끝에 "용돈을 벌자" 하고 19일 새벽 장위동의 최광진 집에 난입하여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한 없이 내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는 진술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가슴 속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 황인철 청년의 행동은 뭇 사람에게 단순한 일탈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강도 행각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쉽사리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청년의 한때 범죄가 과연 우리와 별도의 세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있을까? 그의 범죄는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혈기 왕성한 청년이라면 쉽게 빠져들 그런 유혹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이 거주했던 장위동 일대의 사정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였던 장위동의 경우 숱하게 황인철 같은 청년이 살았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입신양명을 꿈꾸며 혈기왕성한 젊음을 유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범죄는 차라리 하나의 '실수'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비록 죄는 저질렀어도, 또한 같은 동네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자 했던 소박한 꿈을 모아둔 그런 금전을 갈취했지만 그 역시도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 했던 장위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는 없을까?

서민의 애환과 장위동의 미래

장위동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다. 대한민국의 장삼이사가 장위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오늘도 분주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의 행복, 아울러 자신의 동네 발전을 염원하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장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 동네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품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꽤 유서 깊은 것이라는 점은 장위동이라는 공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몇 년 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뉴타운이라는 분쟁이 등장했다. 각기 뉴타운에 대해 대립했던 것도 결국은 그 방법에 있는 것이었지 내 가족과 동네의 발전이라는, 꽤 유서 깊은 동네 사람들의 정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앞서 황인철 청년의 사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겠다. 이 청년의 사례에서 범죄는 하나의 일탈이자 실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의 힘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 당시 동네사람들이 공유했던 희망과 그리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다. 황인철 청년의 사례는 사려 부족하고 혈기 왕성한 청년이 잘못된 방법으로 저지른 하나의 실수였지만, 이는 소박한 희망을 이루고자 한 장위동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 실수였다. 누가 그에게 무턱대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앞서 우리는 장위동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황인철 청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마을 사람의 소박한 희망이 때때로 좌절되거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장위동은 계



오늘날의 장위동.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공간이다.

속하여 장위동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위동의 한자 이름은 '길 장長'자에 '자리 위位'자다. 한자의 묘미는 그 맥락에 따라 뜻이 변하는 데 있다. 장위동 사람들의 삶과 이 한자의 뜻을 결부시켜 본다면 또 하나의 장위동 유래에 대해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길 장'자에 '자리 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어쩌면 이 장위동에서 오랫동안 함께 같은 자리를 지지고 볶고 살면서 각자의 소박한 희망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그런 동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아울러 미래 역시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타나내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장위동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4부

동소문 밖 사람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의 아내 - 이은숙

프롤로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8다길 58(옛 주소는 정릉2동 226-33번지), 지금 이곳에는 평범한 빌라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빌라 4층에는 평범하게 사업을 하며 사는 이종철 씨가 산다. 하지만 그와 같이 이곳에 살던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바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 그의 아버지는 이회영 선생과 이은숙 여사의 아들로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이규창 선생이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산 이들이지만, 정릉에서의 삶만큼은 누구보다 평범했다. 그래서 그 이웃 누구도 그들의 '특별한' 삶에 대해 알지 못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것은 이들의 평범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당 이회영

우당 이회영. 그는 김구, 안창호, 이승만, 여운형만큼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지금은 종로구에 '우당 기념관'이 있을 만큼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만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李裕承과 어머니 동래 정씨 사이에서 1867년 4월 21일 태어났다. 아버지가 이조판서 출신이라 명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직계 조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등 정승을 지냈으며, 어머니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鄭順朝의 딸이었다. 이 정도 집안은 당시 조선을 통틀어도 몇 되지 않았다. 그는 7남매 중 넷째였다. 위로는 건영健榮, 석영石榮, 철영哲榮이 있었고, 동생으로는 초대 부통령을 지낸 시영始榮,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다.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고 한다.



우당 이회영

많은 조선의 명문가 출신들이 친일을 했지만, 이회영의 독립운동은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부터 시작됐다. 농장을 경영하며 의병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독립운동을 위한 만주 서전서숙瑞甸書塾 건립에 참여하였으며, 안창호, 윤치호, 신채호,

이시영 등과 함께 신민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도 그의 건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이회영의 주도로 6형제는 6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다. 1912년에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한 신흥강습소(후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다.

이후 그는 그의 큰아들 규학圭鶴과 고종 조카의 혼례를 틈타 조선에 잠입하여, 고종과 접촉, 망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고종의 갑작스런 붕어로 무산된다. 그 후 그는 임시정부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여하나, 분열될 것이라 여기고 떠난 후 무정부주의에 투신한다. 1924년에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1925년 비밀결사 다물단, 1931년에는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이 합작한 항일구국연맹과 일본측의 기물파괴와 인물을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흑색공포단을 결성했다. 이회영은 흑색공포단을 직접 지휘했는데, 실제로 중국의 친일 인물들을 암살하고, 일본 영사관과 일본 기선 등을 폭파시키기도 했다.

1932년 11월, 그는 더 활발한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다롄大連으로 이동하는 도중 일본 밀정 등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미 당시 60이 넘었던 그는 체포 후 얼마 되지 않아 11월 17일에 순국한다. 일본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보도하였지만, 딸이 시신을 찾으려 했을 때 바로 화장을 시킨 경황 등으로 보아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런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높게 산 정부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우당 기념관을 건설해 주었다. 2000년에는 중국에서 항일혁명열사 증서를 주기도 했다.

잊혀진 이름

이회영 일생의 공로는 비록 사후긴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은숙에 대해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과 함께 같이 낯선 간도로 이주해서 고생했고, 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했다. 그녀가 있었기에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독립운동에 그녀의 지분은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솔직해지자. 그녀 말고도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의 삶에 관심을 갖은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그들은 기록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아는 것은 더 알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숙의 역사는 마이너의 역사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는 드물게 자서전을 남겼고, 그를 통해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 나아가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를 추체험 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되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 흔히 그 가문을 먼저 소개한다. 이은숙은 한산 이씨이며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1889년 충남 공주에서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이회영과 결혼한 것은 1908년 10월 20일, 만 19살 때 일이다. 당시 이회영은 첫째부인 서씨徐氏와 사별한 뒤였고, 슬하의 두 아들이 있는 만 41살의 중년 남자였다. 심지어 첫째 아들은 그

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 시대가 그랬듯 이 결혼은 이은숙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다만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주례로 치러진 결혼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결혼식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신식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형적인 유교적 교육을 받은 여자였다. 남편을 가군家君(집의 주인)으로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며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듯하다. 22살이라는 나이차는 부부의 나이 차이라기보다는 부녀의 나이차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남편을 '하늘 같이 앙망仰望(우러러 바라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상동교회

집안에서 결정한, 22살이나 많은 남편과의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운명이라 여기고 남편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려고 했다. 하지만 평탄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의 남편 이회영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되었고, 그것이 그 이후 그녀의 삶을 결정했다.

마적에게 총을 맞다!(서간도에서의 삶)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가게 된다. 자식이라고는 그녀 하나 밖에 없는 부모는 조선에 남겨두고 가는 길이었다. 만주로 갈 때 남편과 함께한 것도 아니었다. 이회영은 나중에 온다고 하여 그녀 혼자 갓 낳은 딸을 데리고 떠나야 했다. 처음 겪는 만주의 겨울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매서웠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원주민들의 냉대와 의심도 삶을 힘들게 했다. 집도 땅도 팔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다. 다행히 당시 중국의 총통이 된 원세개袁世凱와 이회영 집안과의 관계를 알게 된 원주민들이 의심을 풀었지만, 타국에서의 삶은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 원세개의 도움에도 처음 마음먹었던 횡도촌이 아니라 합니하合泥河(지금의 서간도)에 자리 잡았다.

살 곳이 정해져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첫 아들 규창도 타국에서 낳았다(첫째 딸은 조선에 있을 때 낳았다). 1913년 3월 28일의 일이었다. 남편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집에 없을 때였다. 대가족이 이주했기 때문에 혼자 낳아 혼자 키우는 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은숙은 곧 더 큰일을 겪게 된다. 아이를 낳은지 7달도 되지 않아 시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큰댁에 들렀다가 마적을 만난 것이다. 마적떼는 총을 쏘며 마을을 습격하였고 사람들을 납치했다. 그 와중에 이회영의 바로 위의 형인 이석영이 납치당하고, 그녀 자신은 총에 맞아 어깨가 관통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총을 맞은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간신히 깨어나긴 했지만 시골이라 변변한 약도 구할 수 없었다. 상처에 치



영석장 이석영(穎石丈 李碩榮, 1855~1934).
이회영의 바로 윗 형이다. 일제가 주권을 강탈하자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경학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대었다.

약을 넣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했다. 의사도 없어 통화현까지 왕복 240리(약 96km)를 불러와야 했다.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녀는 40일을 입원해 있어야 했고, 퇴원해서도 너댓달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 와중에 규창은 화로에 엎어져 화상을 입었다. 의사는 120리 밖에 있었고, 이회영의 조카뻘 되는 규준이 업고 가서 간신히 치료할 수 있었다. 어려운 나날이었다.

이럴 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도 즐거우면 덜 고생스러운 법이다. 하지만 일제치하 독립운동가의 아내에게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일 경우가 많았다. 1915년 8월 남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의 동반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에게 이회영은 스승이었고, 힘든 타향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런 그의 투옥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투옥 소식을 듣자, 총상 이후에도 혼자 잘 생활하던 그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조선으로 들어갈 생각까지 한다. 다행히 이회영은 곧 출소하고 이 소식은 곧 이은숙에게 전해진다.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이번엔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27살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홍역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열흘 만에 쉬이 나았지만 그녀의 홍역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다.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한 짧은 서울 생활

1917년 그녀는 드디어 남편을 만나러 조선으로 갈 마음을 먹는다. 그녀는 '가군은 오신다는 소식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없는지라 가군에게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적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남편없는 고된 타국살이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마침 사위 박창서와 셋째 동서가 조선으로 간다고 하여 남매(규숙과 규창)를 데리고 자신도 조선으로 가기로 한다. 하지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5월에 봉천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서울로 갈 것을 두 달 만에 허락받고서야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해 드디어 남편을 만났을 때의 소감을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딸 규숙은 저희 부친을 뵙고 반겨 좋아하고, 규창은 난지 5세에 부친을 승안承顔하나, 천생지친인지라 천륜이 지중한지 저희 부친께 안기며 좋아하건마는, 나는 5년 만에 만나니, 처음 시집온 것처럼 부끄럽고 새삼스러이 조심스러워지는데, 생각하면 부부지정이 근중하지만 남이라 이같이 냉정함을 느낌이로다." 만감이 교차하는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다. 아들 이규창은 이 시기를 인생에 가장 평온한 날들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 누이와 개천에서 송사리와 가재도 잡고, 살구도 따먹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했다. 이회영은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에 가담한 이후, '인산因山 구경 가지 말고 대문 단단히 걸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북경으로 떠났다.

북경 생활

1919년 2월 15일 이은숙은 남매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북경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 당시 이회영은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 중이었다.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3월 20일이었다. 남편과 같이 하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망명객 가족의 처지로 자주 이사를 해야 했고 남편의 명망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했다. 집에 여자라고는 임신한지 8달이 된 그녀와 9살 된 딸 뿐이었다. 음식을 하는 일도, 청소를 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더욱이 어려운 살림에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 다행히었고, 굶는 날도 많았다.

날씨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이번엔 더위였다. 그녀는 이를 '기막힌 더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 더위는 이회영까지 지치게 만들었다.

화불단행이라 했다. 이런 힘든 삶 속에,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1921년 6월 14일이었다. 무남독녀인 이은숙이었다. 조선에 두고 온 부모님은 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서 지내는 제사에나 겨우 참석할 수 있었다.

비밀문서를 갖고 조선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내는 단순히 어머니의 제사 참석만을 목적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전달한 비밀서류를 몸에 지니고 떠나야 했다. 결국 그녀는 평안북도 백마역에서 신발 밑창에 숨긴 서류를 발각당하고 일본 경찰에 의해 신의주까지 압송된다. 4살짜리 딸과 함께……. 그녀가 이회영의 부인인 것은 금방 밝혀졌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신의주 경찰서장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다. 신의주 경찰서장은 정인형이란 사람과 친분이 있었고, 정인형은 그녀의 시외삼촌이었다. 그녀는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잘 수 있었고, 비록 일본 형사의 감시 하에서였지만 다음날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떠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 제사를 지냈다. 그 와중에 같이 간 딸이 학질에 걸렸다. 비록 회복하긴 하였으나 잠시 들린 조선 땅에서도 그녀에게 평온한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5~6달을 조선에서 지낸 후 그녀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

신채호와 김창숙의 멱살을 잡다.

북경에 돌아와 그녀는 곧 아들을 낳는다(1922년 8월 17일). 입은 늘어났고, 해도 바뀌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식객은 계속 찾아왔고, 굶는 날도 심심치 않게 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1924년, 큰아들 규창이 친구들과 놀다 다리가 부러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아이가 다쳤으니 그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규창은 완쾌되고 곧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300리가 넘는 천진까지





(좌) 단재 신채호
(우) 심산 김창숙

심부름을 가게 된다. 그때 규창의 나이 11살이었다. 이은숙은 여기에서 처음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곧 원망을 접었지만, 그녀는 당시 상황을 '어린 것을 보냈다고 원망을 하였더니 (후략)'라고 적고 있다.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던 그녀에게는 극히 드문 일었다.

생활고에만 시달린 것이 아니었다. 김달하金達河라는 사람이 암살되었는데, 여기에 이회영 가족이 연루된 것이었다. 김달하는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1879~1962) 등과 함께 북경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며 이회영, 신채호申采浩(1880~1936) 등과도 교분을 쌓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곧 일제의 회유에 넘어갔고, 그 때문에 다물단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때 그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김달하의 장례식에 문상을 가게 되고, 이것이 김창숙과 신채호의 오해를 샀다. 김창숙과 신채호는 곧 이회영에게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회영은 이 편지를 보고 다만 '허허' 웃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를 참을 수 없었다. 누차 언급하지만 그녀에게 남편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그가 하는 독립운동은 그녀의 고된 삶을 지탱해 주는 명분이었다. 김창숙과 신채호의 절교 편지는 바로 그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슴에 칼을 품고, 규창을 데리고 이 둘을 찾아간다. 수기에 따르면 그녀는 그 둘을 휘어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둘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 결국 그녀는 이 둘의 사과를 받아냈다. 아마 자신이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 · 손녀의 죽음,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

또 불행이 찾아왔다. 그녀의 3살 된 아들과 작은 손녀(규학의 딸) 당시 유행하던 병에 걸린 것이다. 처음에 모두 입원시켰으나, 결국 손녀는 죽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7살 딸도 뇌막염에 걸렸다. 다행히 딸은 서양 자선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고 회복되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과 손녀를 하루걸러 보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었다.

1925년이 되었다.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아들 규창과 딸 현숙, 그리고 남편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다. 이 헤어짐을 끝으로 이은숙은 더 이상 남편을 보지 못한다. 당시 이은숙은 막내아들이 되는

이규동을 임신 중이었다. 이회영은 이후 독립운동을 하다 1932년 11월 17일에 옥사하는데, 26년 2월에 태어난 이규동은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은숙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복자 아닌 유복자'가 된 것이다. 시대가 낳은 비극이었다.

조선에서 남편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

조선에 들어온 그녀는 먼저 친척집에 자리를 잡고 남편의 동지들을 만난다. 거기서 동지들의 도움으로 돈을 조금 얻어 그것을 남편에게 보낸다. 이은숙과 헤어진 이후 이회영은 중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녀가 보내 준 돈은 큰 도움이 된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면 남편에게 돈을 송금하곤 했다.

서울에서의 삶도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1926년 2월 규동을 낳았다. 여자 혼자 갓난아이를 데리고 살아나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녀는 민적(지금으로 말하면 호적)이 없었다. 집이 있을리는 만무했다. 처음 신세를 진 곳은 큰댁이었다. 아이도 아파 급히 머물곳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은숙을 그곳에서 아이를 치료하고 여름을 지냈다. 이후 시외가 댁과 대고모 댁에서 신세를 졌다. 아이는 금방 크는 법이다. 나날이 커가는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거기에다 이회영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경찰의 중요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남의 신세를 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에게 보낸 돈도 화근이 되었다. 처음 서울에 와 이회영과 결의형제 한 이진사李進士에게 받은 100원을 바로 남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호의를 베푼 이진사가 곤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한다. 1919년 북경에 갈 때, 며느리가 조선에 남겨 둔 옷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한 것이다. 며느리가 옷을 남겨둔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알리바이로 만들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이은숙은 남편에게 가고 싶었다. 남편과 막내아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북경 생활도 매우 고단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리 없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딸이 아프다는 소식 등 슬프고 복잡한 소식만 들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기막힌 소식의 시작에 불과했다. 1928년 여름, 이회영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가야했다. 돈이 없어 무전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들 규창은 이 힘든 여정에 참여 시켰지만, 두 딸까지 함께하긴 어려웠다. 결국 이회영은 규숙·현숙 두 자매를 천진의 부녀구제원에 맡긴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데 두 딸을 부녀구제원에 맡긴 행위에 이은숙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이 소식이 담긴 편지를 읽고 혼절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회영은 상해로 가던 중간에 도적을 만나 얼마 있지도 않던 여비도 빼앗기고 다시 천진으로 돌아왔고, 두 딸과 재회한다.

이은숙은 살기 위해 일을 시작한다. 고무 공장의 여공생활, 삯바느질과 삯빨래 등등 닥치는데로 일을 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매달 이회영에게 송금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나마 이회영에게 송금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는 이를 이와 같이 표현했다. '매달 한 번씩은 무슨 돈이라는 건 말 아니하고

보내드리는데, 우당장께서는 무슨 돈인 줄도 모르시면서 받아쓰시니, 우리 시누이님하고 웃으며 지냈으나,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드리게 디는 것만 나로서는 다행일 뿐이다.' 참 대단한 순정이었다.

아들 · 딸을 만주로 보내고 홀로 남다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도중에 편지가 왔다. 딸 규숙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은숙은 20살이 된 딸이 출가하는 것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딸의 혼인을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원망을 단지 답장을 며칠 늦게 쓰는 것으로 풀었다.

1930년 말에는 막내아들 규동과도 헤어졌다. 이은숙은 아들이 크자 교육을 위해 장단長湍의 큰집으로 보낸다. 5살 된 아들을 홀로 남의 집에 두고 돌아오는 길이 오죽했을까!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이은숙의 두 딸, 그리고 사위는 당시 만주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고생은 끝날 줄 몰랐다. 그녀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한기악韓基岳을 찾아가 사정 하여 15원을 얻어 딸에게 보냈고, 그 돈으로 딸 규숙은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5년도 더 지나 만난 딸이었다.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었으니,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이은숙을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

남편의 부고를 듣다.

1932년이 되었다. 초겨울 받은 남편의 편지는 짧았다. "지금 신지新地로 가서 안정이 되면 편지한다. 지금 떠나니 답장 말라." 짧은 편지는 그 자체로 긴박함을 표현할 때가 있다. 내용에도 무언가 급박함이 묻어 있다. 이 편지를 받고 이은숙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 불안을 그녀는 '마음이 산란하기가 한량 없어 그날부터 침식이 불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다. 10월 19일 장춘에 있던 딸 규숙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회영이 대련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1일은 가까운 친척의 큰손자 돌잔치였다. 이은숙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전 의당의 집에 갔다. 하지만 바로 그 잔치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송편을 만들고 있었는데 전보가 왔다. 그리고 그 전보의 내용은 남편의 사망이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녀는 '미친 사람같이 낭떠러지 구렁텅이에 빠져 가며 간신히 몸을 이끌고 사직동으로 나와서' 효자동 우관선생 집을 찾아가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그날 밤은 시외가에서 보냈다.

다음날 시외가에서 유해도 없는 초종初終(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 치르는 온갖 일이나 예식)을 치렀다.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중에는 규숙이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대련으로 향했다. 규숙은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신문지국장들을 만나려 하였으나, 일본인 형사들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규숙은 일본인 형사들과 같이 아버지의 유해를 볼 수 있었다. 이회영은 눈을 뜬 채로 운명을 달리했다. 22살 먹은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일본인 형사들이 재촉하는 대로 바로 화장을 했다. 후에 언론은 이

회영이 자살했다고 보도하는데, 고문을 숨기기 위해 빨리 화장을 종용하는 것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로 인해 이은숙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막내아들 규동도 이로 인해 아버지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회영의 유해는 딸 규숙의 품에 안겨 장춘으로, 그곳에서 규룡과 합류하여 장단역에 도착하였다. 29일 남은 가족들도 장단 역으로 향했다. 거기에서 영결식을 치렀다. 이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통한 이회영의 원혼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해는 11월 1일에 도착했고, 그날 장지에 장사를 지내었다.

아들 옥바라지의 시작

운명의 장난일까? 이회영이 죽자, 이은숙은 그제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다. 상해의 여러 동지가 금화 200원을 보내준 것이다. 이것으로 전세나마 거처를 정할 수 있었다. 전세 든 집이 팔려 척숙戚叔 윤복영의 집 사랑채를 빌려 머물게 되었는데, 방이 네 개에 주방까지 딸린 집이라, 그녀는 방 세 개에 각 두 명씩 6명에게 하숙을 주고 살았다. 남편의 죽음 이전에 비하면 편해진 삶이었다. 그렇게 그나마 평온한 2년을 보낸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의 그녀가 의지하던 대고모가 돌아가셨다. 독립운동가의 부인의 삶에서 행복하기만 한 해는 없었다.

1935년이 되었다. 봄날 그녀는 꿈을 꿨다. 남편 이회영이 꿈에 나와 그녀의 첫째 아들 규창을 걱정했다. '규창이 때문에 걱정이다. 죽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애절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6월 5일), 첫째 부인의 둘째 아들인 규학에게 편지가 왔다. 규창이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게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을 일본 경찰에게 잃은 그녀에게 아들의 체포 소식은 진정할 수 없이 떨리는 일이었다. 오후 세시즈음에 종로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다. 혼자 가니 아들, 딸과 같이 오라고 했다. 아들 규창의 면회를 위해 부른 것이었다. 이미 규창은 서울까지 압송되었던 것이다.

일본 경찰은 이회영 가족을 특별하게 취급했다. 경찰서에는 면회가 없는데, 일부러 불러 면회를 시켜주고, 차도 대접했다. 이유는 '당신네가 당한 사정이 하도 딱해서'였다. 이은숙은 '잔악한 왜놈도 인정을 베푸는데, 같은 동포로서 몰인정한 인간들이 많으니 왜놈 보기가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라고 적고 있다.

규창은 6월 6일 검사국으로 넘어가 7개월 동안 예심을 봤다. 그동안 이은숙은 매 점심 사식을 대어주고, 철마다 옷을 넣어주고, 힘이 미치는 데까지 책을 보냈다. 1936년 2월 1일 규창의 공판은 신문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이 몰렸다. 이은숙은 막내 규동과 함께 재판정에 갔는데, 규동은 거기에서 용수를 쓰고 있는 형의 모습을 처음 봤다. 변론을 맡은 사람은 남편의 제자인 소완규蘇完奎였다. 그녀는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 첫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규창에거 무기無期를 같이 잡힌 엄순봉嚴舜奉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이규창은 13년 형, 엄순봉은 사형이었다. 상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엄순봉은 씩씩하게 내려오며 '세 살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기는 일반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의 아들만 생각하느라 엄순봉 열사를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쳐 후회하고 있다. 규창의 변호를 담당했던 소완규 역시

한국전쟁 때 납치되었다고 한다.

규창이 머문 곳은 공덕리 경성형무소였다. 그녀는 면회 날짜가 되면 비바람이 와도 아들을 찾아갔다. 생활은 하숙비로 충당했는데, 윤복영씨의 집이 오래되어 수리를 하게 되느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간신히 남편 제자의 필운동 집에 방 하나를 얻어 감바지 침선針線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렇게만 지낼 수는 없었다. 결국 자신은 규창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에 남고 규동 남매를 누나 규숙이 있는 장춘으로 보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아들 규창은 형무소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불온격서不穩檄書 제작에 관여되어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어 다시 공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의 감형이 사라졌고, 그는 한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광주형무소로 이감되는데, 이은숙은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한동안 노심초사 하게 된다. 다행히 광주로 이송된 이규창은 독방생활도 면하고 의무과장의 도움으로 편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이은숙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 면회를 못 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기간 이은숙은 재봉틀을 도둑맞는다.

만주로 돌아가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은 1938년, 작은딸 현숙이 조선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을 시집보낼 걱정이 또 생겼다. 2년 만인 1940년에 현숙을 다시 장춘으로 보냈다. 9월말에는 광주에 내려가 규창을 면회했다. 7달도 넘어 보는 아들이었다. 여기서도 교도소 측의 배려로 긴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에 장춘으로 이사하여 딸 둘과 규동, 그리고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도 모셔와 같이 살게 된다. 장춘에서 1942년 말까지 생활을 한 그녀는 42년 말에 다시 조선에 들어와 43년 봄, 3년 만에 아들을 면회하게 된다.

1945년 드디어 작은딸 현숙의 혼처를 정했다. 정월 27일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김씨라고 하고 했다. 하지만 이은숙은 그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내 생각 같아서는 파혼하고 돌아서고 싶은 생각인 걸, 그래도 인륜대사를 무단히 그럴 수 없어(후략)'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생각인지, 현숙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후의 감정이 겹쳐저서인지는 알 수 없다. 뒤에 '잘 해로偕老나 하고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하리요'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해 규동은 졸업을 하고 드디어 형 규창을 면회하러 간다. 형제가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이때 이규동의 나이가 19살이었다. 친형제가, 그것도 서로의 존재를 아는 친형제가 19년 만에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운명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 것인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그해 8월 만주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많은 조선인이 조선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이은숙도 조선으로 향했다. 규동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 피난길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나 역시 바라던 해방이 되고 청년들이 군인을 면하게 된 것이니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더라. 우리 조국에 다시 태극기가 날리는 걸 원통히 가신 분들 원혼이라도 보시고 얼마나 상쾌하실까 상상되도다.' 그녀는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거기에 규창이 출옥할 것을 생각하니 해방은 이래저래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조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규숙 · 규동 등 가족이 아직 모두 만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으니 서두를 이유도 없어졌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어도 그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1946년 5월 외손녀 현덕과 딸 현숙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모두 폐병이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을 이현숙은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면서 딸을 보냈다.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사였다.

1946년 7월에 온 가족이 그리던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으로 가는 도중 길림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팔로군을 만났다. 이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 젊은 사람을 차출하려고 하였다. 길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귀국하는 동안 자주 일어났다. 이은숙은 막내아들 규동이 군대에 끌려갈까 또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두 달이 지난 후였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서울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고, 도착하자 만주에서의 고생, 떠나보낸 딸과 손녀 생각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1947년 12월 17일에는 아들 규창이 정이형鄭伊衡(1897~1956)의 딸과 혼인을 했다. 정이형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했던 사람이다. 독립운동가 집안끼리의 혼인이었다. 고생하며 살아온 아들의 결혼, 그리고 손녀의 출산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전란 속에서

그러나 곧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규창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잡혀가 취조를 당했다. 다행히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 옥살이한 것을 알고 풀어주었다. 규동은 의용군에 끌려갈 나이었다. 이은숙은 규동이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머무는 곳을 옮겨다니다, 결국 양주 봉선사까지 가서 숨어 살았다. 그리고 그곳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남으로 피난을 갔다. 규동과 여든 살 노친이 함께 가는 피난길이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규동이 군대에 차출될 위기도 넘기며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서 피난살이를 하다 서울이 수복되자 서울로 돌아왔고, 1.4 후퇴를 맞아 다시 대전으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갔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피난살이를 했다. 전쟁 중인 1951년 12월 이은숙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별세하게 된다.

1953년에는 이회영의 동생이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별세했다. 이회영 남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다. 한국전쟁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었고, 이은숙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릉에서 편안한 만년을 보내다.

한국전쟁이 끝났다. 비록 전쟁기간 중 아버지와 이시영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규창과 규동 모두 무사했다. 1954년 11월에 다시 상경하여 큰아들 내외와 규동과 함께 지냈다. 이후의 삶은 과거의 고난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무난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하여 손자·손녀를 7명이나 보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다. 막내 사위가 정릉에 집을 구해준



만년의 이은숙 여사

후에는 큰아들 규창과 함께 정릉에 살았다. 이웃들은 그녀가 이회영의 부인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이회영도 당시에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그녀의 삶도 평범했다.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건강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녀는 정릉에서 꽤나 거리가 있던 경복궁 근처에 있던 법륜사에 다녔으며, 안양의 둘째 아들 규동 집에도 자주 갔다고 한다. 80대 후반까지 걸어 다녔다고 하니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자연히 몸이 건강해진 것일까?

1975년 1월, 정릉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한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를 집필하기도 한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이미 80이 훌쩍 넘었다. 손자인 이종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만년까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80이 넘어 쓴 수기의 내용은 그녀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1975년에는 제1회 월봉문학상月峰文學賞을 수상한다.

생활도 어렵지 않았다. 큰아들 규창이 해방 후 계속해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호와 김창숙의 멱살을 잡았던 성격도 그대로 남아 있어 며느리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손주들에게는 자상하고 평범한 할머니였다. 이렇게 평범한 말년을 보내던 그녀는 1979년 12월 12일 91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만났을까?

에필로그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은 힘들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에서 생활해야 했고,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굶주리고 쪼들린 삶은 일상적이었지만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내주었으며, 남편의 밀지를 갖고 조선으로 입국해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식과 손녀, 그리고 하늘 같이 여기던 남편의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도 독립운동하던 자식의 옥바라지를 했다.

이 모든 것을 그녀가 기억되고자 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파란 만장한 삶도 그녀의 표현대로 그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의도야 어찌되었건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녀가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 평범한 여인이 모진 운명에 맞서 삶을 살아온 그 이야기야말로 잊혀진 이야기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길-이규창

프롤로그

탕탕! 1935년 3월 25일, 중국 상해시 홍구虹口 거류민회관 3층에서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총에 맞은 사람은 즉사했다. 암살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 사람은 속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암살자 가운데 한 명의 머리를 칼로 내리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칼에 맞지 않은 어려 보이는 한 명은 차마 죄 없는 여인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는 하늘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 틈에 칼을 맞은 다른 한명은 간신히 여인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모였고, 중국 경찰에게 포위된 상황이었다. 두 암살자는 곧 체포되었다.

암살된 사람은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본에게 정보를 팔았던 이용노李容魯, 그에게 직접 총을 쏘았고, 여인에게 칼을 맞은 사람은 엄순봉嚴舜奉(혹은 형순亨舜), 그리고 차마 엄형순에게 달려든 죄 없는 여자에게 총을 쏘지 못한 어려 보이는 인물은 이규호李圭虎였다. 조선인이었던 엄형순은 곧 일본에 인도되었고, 중국 호적을 갖고 있던 이규호는 중국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곧 중국인 이규호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셋째 아들 이규창李圭昌임을 밝혀냈고, 그의 신변도 중국으로부터 인계받는다. 체포되었을 당시 이규창은 3일전 22번째 생일을 지낸 후였다.

무엇이 22살의 젊은이에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추적해보자.

최고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다

이규창은 1913년 3월 28일 만주 통화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회영, 어머니는 이은숙이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앞의 두 아들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조선 최고의 명문가라해도 손색없는 가문 출신이어서 힘든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그에게 고된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다. 해방직전까지 그의 생활은 굶지만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그에게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본 것도 태어나고 5년이 지나서였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쫓아다닐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했다. 그런 그였기에 아버지를 만나 가족이 모여 살던 서울에서의 기억은 비록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평온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둔 사람의 운명이 계속 평온할 수는 없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아버지가 북경으로 떠나자 가족들은 같이 떠나야했다.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땐 그나마 살림이 괜찮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식객을 맞이하느라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고, 중



이을규 선생

국 상인의 빚을 갚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그뿐 아니었다. 식구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도 변변한 치료조차 해줄 수 없었다.

학교를 갈 형편도 못 되었다. 그런데 마침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중국동지들이 노동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규창을 그곳에 입학시키라는 편지가 상해에 있는 이을규李乙圭선생으로부터 왔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갈 차비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밀항을 해야했고, 어렵게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상해에 도착했지만 결국 학교는 세워지지 못했다. 그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천진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아갈 때는 밀항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이었다.

천진에 돌아와서도 학교는 다녀야 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상황이 그가 상해에서 고생하고 왔다고 나아질 리 없었다. 결국 그는 한국인 자제에게 호의적이었던 장백령張伯玲이 설립한 남개중고등학교南開中高等學校에 사정을 말하고 입학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하루는 심산 김창숙의 사촌인 김창국金昌國이 이회영에게 권총 한 정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당시는 단칸방에서 이회영, 누이 둘, 이규창, 김사집(이회영의 동지) 이렇게 다섯이 살며, 3~4일씩 굶기를 예사로 하던 때였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김사집이 그 권총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와 수일 간 끼니를 채운 일이다. 그러나 곧 김창국이 돌아와 권총을 돌려받으려 했고, 당장 되찾을 돈을 구하지 못한 이회영은 김창국에게 폭언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겨우 돈을 빌려 총을 찾아주긴 하였지만, 당시 이회영 식구들의 비참한 삶은 이와 같았다.

여름은 어떻게 지내도 겨울은 더 큰 문제였다. 하북河北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를 자랑했다. 오랜 타지 생활로 몸이 약해진 이회영에게,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맹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이규창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염려가 되어 주인집에서 홑옷을 빌려 입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매탄을 주어, 쓸만한 것을 골라 아버지 방에 불을 때곤 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독립운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인 이회영과 동지들의 심부름을 계속하였다. 의열단과 다물단 등 단체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기도 했다.

1930년, 이규창은 아버지 이회영과 함께 상해로 갔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상황은 비참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버스·전차 검표원으로 번 돈을 보조 받아 생활했다. 이규창 역시 약방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며,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32년 2월 일본이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상해의 독립운동가들





(좌) 젊은 시절(1954년)의 이규창(왼쪽에서 세 번째)
(우) 유자명(柳子明) 선생

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이규창이 참여한 남화한인청년연맹(의장 유자명)은 이런 분위기에서 결성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항일운동가들과 함께 기관파괴와 요인암살, 친일분자의 숙청, 비항일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일구국연맹도 결성했다. 이들의 활약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친일 행위를 하는 자의 부관을 암살하고, 일본 영사관을 폭파했으며,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배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상해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승전축하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다.

이 사건으로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시련을 맞는다. 안창호는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한 집의 돌잔치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힌다. 이회영 역시 몸도 피하고,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대련으로 향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곧 순국한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체포는 독립운동가들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이었다.

독립운동 진영은 내부 변절자들 제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은 옥성빈玉成彬이었다. 그가 살해당한 혐의는 안창호 선생의 체포를 도운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거된 사람들은 이태공李太公과 연충열延忠烈이었다. 이들은 이회영 선생의 행로를 일본에 알린 것이었다. 옥성빈의 사촌으로, 역시 일본과 내통하고 있던 옥관빈 역시 제거됐다. 옥관빈을 제거한 것은 이용노를 암살한 엄순봉이었다. 처음 소개한 이용노 암살도 이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2살의 생일을 막 지난 젊은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총을 들었던 것이다.

고문 속에서

이용노를 암살하고 체포된 그는 5월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취조를 받은 곳은 종로경찰서였다. 말이 취조지 고문이었다. 그가 당한 고문은 물고문이었다. 나무 침대에 손발이 묶이고 배에 형사 한 사람이 올라 타 얼굴에 물을 부었다. 숨을 쉴 수 없어 기절하면, 인공호흡으로 물을 토하게 한 후 다시 이것을 반복했다. 그뿐 아니었다. 형사가 국어國語를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이규창은 할 줄 안다고 대답하고 지금 하는 말이 국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형사는 피고 있던 담배를 이규창의 손등에 비벼 껐고, 그 상처는 그가 죽을 때까지 손등에 남았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모든 일을 엮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



서대문형무소

을 해도 하지 않을 일까지 자백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의 혐의가 찾아지지 않자 이규창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의 수감번호는 661번이었다.

미결수 생활을 하며 간수 몰래 통방通房하는 것도 배웠다. 통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손으로 책을 들어 독서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벽을 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 번 치면 '가'였고, 연거푸 두 번을 치면 받침 'ㄴ'이, 세 번 치면 '다'가 되는 식이었다. 능숙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했다. 이를 알려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인 간수였다. 그의 이름은 채영식蔡榮植. 그는 후에 성북경찰서장이 되어, 홍천사에서 이규창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의 생리, 수감자들의 특성 등 감옥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공판과 서울에서의 감옥살이

"피고 엄순봉에게 사형, 이규창에게 13년 형을 언도한다. 불복할 때는 일주일 이내에 상고上告하도록. 탕탕탕!" 1936년 2월 18일 판결이 내려졌다. 2월 4일 1차 공판이 있었고, 2주 후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엄순봉은 판결 후 이규창에게 웃으며 '몸 건강히 있다가 좋은 세상 만나면 어머니 잘 모시고 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검찰은 이규창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다. 그들은 이규창의 죄목에 옥관빈 살해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엄형순은 옥관빈 살해사건 역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고 모든 죄를 혼자 감당했다. 결국 이규창에게는 13년 형이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되고 이규창은 당시 10년 이상 장기수를 수용하던 마포형무소로 이감 됐다. 그곳에서 그는 인쇄공장으로 사역을 나갔다. 마포형무소에서 밥은 콩밥과 국, 그리고 무겉절이, 그리고 특찬으로 명태 조린 것이 나왔다. 특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위 '개과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죄수



엄순봉(엄형순) 의사 기적비

들에게 주는 상장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졌다. 어느 것 하나 몰래 가져 나올 수 없게 공장은 나체로 출입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입속까지 검사했다.

그러던 1937년 9월 어느날, 이규창은 공산주의자 박세영朴世榮과 함께 인쇄소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강령이 담긴 팜플릿을 인쇄하여 배포한다. 하지만 곧 둘은 주모자로 발각된다. 박세영이 먼저 불려갔는데, 그는 모든 사건의 지휘를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덕분에 이규창은 비교적 '혹독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다. 그 '혹독하지 않은 처벌'은 수갑을 차고 암실 독방 3개월, 감식벌 2주였다. 독방은 발을 펴고 잘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곳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으며, 독방 생활도 41년까지 만 4년을 하게 된다. 이후 41년 10월 독방에서 나온 그는 고려청자 공장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생과 사의 순간을 목격하던 광주형무소 생활

1942년 3월, 간수가 이규창을 불렀다. 간수장은 곧 그가 광주光州 형무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광주로 이감됐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용수를 써야했다.

광주형무소는 경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수용인원은 500~600여 명이었고, 대부분 5년 이하의 단기수들이었다. 뜻밖의 이감이었지만 그에겐 행운이었다. 의무과장 장재성張在性이 그를 특별히 의무실 사역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의무실은 가장 편한 사역장 가운데 한 곳이었고, 의무과장은 형무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의무실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광주형무소 전경

그러나 이번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의무실에 오는 죄수들은 대개 고문을 받고 굶은 상태에서 왔다. 이규창은 이곳에서 처음 사람의 시신을 염하게 된다. 이후 그는 해방을 맞아 출옥할 때까지 352구의 시신을 염하였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된 것은 죄수들이 군항軍港 사역을 나가면서부터였다. 고된 사역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질이 돌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결국 죄수들이 죽기 시작했다. 일본 당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환자들은 병보석으로 가족에게 보냈다. 하루에 9명이 죽기도 했다. 전체 수감인원이 500~600명이라는 것과 많은 중환자를 병보석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중환자를 돌보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고역'으로 기억한다. 몰래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했고, 시간은 흘렀다. 1944년 봄에는 동생 규동圭東이 면회를 와서 만나기도 했다. 18살 동생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던 그는 오늘 중대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정오가 됐다. 라디오에선

15분에 걸쳐 일왕의 항복발표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환자들이 진정하라고 할 정도였다. 곧 독립운동가, 사상범, 전시법 위반자는 가출옥이란 형태를 빌려 출옥시키자는 방침이 정해졌다. 8월 17일 정오, 그는 형무소를 나왔다. 만 9년, 햇수로 10년 만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출옥했지만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직 중국 장춘에 있었다. 그는 한 달을 나주의 한 지인의 집에서 묵으며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광주에 돌아가 장재성 의무부장 등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 그는 광주형무소에서 자신이 살려준 죄수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그와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 그는 그의 모든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 해방은 되었지만, 세상은 흉흉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서 돈까지 모두 도둑맞자 그는 출옥동지구호회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 더러는 순국했고, 더러는 살아서 만나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정규李丁奎 선생을 만나 돈암동 그의 자택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이후 어머니와 동생들이 올 때까지는 이석규李錫圭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1946년 11월 드디어 어머니와 동생 규동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모였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고문으로 순국하고, 병사하고, 아사餓死한 뒤였다.

건국 이후(정릉에서의 삶)

1948년 건국이 되자 그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주사로 임명된다. 이후 그는 계속 공직公職에 머문다. 한국전쟁 직전은 1950년 3급 공무원 전형에 합격하였고, 감찰위원회 조사과장까지 승진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는 체신부에 들어가 서대문, 광화문 철도 우체국장을 역임하고 1974년 정년퇴직을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1990~1993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사 기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규창 선생

그가 어머니 이은숙 여사를 모시고 정릉에 자리 잡은 것은 1961년경이었다. 그는 막내 매제의 도움으로 정릉에 터를 잡았다. 당시의 집은 '재건주택'으로 불리는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다. 이규창 선생의 아들, 이종철씨에 따르면 아버지(이규창)가 공직에 있어 어렵게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랬듯, 이웃 누구도 그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존경 받을 만한 삶이었지만 국가도, 이웃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은 것이 건국 20년 만에 국가가 그에게 해 준 유일한 보답이었다.

에필로그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이봉창 열사도, 윤봉길 의사도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이규창에게 독립운동은 운명이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운명運命의 여신餘燼』이다. '운명이 남긴 나머지'란 뜻이다. 그의 어머니 이은숙 여사와 같이, 그 역시 자신의 힘든 운명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그의 아들 이종철 씨도 그렇게 기억해 주길 바랐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그 동지들을 기억하는 이종철 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그 되게 재밌는 게,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 너무 신화적으로 얘길 해서 접근성을 차단시켜. 다 거짓말이야. 다 이웃집 아저씨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도 성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도 많아. 친일파들도 성격 좋은 사람도 많고. 그건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보면 이분적으로 나눠 놔서……. 웃기는 얘기지. 무슨 항일 테러 했던 분들 얘기 나오면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사실대로 해서 젊은 애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지. 신화처럼 해 놓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

남겨진 자의 이야기-백노 유우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8(옛주소는 정릉동 604-16번지), 지금 이 주소에 집에 가서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많은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곳은 여전히 가난한 마을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후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던 백노白奴 유우석柳愚錫 선생이 만년을 보낸 곳이다(2013년 가을, 다시 방문하니 집은 헐리고 없었다).

백노 유우석.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그의 동생 유관순은 누구나 기억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에 참여한 그녀는, 4월 1일(음력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곧 체포된다. 그리고 고문 끝에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다. 그리고 그녀는 3.1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만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3.1운동을



유우석 선생이 살던 정릉 주소지의 집



유관순 열사 수감 기록표

비롯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더러는 죽고, 더러는 고초를 겪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고 남겨진 자의 이야기다.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그리고 유관순의 가족들

2013년 11월,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19년 4월 1일 희생자 가운데 유관순과 주소가 같은 '이씨李氏'가 등장한다. 이 '이씨'는 바로 유관순의 모친인 이소제李少悌여사로 생각된다. 그간 증언에 의해서만 알려졌던 이소제의 죽음이 처음 기록으로 증명된 것이다. 같은 날 그녀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 열사도 일본군에 총에 맞아 순국한다.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인 이날 천안 아우내 장터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와 태극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전,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일제는 '강경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경은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워 발포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칼로 사람을 베고, 총검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유관순도 이때 총검에 찔렸고, 그 상태로 일경에게 끌려갔다. 그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는 끌려가는 딸을 따라간다. 그 둘이 총에 맞은 것은 이때였다. 어떤 이는 총살銃殺 당했다고 기억하나, 동생에 기억에 따르면 총검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촌인 유중무柳重武도 이때 체포됐다. 혐의는 치안을 방해하고, 헌병을 폭행하였으며, 시위에 앞장섰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4월 1일 시위 당시 총검에 찔려 빈사 상태에 빠진 형 유중권을 업고 살리기 위해 주재소 등을 뛰어 돌아 다녔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형은 사망했고, 그도 체포됐다. 그는 유관순과 같이 재판을 받고, 유관순과 같이 징역 3년이라는 같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

일경에 체포되어 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유우석이다. 유우석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사람 중 한명이었다. 당시 영명학교永明學校에 재학 중이던 그는 '학생대표' 자격으로 교사들과 함께 시위 날짜를 정하였으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배포를 위한 독립선언서 천여 장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1일 시위에서 동생과 함께 그도 체포됐다. 동생 유관순과 다시 만난 것은 5월 법정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동생 유관순은 3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7년 형이라는 설도 있음),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 받고 8월 29일에 출옥한다.

출옥 이후

출옥한 그는 서울로 갔다. 1920년 4월 1일 배재보통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학업도 지속했다. 1922년 졸업 후 그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언뜻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는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조국수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역시 일본 당국에 의해 포착, 체포된다. 이번엔 종로경찰서에 끌려갔다. 고문이 이어졌다. 동지들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는 퇴학을 당한다.



부인 조화벽 여사

1923년 그는 조화벽趙和璧과 결혼하고, 그녀의 고양인 양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무정부주의 사상 연구에 몰두하다, 아내가 원산 루시여학교에 취직이 되자 같이 원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1926년 그는 그곳에서 무정부주의 운동가들인 이향, 조시원, 김연창, 한하연등과 무정부주의운동 비밀단체인 본능아연맹本能兒聯盟을 조직하고 계몽운동을 한다. 다시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시 원산은 공산주의 각 계파가 세력 확장을 하던 곳이었고, 무정부주의 세력과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갈등은 표면화 됐다. 1927년 4월 25일 동아일보에는 "「아나」계系와 청년당파青年黨派 난투亂鬪끗에 8명 중경상八名重輕傷"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1927년 2월 10일 원산여자청년회 주최 강연회에서 두 세력이 부딪친 것이다. 무정부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의 강연을 방해했고, 이에 공산주의 세력에서 방해하는 자를 데리고 나가 구타했다. 무정부주의 세력은 이를 다시 복수하기 위해 청년당 발기인인 장기욱張基郁의 집을 급습했다. 다시 싸움이 붙었고, 유우석은 이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고, 구세병원救世病院으로 실려 간다. 이 사건으로 그는 상해치사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된다. 같은 해 9월 15일 이전에 병보석으로 풀려난다(기왕에는 9월 27일로 되어 있지만, 1927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미 유우석이 보석 중이


「아나」系와 青年黨派
亂鬪 끗에 八名重輕傷
원산녀자청년회주최 강연회를 긔회로
두편이 크게싸와 랑편여덜명이 숭경상
元山에 大不祥事突發
阿片먹는兩班
본뎡서예잡혀
意延期
게의책무일지라도
긔한내자유로연긔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사

라고 나온다). 이후 재판이 계속된다. 처음엔 혐의가 인정되어 3년 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1928년 7월 27일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다. 당시 상고해서 무죄가 된 경우는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이를 특이하게 생각했다. 다만 장기욱이 고소한 상해죄 부분으로 벌금 30원의 판결을 받았다(동아일보에는 20원으로 기록).

이후 그의 이름은 신문 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다. 1929년, 32년, 34년, 36년 그는 계속해서 항일활동을 하다 구속된다. 1936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무려 7번이나 구금당하기도 했으니, 그동안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을 맞이하여



백노 유우석 선생

그의 이름이 신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해방 이후이다. 1946년 4월 13일 기사에는 유우석이 대한민주청년동맹大韓民主青年同盟의 사업부장이 되었음이 나온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대한독립촉성청년동맹전국대표자대회에서 부원장으로 뽑힌다. 같은 해 대한노동총연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피선되어 통일운동,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전국혁명자총연맹 결성과 중앙집행위원으로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의회 산업분과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기붕 체제로 개편되는 이승만 정권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유당에서 탈당한 그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시민층을 기반으로 노농당勞農黨을 창당하였으며, 심산 김창숙과 함께 유도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61년 5·16 군사정부에 의해 노농당이 해산되자 조경한, 임의탁, 서병철, 김희남 등과 독립운동자동의회獨立運動者同義會를 결성하고 순국선열유족회장에 피선되어 독립운동 유가족 구호에 힘썼다. 1962년 성균관 상무전의에 선출됐다.

1968년 5월 28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604의 16번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은 6월 5일 예총회관 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치

러졌다. 해방 후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해방된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썼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다. 매년 3월 1일,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유관순을 기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 한 자루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국가가 그에게 해준 것은 사망하고 22년이 지난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 뿐이었다.

※이 글은 "이정은 지음,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기념사업회, 2004"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 재구성하였음.

4.19혁명의 얼굴들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한성여자중학교 진영숙 학생의 이야기

어머니의 술회

1960년의 '어머니날'이었던 5월 8일, 당시 동대문구에 속했던 보문동 218번지의 가정집에 신문 기자가 방문했다. 그 집에는 얼마 전 딸을 여읜 어머니 한 분이 남은 자식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다. 기자가 찾았을 무렵은 죽은 딸의 열다섯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르고 기자를 향해 딸을 키워온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 이 가족은 만주 하얼빈에서 거주했었다. 해방이 되자 가을 무렵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수원을 향해 귀국하다가 해방 이듬해 함경북도 청진에서 이 딸을 낳았다. 수원에 도착했을 무렵인 1948년에 남편은 죽고 또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이 가족은 갖은 고초를 다 겪게 되었다. 1.4 후퇴 때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전쟁 직후 수원에서 일을 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성북구에 온 것은 이 딸이 초등학교 3

학년이 되었던 1955년이었다. 어머니는 동대문시장에서 피복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길렀다. 죽은 막내딸은 돈암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했던지 모진 환경 속에서도 딸은 구김살 없이 잘 자랐던 것 같다.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한다면 딸은 학교에서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며 씩씩한 학생으로 인식되었고 상급생들도 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했다. 발육상태도 좋았던지 수원에 있을 때도 매년 학교 무용반에 뽑혔으며 돈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한성여자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농구 선수를 했었다. 딸은 친구들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키가 크고 몸도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 했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곱게 잘 자란 딸이었기에 어머니의 슬픔은 상당했을 것이다.

딸이 죽던 날은 꼭 20일 전인 4월 19일이었다. 그 무렵 딸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올랐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뒤 딸은 책상에 엎드려 우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딸이 울면서 "공산당 나쁘다더니 공산당 같은 짓을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죽은 당일 날도 딸은 학교에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오늘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들이 안하면 우리 클래스 친구들을 선동해서 나설 테야"라고도 했었다. 어머니는 소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이러한 말을 중얼거리는 딸이 염려스러워 "너는 공부나 할 일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하면서 딸의 돌출행동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모습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친척 아주머니만 있었다. 대문 밖 골목에는 딸이 데리고 온 학교 친구 50~60명이 서성대고 있었다. 친척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상을 밀쳐놓은 채 딸은 어머니를 보기 위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를 볼 수 없자 딸은 무엇인가를 바쁘게 연필로 적고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딸의 유언이 되었다. 그날 밤 딸은 미아리고개에서 버스를 타고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딸의 이름은 진영숙陳英淑이었다.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이 무렵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아가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고 더러는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진영숙의 사례는 그 일부에 해당했다.

4월 혁명과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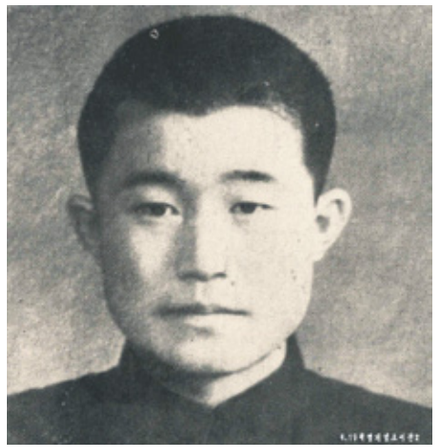
진영숙이 죽었던 1960년의 한국 사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기간산업 시설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국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물자가 부족했고 부정부패는 사회에 만연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원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장기 독재만을 추구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에 계획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경찰을 이용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8 대구 학생의거가 발생했다. 일요일이었

던 1960년 2월 28일은 대구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유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못나가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학생의거의 발단이 되었다.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학원의 자유 보장하라",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를 구호로 내걸고 시위를 벌여나갔는데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는 학생들에게 "이놈들은 모두 공산당"이라고 매도하였고 경찰들은 시위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후 전국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는 학생 시위의 발단이 되었다.

대통령선거 당일이었던 1960년 3월 15일은 당시 사회 각계에서 우려했던대로 자유당 정권의 선거 부정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국이 일정 비율의 표를 사전에 투표하여 미리 투표함에 채워넣기도 하거나 3인조, 7인조 투표라 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이 버젓이 선거인 명부에 추가되어 자유당에 투표한 것으로 위장되었다. 또한 선거장에서는 야당 참관인의 입회가 거부되거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도중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개표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표를 이기붕의 표로 집계하기도 했었다.

3.15 부정 선거에 최초로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일어났던 곳은 마산이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마산에서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도록 명령하였고 마산 시민들의 분노감은 극도로 치닫게 되었다. 이 와중에 마산시위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마산의 학생들, 더 나아가 신문을 통해 고등학생 김주열의 죽음을 알게 되었던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고무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대통령 이승만은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고무되고 조종된" 것으로 매도하자 학생들은 점차 거리로 나서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앞서 진영숙이 김주열의 죽음에 대해 책상에 엎드려 우는 날이 잦았던 것도 당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느꼈던 분노의 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
만 16살 때의 사진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4월 11일 이후 시위는 서울에서도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4월 18일에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생이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그 다음날 서울 시내 각 중고등학교생들과 대학생들이 궐기하여 "이승만 타도", "부정선거 다시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 이승만과 담판짓기 위해 무리지어 경무대로 몰려가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4월 19일에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지시로 경찰은 시위대에게 발포하기 시작했고 당국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하였다. 진영숙이 미아리고개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절명했던 것도 이러한 당국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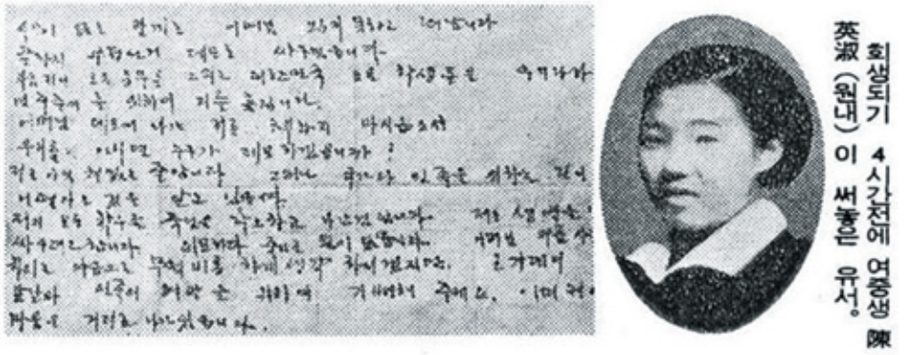
진영숙의 유서遺書

요즘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높지만 진영숙이 중학교를 다니던 1960년 당시도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해방 이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확립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학구열이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서구,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이상에 대한 교육이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실시되고 있었다.

앞서 진영숙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남긴 편지는 당시 시위대열에 동참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단초로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다면 다음과 같았다.

>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 (동아일보, 1960년 6월 2일자 5면)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진영숙에게도 당시 사회 세태에 대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혀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회생되기 4시간전에 여중생 陳英淑(원대)이 써놓은 유서。

『동아일보』 1960년 6월 2일자 5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조국과 민족의 위기로 파악하고 학생으로서 "생명을 바쳐" 이 현실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바로 이 진영숙의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진영숙은 김주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감을 행동으로 옮긴 김주열의 죽음에 대해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진영숙이 이러한 유서를 쓰고 있던 4월 19일 오후는 이미 중고등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나가고 있을 때였다. 또한 주로 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들에게 시위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한성여자중학교 부근에 위치했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내로 몰려가기에 앞서 근처 서울대 문리과 대학으로 몰려가 "나라가 망하는 판국인데 형님들은 공부만 하면 다인가?"라며 대학생들더러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령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



4월 혁명 당시 시위에 나선 학생들.
4월 혁명의 주역은 중·고등학생들이었다.



4.19 당시 교수들의 시위.
피켓에 '각대학교수단,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중고등학생을 필두로 대학생 및 사회 각계각층이 봉기하자 발포명령을 내렸다. 1960년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라 지칭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경찰의 발포로 진영숙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다쳤다. 강제적인 진압으로 시위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날의 학생들의 희생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울 시내 교수들의 시위에서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진영숙의 어머니인 김명옥金明玉은 기자를 향해 죽은 딸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죽은 딸을 생각하며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영숙아. 엄마는 이젠 울지 않으련다. 너와 너의 동지들이 뿌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 터오르는 제2공화국의 새 아침을 너는 보고 있느냐? 네가 간 지도 벌써 꼭 20일이 되는구나. 나는 거듭 결심했다. 어미로서 너의 오빠와 언니를 너의 참된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길러야겠다는 결심이다.”

이는 집을 방문한 기자가 어머니의 말을 옮겨 적은 것이다. 기자가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게 어느정도 가필한 흔적이 느껴지지만 어쨌거나 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희생을 고귀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기사화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희생은 이승만 정부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제2공화국의 ‘새아침’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딸의 죽음이 아무리 고결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슬픔을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숙의 어머니 김명옥은 죽은 딸 이외에도 딸의 오빠와 언니를 키워내야만 했다. 인터뷰 말미에 딸과 이별한 슬픔을 다른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딸의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 역시도 진영숙 가족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진영숙이 죽은 후 모교였던 한성여자중학교 측에서는 그녀의 묘비를 기증하고, 1주기에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망우리 묘지를 찾아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 무렵 그녀의 모교에서는 진영숙의 초상화를 제작하여 학교에 걸어두기까지 하였다. 물론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라 진영숙 가족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성동여중 2학년생 대표들이 어머니날을 맞아 진영숙의 집을 방문하여 진영숙의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위문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2월 6일에는 한성여자중학교에서 진영숙의 명예졸업장이 수여되었다. 교장은 특별히 진영숙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이 사람은 4.19 혁명 대열에 뛰어들어 …… 그 공적을 찬양하여 중학교 전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 …… ”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졸업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곳곳에서는 진영숙의 ‘의거’에 대해 칭송하는 말과 선후배로서 애도하는 말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진영숙의 어머니 김명옥에게 소감을 묻자 그녀는 “가슴이 메어 말을 못하겠다”라는 말만 하며 죽은 딸의 영정만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아무리 주변에서 딸의 의거를 칭송하더라도 혈육을 잃은 슬픔에 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시인 신동엽申東曄과 돈암동 · 동선동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 시詩,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중에서 -

우리가 기억하는 시인詩人 신동엽申東曄은 참여시인이요, 저항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의 썩고 어두운 곳을 후벼파는 시어를 원고지에 적어 내려간 곳에 대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신동엽의 시 세계는 4월 혁명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인이 4월 혁명을 목도한 곳은 바로 우리고장에 위치한 동선동이었다. 동선동은 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먼저 시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시인에게 강한 영감을 제공했던 공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시인이 성북구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과정

신동엽申東曄은 1930년 8월 18일에 출생하여 1969년 4월 7일에 작고한, 한국의 현대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충청남도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여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여 뒷바라지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인의 아버지는 성정이 차분한 자신의 장남을 보면서 글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다. 아버지는 장남이 6살이 되자 글을 가르쳤으며 없는 살림이었지만 책과 필기구를 마련하여 아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시인 역시도 어릴 적부터 독서에 힘써서 자신의 인문학적 세계관을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 이후 시인은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전주사범학교에 진학하였고 부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신동엽 시인

그러나 시인은 1948년 11월 토지개혁 미실시와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러나 교원자격만은 없어지지 않았

기에 그는 이듬해인 1949년 부여 주변에 있던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시인은 3일 만에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잇따른 실정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러한 까닭에 그는 서울에 올라와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학비를 위해 밭을 처분하여 학문을 하겠다는 장남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인은 고향인 부여로 다시 낙향했다. 인민군이 부여를 점령하자 인민군은 그를 그해 9월 말까지 부여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에 앉혔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앞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역사학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역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다만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는 공산주의자의 생각에 잠시나마 동조를 했기 때문에 얼결에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부여에 국군이 들어오고 난 뒤 시인은 국민방위군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점은 인민군의 실정에 점차 환멸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시인은 1953년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제1차 공군학도간부 후보생에 지원했으나 발령은 받지 못 했다. 시인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그는 성북구 돈암동에 자취방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해 나갔다. 친구의 도움으로 당시 돈암동 네거리에 헌책방을 열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당시 이화여고 3학년이었던 부인 인병선을 만났고 1957년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시인은 잠시 부여로 낙향했으나 이내 다시 부인과 자녀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홀로 요양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빠졌다.

그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후 그는 등단도 하였고 아울러 건강도 회복되어 처자가 있는 성북구로 재차 올라왔다. 시인과 가족의 거처는 성북구 동선동에 마련되었다. 시인은 교육평론사라는 잡지사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시인의 눈에 비친 '맑은 하늘'

부인 인병선의 증언에 의하면 시인은 1960년 4월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인은 저녁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온 몸과 구두에는 먼지 투성이었는데, 부인은 이를 통해 시인이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음을 알았다고 했다.

시인이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은 돈암동과 동선동 일대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시인이 재직했던 직장인 교육평론사는 종로구 내수동 168번지였다.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집을 나와 회사로 가는 길 일대는 온통 학생들과 민중들이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곳곳에서 벌여나가고 있었다. 학생을 예로 들자면, 삼선교 부근의 한성여자중학교와 지금의 혜화로타리 부근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는 온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이 자발적 시위를 정신없이 목도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이었다.



신동엽 시인의 시작(詩作) 노트

그는 이러한 민중의 봉기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시인이 4월 혁명에 쓴 시인 「아사녀」에 잘 나타나 있다.

시인은 시에서 "학원學園에서 도시都市, 도시 너머 궁궐宮闕 아래, 봄따라 왁자히 피어나는 꽃보래 돌팔매"라고 언급했던 구절은 그날 시인이 목도했던 시위 장면들이었다. 시위대열은 먼저 각급학교에서 강렬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시위는 도시에 확산되었고, 그렇게 확산된 도시의 봉기는 곧바로 궁궐 아래, 즉 효자동 너머 경무대에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인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주로 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정치깡패, 경찰에 맞서 돌팔매를 날리며 저항했던 것 역시 시인의 시선에 강렬하게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이러한 시위의 모습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운 반도에 이주오던 그날부터 삼한으로 백제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마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 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앙가슴과 물구비의 찬란한 반항이었다."

즉, 대규모로 시위가 터져 나왔던 4월 19일을 시인은 한국 역사의 큰 궤적 속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날의 민중봉기에 대해 시인은 3.1운동과 연결된 자발적 시위로 보았으며 그 민중운동의 계보는 아사달, 아사녀, 즉 단군 이래로 순수하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 발전의 거대한 물줄기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시위의 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
노도처럼 일어난 이 새피 뿜는 불기둥의
항거……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

이 시구에 의한다면 시인은 광화문 거리를 넘어 경무대가 바라다

보이는 효자동 전차 종점에서 불의한 정권에 사자후를 날리는 시민의 모습은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이날의 항거의 최후의 목표를 시인은 '자유'로 보았으며 항거 자체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매개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훗날 다른 시에서 4월 혁명 때만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 빛났던 날이라 회상한다. 이는 시인의 뇌리에서 4월 혁명이 모든 정치사회적 현실을 판단하는 잣대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시인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유토피아적인 시적 세계는 4월 혁명 이후에는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4월혁명 이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4월: '갈아엎는 달'

앞서 우리는 시인이 1960년 4월 19일 당일에 보고 또 느낀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은 당시 직장이었던 교육평론사에서 『학생혁명시집』의 간행을 맡아보면서 4월 혁명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예리하게 다듬어나갔다. 이후 그의 현실 참여시는 모두 4월 혁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후 4월 혁명에 대해 어떻게 기억했으며 더 나아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고자 했을까? 그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시 「4월은 갈아엎는 달」과 「껍데기는 가라」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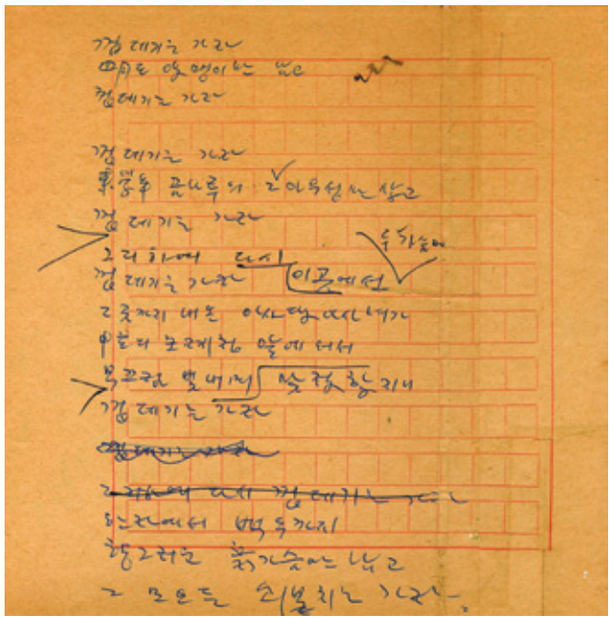
먼저 「4월은 갈아엎는 달」을 살펴보자.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엎었으면
그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 갈아엎었으면
갈아엎은 한강연안에다
보리를 뿌리면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이 시는 시인의 현실인식이 4월 혁명을 통한 자기성찰에서 나아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고뇌가 묻어나 있다. 4월 혁명의 자발적인 민중봉기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는데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시인은 4월 혁명 이후 아직도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인 채로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의 기세로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재차 일소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시인의 기억 속에서 4월은 역사에서 이어져내려 온 부패의 고리, 향락, 즉 타락하는 사회 자체를 처음으로 '갈아엎어' 본 달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후에 그의 대표적인 시였던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는 가라 초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일갈하는 것 역시도 4월 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비록 국민의 뜻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혼란상이 계속 남아 있었던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시인의 외침이었다. 이는 4월 혁명이 구체적 준비 없이 이루어진,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에 착안하지 못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것을 직시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다시 1960년 4월로 돌아가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반성, 혹은 주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시인 신동엽은 4월 혁명을 통해 묵묵히 땅을 가는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사회의 모순을 근절하고 민중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참된 발전이라고 보게 된다. 이는 1960년 4월 19일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 시작하여 광화문, 효자동 앞거리에서 목도했던 장면 장면들이 이후 그의 시 세계를 규정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돈암동, 동선동 일대의 당시 풍경은 시인의 삶의 거처이자 그의 시 세계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가 살았던 마을의 현재

그가 서울에서 첫 삶을 살게 되었던 곳은 앞서 말했듯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 지금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동네는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이다. 그가 경영했던 고서점도 정리된지 오래이며 그가 1960년 보았던 길거리와 지금의 길거리는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날의 기억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그의 부인 인병선은 현재 성북구가 아닌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열어 시인의 유지를 계승 · 발전시키고 있지만 본래 살았던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인은 4월 혁명이 한국 역사의 발전 궤적 속에 위치시켰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3.1운동의 궤적을 이어 다시금 자발적 민중운동으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4월 혁명은 시인의 시 세계를 일신시켰을 뿐더러 이 혁명을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 전

국, 아니 한국 전체 사회를 바꾸는 일대 혁신이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시인의 예리한 관찰처럼 한국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튼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가 4월 혁명의 시인이 되게끔 한 공간이, 그 첫 시발점이 성북구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그가 처음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불의한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도한 곳도 성북구였으며 아울러 혁명의 혈기에 넘친 청년학생들의 시 원고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교정을 보았던 곳도 그의 집이 위치했던 성북구였다.

시인은 민중의 자발적 혁명을 통해 사회가 변혁되는 것을 갈망했으므로 그의 지역을 놓고 본다면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새로 태어난 그 거리와 지금의 거리가 외양적으로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단편적 사건, 혹은 일시적인 민중의 흥분상태로 기억될 수 있었던 4월 혁명을 어느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공간, 비록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더라도 우리는 시인의 정신 속에 남아있는 그 공간이 어디라는 것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

1 조선 후기의 문인 이옥李鈺(1760~1813)은 1793년(정조 17) 8월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 유람을 떠났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중흥유기重興遊記」(『완역 이옥전집』, 휴머니스트, 2009)이다. 다음에 인용한 부분에서 이옥은 유람 때 챙겨 간 자신의 행장 속 물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소개하였다. 완벽한 행장을 꾸렸다고 자부한 이옥은 동소문을 나온 뒤 한참 뒤에야 붓과 먹과 벼루가 빠진 것을 알았다. 붓과 먹과 벼루가 유람의 필수 품목이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자李子(이옥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멀리 교외로 나가는 자를 보니 계획을 거듭하고 돌아올 날짜를 망설이면서 며칠 동안 심신을 허비하여 행장을 꾸렸는데도 매양 미흡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였으니, 나귀나 말 한 필, 동자로서 행구를 가지고 갈 종자 한 명, 척촉장躑躅杖 하나, 호리병 하나, 표주박 하나, 반죽班竹 시통詩筒 하나, 통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권詩卷 하나, 채전축彩牋軸 하나, 일인용一人用 찬합 하나, 유의油衣 한 벌, 이불 한 채, 담요 한 장, 담뱃대 하나, 길이가 다섯 자 남짓한 담배통 하나를 준비하였다. 구부정한 모습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을 나섰다. 스스로 잘 정돈되었다고 여겨 흐뭇해했는데 5리쯤 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잊은 것이 붓과 먹과 벼루였다. 일행에게는 짧은 담뱃대 두 개, 허리에 차는 작은 칼 두 개, 담배주머니 셋, 화겸火鎌 세 개, 천수필天水筆 한 자루, 견지蠲紙 세 폭이 있었다. 사람마다 각자 갈아 신을 미투리 한 켤레씩을 신었으며, 손에 접는 부채 하나씩을 쥐었고, 주머니 속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 오십 전뿐이었다."

2 김려 지음 오희복 옮김,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385~387쪽.

3 "천석일칙泉石一則 ; 천석은 탕춘대는 번잡하고 상운사 염폭簾瀑은 시원스럽고, 서수구西水口는 엄숙하고 칠유암은 명랑하고 산영루는 풍요롭고 손가장은 밝으며 환했다. 모두가 아름다운 풍광으로서 우열을 쉽게 결정지을 수 없었다(泉石一則 泉石 蕩春臺攘 祥雲簾瀑塽. 西水口毓. 七游巖烺 山暎樓月荒 孫家莊昶 皆佳賞 優劣未易標榜也)." (이옥, 「중흥유기」, 『완역 이옥전집』, 휴머니스트, 2009.)

4 남구만, 성백효 옮김, 『(국역) 약천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04.

5 「至孫家庄 見石上有南藥泉詩云〈孫家父子號英雄 割據三分覇業隆 爲庶於今何足恨 一區泉石勝江東〉余讀而愛之 旣而問之 則今已爲他人物矣 余不覺感歎 以爲孫家前後 何其初善擇地而卒皆不克保也 今之一區 亦猶昔之江東 余未見其勝也 因步其韻以和 噫 九原可作 藥泉相公 殆必笑而然之 許刻于下也」, 『無名子集』詩稿 冊一.

6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 http://db.itkc.or.kr)

7 “二月 二十二日 出惠化門 觀馬兵習騶 循山而北 上貞陵(神德王后陵-원주) 越小岡 入奉國寺 淸幽可愛 被雨少憩 渡小溪 一簇閭闔 依然有野人物色 曰松可亭 入數方地 洞曰靑巖 寺曰慶國 亦頗幽閒 而僧徒頑甚 夜下 淸水洞亭 是戚臣金炳冀別墅 山不峻而麗 水不深而淸 樓臺稠疊 花卉絢奇 曾云京近第一名園 而今爲張弁基溶所買 家敗不能繕 斬其樹 撤其樓 欹垣敗砌 有金谷梓澤之感”(이승희, 「北漢日記」, 『韓溪遺稿 6』, 국사편찬위원회, 1979, 402쪽).

8 “二十三日 自洞口緣溪而上 石益白 水益駛 無人烟俗跡 只望石門▣(石+含)砑懸在雲端 如九天閶闔 可望而不可親 乃北漢小東門也 從門入 忽見三峰揷天 突兀如角 儼然如神 使人敬畏 即白雲萬丈露積三角也 北風越緊 冷雪砭骨 下入輔國寺 有二禿頭 蓋掌管鑰者 貧殘孤寄 或不能關門 肚飢腿軟 不復作遊覽意 走入太古寺 寺後有李牧隱所製 圓證禪師碑銘 圓證俗姓洪 法名太古 嘗住是寺 麗王禮之 封王師 極敬事 化後謚圓證 命公銘 公以文章節義 爲一世宗 而爲一僧銘其墟 備極艷贅 俗習之不易祛 類如此 寺之名 由圓證也”(앞의 글).

9 이기영, 「불교사상」, 『한국현대문화사대계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5, 715쪽.

10 “三角山一枝脈 嶒峻磅礴 直馳東南 始焉屈曲圍繞 終焉平穩排置 左分爲曲曲淸溪 右列爲點點翠麓 其中有靑巖寺 寺之結搆 甚矮小 而其幽寂淸閒 可謂道禪逸人之居也 余以長年塵想恨不早來而一觀矣 今年秋 客遊長安 適値 厲氣流行 乍計城外止泊 但恨未有定屆趑趄囁嚅者有日矣 一日奉尺牘 卽友崔君麟請余同遊之意也 遂蹶起喟然曰 疾病固是患難中最愼者而矧此熾染流行如星如火 雖家人父子之親互避不見是例事也 今崔君蕭蕭客驂彷徨于藤蔓石硿之中 一身安危勢難暇保憧憧爾 思終不我遐棄 余雖頑石寧不知感 卽就謙谷老師朴殷植氏 具道其實 共謀行李 出至城東十里 始見 碧澗逶迤 蒼松森列 乃從斜蹊曲徑徐入其中 翠微一室開戶迎之者 卽崔君及李君恩雨韓君相愚方置酒掃榻而待之也 遂乘夜歡飮 召致僧侶數人 共議賦詩一絕 僧侶皆以不文辭之 其中有曰朴處士能解作詩 共敍觴詠之情而己 翌日 欲探本寺歷史 問諸僧徒 悉皆糢糊說去 而當初創立事蹟 初不能開喙 嗚乎 僧徒諸君 凡一小物一小事皆有歷史況寺刹卽自處於天上天下惟我獨尊之地 而諸君亦皆釋氏如來之門徒 則特以大慈大悲之心 必先講究其救世主義也 如欲救世 必先審其世界之興亡歷史 然後 亦可以實地救世也 今諸君不審自家之如何沿革歷史 則其空空之覺無乃己甚乎 嗚乎 諸君傳鉢之書意必有在 而諸君之不講推可知矣 白雲流水心共淸淨

11 諸君此可爲道耶 道則道矣 余不足稱也 紅塵紫陌 跡與殊絕 諸君此可爲樂耶 樂則樂矣 余不足羨也 但區區所望於諸君者 眞講釋氏之道 實踐釋氏之行 超海使節 學松雲大師之壯氣 臨難憤義 效靈圭上人之大勇 則諸君價値非但有光於佛門 抑亦有辭於國家萬世 而最後榮光 其將超上於極樂世界也 諸君盍念之哉 余旣執筆不得不以略聞記之 此寺之北距五里許 古有百波上人之講道菴 菴廢以後建設此寺 而未知何時云也 粵在哲廟時賜號慶國寺云 而其後大院王殿下屢臨此地拜佛云云爾 遂爲之記” (『서북학회월보』 제17호, 21~22쪽)

12 앞의 책, 28쪽.

13 「연합운동회의 폐지」, 『서울육백년사』 제4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1.

14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선집』, 어문각, 1986, 498쪽.

15 권보드래,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7, 역사문제연구소, 2001.

16 소설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인물이나 장소는 허구이다. 그러나 이상의 후기 소설 대부분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썼음은 잘 알려져 있다. 1937년 이상의 애인은 변동림(훗날 김환기와 재혼 후 김향안으로 개명)으로 그들은 같은 해 홍천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7 이상, 「종생기終生記」, 『정본 이상문학전집2_소설』, 소명출판, 2009, 385쪽.

18 “어수통도 헌납되었다. 부내 돈암정 흥천사에 있던 어수통은 이조시대 말엽에 이르기까지 약 백년 간 어수를 봉封하던 유서 깊은 수통인데 이것도 미영 격멸의 탄환으로 출정하기로 되어, 흥천사의 미쓰야마光山明龍 주지는 22일 오후 1시 철로 만든 25관이나 되는 수통을 수레에 싣고 해군 무관부를 찾아 헌납하였다. 무관부에서는 이 존귀한 헌납에 감격을 마지 않았다.”(『매일신보』 1943. 4. 23.)

19 문효세자묘는 원래 지금의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었던 효창원孝昌園으로, 1944년 서삼릉(고양시 덕양구)으로 옮겼다.

20 박성연, 「공감」, 『정릉3동 민속지 : 변화·공감·소통』, 국립민속박물관, 2008, 236~239쪽.

21 1966년 7월 현재 서울 시내 하천부지상의 무허가판자집의 수는 8,109동에 달했는데 하천별로 보면 한강이 3,048동으로 가장 많았고 청계천에 2,033동, 정릉천에 874동, 안암천에 278동, 홍릉천에 286동이 있었다. (『동아일보』 1966. 7. 19.)

22 성북구는 1979년 정릉천 상류의 무허가 건물 50동을 철거하기로 계획했다. (『동아일보』 1978. 8. 1.)

23 이 글의 김교신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김정환이 쓴 『金敎臣-그 삶과 믿음과 소망』(한국신학연구소, 1994)의 내용을 참고, 인용한 것이다.

24 1927년 동경사범학교를 졸업한 김교신은 귀국 직후 고향인 함흥의 영생여고보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고 1928년 『성서조선』의 발간사무를 맡기 위해 서울로 와서 양정고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0년간 김교신은 양정고보에서 박물교사로 근무했다. 이 무렵 김교신의 제자로는 윤석중, 류달영, 손기정 등이 있었다. 특히 김교신은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의 한 사람으로 동경 예선까지 따라갔다. 손기정의 회고담에 의하면, 이 예선에서 중간지점부터는 선두가 되었는데 그 때 선도차에 탄 김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손기정은 연도의 사람은 보지 않고 오로지 이 스승의 눈물만 바라보며 뛰어 드디어 우승했다는 것이다. 손기정은 다음과 같이 스승을 추모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만큼 크시고 참다우신 교육자 그리고 애국을 여러 면으로 스스로 실천하신 분은 본 일이 없다. 참으로 선생님은 크신 분 같다."

25 김교신이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의 권두언으로 쓴 「조와弔蛙(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가 어떤 혹한에도 살아 남는 민족의 희망을 개구리의 생명력을 빌어 노래했다는 일제 검찰측의 해석에 의하여 『성서조선』이 폐간되고 김교신을 비롯한 함석헌, 송두용 등 동인과 전국의 삼백여 독자가 피검된 사건이다.

26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161쪽.

27 앞의 책, 355~356쪽.

28 앞의 책, 357쪽.

참고 문헌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經國大典』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茶山詩文集』
『丹巖漫錄』
『潭庭遺藁』
『藥泉集』
『陽園遺集』
『秋齋集』
『韓溪遺稿』

신문 및 정기간행물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월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단행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韓國現代文化史大系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5.
권태환 · 전광희 · 은기수, 『서울의 전통 이해 -인구와 도시화』, 서울학연구소, 1997.
김교신, 『김교신전집』, 부키, 2001.
김삼웅, 『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2011.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김정환, 『김교신-그 삶과 믿음과 소망』, 한국신학연구소, 1994.
김지연 외, 『조선왕릉 : 종합학술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김현경 · 박성연 · 이건욱, 『정릉3동 민속지 : 변화變化공감共感소통疏通』, 국립민속박물관, 2008.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편 2』, 문화

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서울의 경관변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_____,『잃어버린 서울, 다시 찾는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_____,『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서울역사박물관,『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제Ⅱ권』, 서울역사박물관, 2005.
_____,『길음동』, 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특별시,『興天寺 實測調査報告書』, 새한건축문화연구소, 198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六百年史』,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_____,『서울인구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_____ ,『사진으로 보는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_____ ,『조선왕조실록 한성부자료집』,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
_____ ,『서울의 문화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_____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_____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경인문화사, 2008.
_____ ,『서울의 산』, 서울특별시, 1997.
_____ ,『서울特別市 洞名沿革攷 8 , 城北區篇』,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서울특별시 성북구,『城北區誌』, 예문사, 1993.
_____ ,『내 고향 성북 내 사랑 성북』, 2004.
성북문화원,『성북의 문화재』, 경인문화사, 1998.
_____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1998.
송도영 외,『주민 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 서울학연구소, 2000.
염상섭,『염상섭선집』, 어문각, 1986.
이규창,『運命의 餘燼』, 클레버, 2004.
이상,『증보 정본 이상문학전집 2』, 소명출판, 2009.
이은숙,『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1981.
이정은,『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기념사업회, 2004.
李燦 · 楊普景,『서울의 옛 地圖』, 서울학연구소, 1995.
이헌창,『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88.
조선총독부,『朝鮮古蹟圖譜』, 1916.
崔完基,『朝鮮時代 서울의 經濟生活』, 서울학연구소, 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상철,『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2011.

논문

강계숙,「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 5, 한국근대문학회, 2004.
김영수 · 송인호,「동소문동 4가의 도시한옥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8.
김영수,「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서울학연구』 38, 2009.
김정숙,「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희식,「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모,「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 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조강석,「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좋은가?」,『한국시학연구』 35, 한국시학회, 2012.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그림 중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정식으로 게재 허가 절차를 밟고 사용료를 지불하겠습니다.

찾아보기

1.21사태 168
3.15부정선거 320
4월 혁명 334
4월은 갈아 엎는 달 334
5.16. 226
7.4남북공동성명 228, 229
갑술옥사 212
개벽 112
개운사 109, 110, 111
개운산 16
격쟁 123
경국사 89, 93, 98, 105, 106, 132, 184
경기우도양주목지삼각산흥천사중창기문현 74, 75
경성부 134, 137, 19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47
경조오부도 17
경종 208, 211, 217
계용묵 186
고려 공민왕릉 59
공동묘지 194
공영주택 161, 163, 164
광주형무소 304
광통교 59, 61, 65
교수단지 167, 168, 173, 175, 187
구준봉 16, 130, 175
권영해 238
기로소 122
기사환국 212
기생조합소 100
기우제 68
김계연 122, 124, 125, 127
김교신 142, 144, 147, 149, 150
김달하 282
김려 83, 85, 89, 122
김명옥 325
김상익 122, 124, 125
김성칠 154, 159
김영삼 234
김주열 320
김창국 298
김창숙 282, 298
김현옥 170, 200
껍데기는 가라 335
나주벽서사건 220
남개중고등학교 298
남구만 86
남인 211, 219
남화한인연맹 300
노농당 315
노론 211
뉴타운 268
능동 21, 80
능말 21, 232
다물단 274
단장의 미아리고개 196
대리청정 215
대중 110
대한노동총연맹 315
대한독립촉성청년동맹 전국대표자회 315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307
대한민주청년동맹 315, 330
도당 할머니 27
도성대지도 191
도성삼군문분계지도 17, 60
독립운동자동의회 315
돈암동 330
돈암지구 135, 136, 140
돈암초등학교 318
돌일 129, 130, 131
동국여도 124
동대문 233
동망봉 산신각 49
동망봉 산신제 46
동방주택 162, 163
동선동 331
동성고등학교 331
동소문 12, 85, 119, 191
동신제 26
동원연탄 253
되넘이고개 15, 192
마을공동체 27
마적 277
마포형무소 303
만춘유람절구 83
망우선 철로 249
문민정부 234
문바위골 80
문화관광부 241
문화재관리국 235
문효세자 130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30
미아리 191
미아리 점집 200, 201
미아리 텍사스 202
미아리고개 12, 156, 195, 203
박계동 235
박세당 86
박세영 304
박은식 101, 102, 104, 105
박재삼 188
박정희 169, 227
박지원 235
반야교 132, 133
배밭골 29, 177, 187
배밭골 산신제 29, 31
배밭골 산신치성제 28
버들잎 설화 53
보문암 93
본능아연맹 313
봉국사 86, 89, 93, 94
부흥주택 161
북악스카이웨이 167, 171, 175, 180
북저동 83
북한일기 91
북한학원 151
사을한리 57, 62, 80, 192
산릉수호군 232
산신제 26
삼군부총무당 25
삼선평 25, 191
삼천리 연탄공장 256
상동교회 276
상현想峴 143, 144
서간도시종기 294
서대문형무소 152, 302
서북학회 104, 106
서북학회월보 101, 105
서울 기생조합소 99
서재국 164
서전서숙 273
석관동 233, 245, 248
석관동 도당제 39
석관이문전동차기지 256
석탄동 245, 248, 251
선의왕후 어씨 208
성북둔 25
성북천 16
성서조선 144, 145, 148, 150
성서조선 사건 152
성저오리 80
세원지우 64
소네 아라스케 98
소론 219
소완규 289
손가장 87, 121
손가정 80, 86, 121, 128, 179
손덕봉 123
손성수 171
손양택 127
손의대 127
송시열 62, 63, 211
수도경비사령부 171
숙정문 12
숙종 208, 211
순정효황후 윤씨 72
숭덕초등학교 164, 165
숭인초등학교 198, 199
스카이아파트 167, 179, 180

시범주택 161
신기선 93
신덕왕후 52, 64, 67
신동엽 328
신채호 282
신흥사 70, 71, 85
아리랑고개 22, 193
아사녀 332
아우내 장터 309
안기부 234
안창호 273, 300
양지못 240
어영청 25
엄순봉 289, 296
역사 앞에서 154
연애 113
연잉군 212, 215, 217
연충열 301
연탄 246
연탄가스 246, 262
연탄공장 단지 249
연탄파동 248
염상섭 112
영조 208
영친왕 72
옥성빈 301
원세개 277
유관순 309
유서 322
유우석 309
유자명 300
유중권 310
유중무 312
윤기 87
윤봉길 300
윤용구 259
윤치호 108
음지못 240
응봉 16
의릉 20, 221, 223, 244
이규동 305
이규창 288, 297
이기붕 315, 319
이기영 97
이남덕 154, 159
이상 73, 113
이상재 108
이석영 277
이성계 52, 56, 67
이소제 310
이승만 정권 315, 319, 324, 329
이승만 정부 161, 315
이승희 90
이시영 293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329
이옥 129
이완용 98
이용노 296
이원우 132
이은숙 275, 285, 294, 307
이을규 298
이이명 214
이인좌의 난 219
이종철 272
이태공 301
이회영 273
이후락 230, 240
인병선 331
인현왕후 209
임화 185
장기욱 313
장면 320
장백령 298
장옥정 208
장위동 258, 267
장위산 258
장위산인 259
장재성 304
재건주택 161
재건축 174
적유현 15, 191
전국혁명자총연맹 315
전덕기 목사 276
정동 58
정릉 20
정릉 살면서 188
정릉 참봉 164
정릉2동 산신제 37
정릉2동 재건축조합 174
정릉3동 29, 34, 121
정릉고개 22, 94, 143
정릉시장 121, 184
정릉약수 185, 186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174
정릉천 16, 121, 133, 139, 183
정이형 292
정조 122, 127, 180
정화淨化 115
조광 113
조국수호회 312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274
조선총독부 135
조수삼 87, 89
조화벽 313
종로경찰서 301, 312
종생기 113
종암동 북바위 산제사 40
중랑천 16
중앙정보부 22, 226, 228, 233
중일전쟁 115
중흥유기 129, 142
진영숙 317, 319, 322
짚풀생활사박물관 337
참여정부 242
채영식 303
천장산 20, 221, 222, 232
철도기지창 254
철도청 254
청계천 16
청수동 80, 130
청암사 85, 100, 102
청암사기 101
최린 101, 102, 104
최인규 320
추재집 87
춘정집 63
토막 136
토막민 136, 137, 138, 139, 197
토지구획정리사업 135
표본실의 청개구리 112
하월곡동 88번지 202
한국예술종합학교 23, 239, 241
한국전쟁 197, 264, 317, 330
한기악 286
한산대동 산신제 43
한성여자중학교 317, 319, 326, 331
한양도성 20
함석헌 144, 153
항일구국연맹 274, 300
현비 56
혜화문 12, 62, 86, 191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108
황인철 263
회릉 223
흑색공포단 274
흥선대원군 72
흥천사 67, 68, 86, 93, 94, 107, 111, 112, 115, 117
흥천사 감로도 74
흥천사 극락보전 천수관음상 73
흥천사명 동종 69
희빈 장씨 208
ICA주택 161
KBS열린음악회 236

성북구 지도


경기도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동대문구
1/5,000
1/3,000
북한산국립공원
한산대등산신제단
정릉4동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단
경국사
손가정 마을
스카이 아파트
봉국사
이은숙, 이규창의 집
길음2동
길음1동
월곡1동
장위1동
장위3동
장위2동
석관동
김진흥 가옥
석관동 도당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월곡2동
천장산공원
정릉1동
정릉2동
교수 단지
유우석 집터
훈천사
정릉 산신제주소각
성북동
돈암1동
돈암2동
종암동
북바위
동선동
개운산 근린공원
개운사
성북문화원
혜화문
삼선동
보문사
삼군부 총무당
한성여자중학교
완암동
보문동
동망봉 산신각
N
W
E
S